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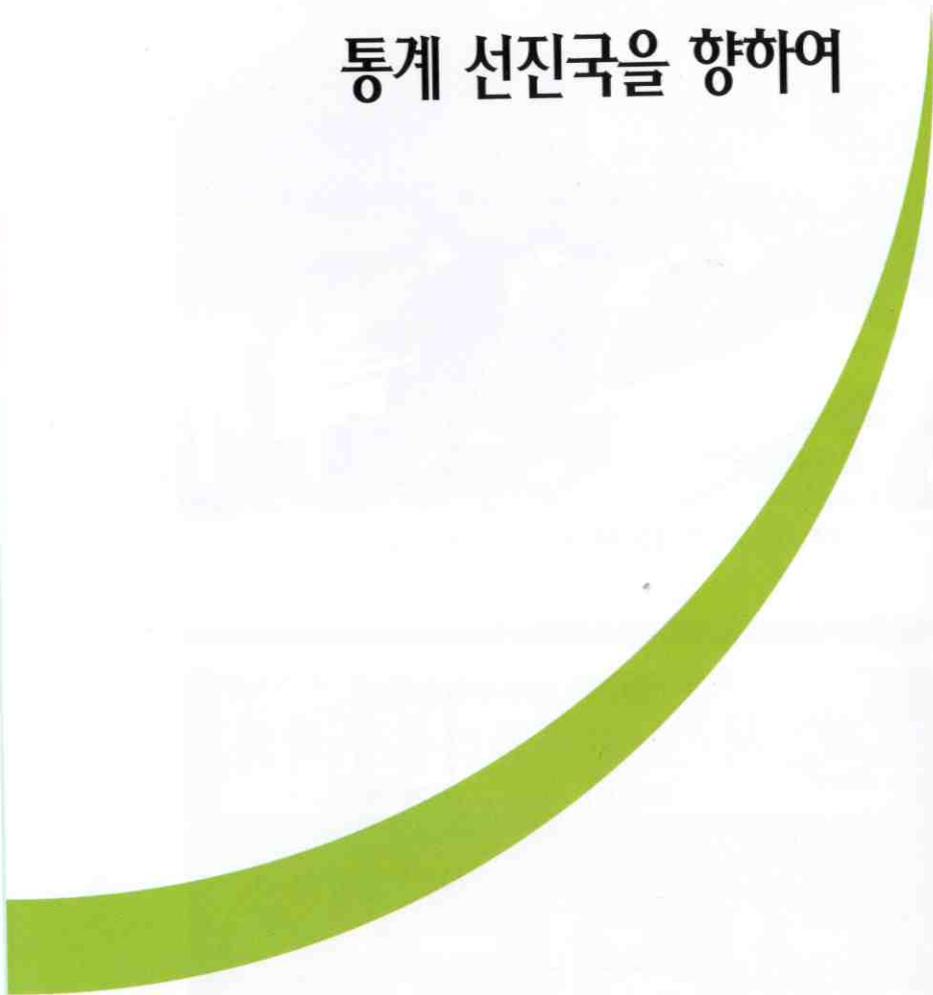
외도
정리

통계 선진국을 향하여



636827

통계 선진국을 향하여



통계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하며



본청, 지방사무소장, 출장 소장 연석 확대 간부회의(1999. 10. 9)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2000. 8. 17)

국제협력증진



ISI서울대회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맥파든 박사, 핵크맨 박사)와 함께(2001. 8. 27)



한·독 통계협력회의 독일대표단 접견(2000. 5. 4)

국정홍보를 위하여



K-TV 국정대담(2000. 2. 2)

관 · 학 협력



대학(충남대, 한남대, 우송대, 대전대)과의 관·학 협력(2000. 4. 11)

통계 선배님들을 모시고



통계의 날 기념 역대기관장 초청간담회(1998. 9. 4)

외부 수상식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으로부터 Gold Award를 수상(2001. 2. 26)

발간에 즈음하여

새해 첫날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숙연해집니다.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백 년도 살기 힘든 인간이 천 년이란 세월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지는 짐작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이렇게 천 년이 바뀌어지는 激浪의 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새로운 천 년의 새 물을 담기 위해 묵은 천 년의 고인 물을 쏟아내는 소용돌이 속의 물고기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통계청도, 통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700여 통계청 직원과 모든 통계인들에게는 감회가 남다른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윤영대 청장님이 있었습니다. 윤 청장님은 1998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4년여를 제6대 통계청장으로 재직하

면서 '통계는 국가 경영의 근본'이라는 철학으로 우리나라를 통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였습니다.

이런 철학은 4C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즉 고객 중심의 통계(Customer-oriented), 신뢰성 높은 통계(Credibility), 이용하기 편리한 통계(Convenience)를 만들고 국제 협력 증진(Cooperation)을 통해 통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을 비롯한 통계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소비자전망조사(CSI), 서비스업 동향 조사, 생활물가지수, 전자상거래통계 등 많은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임 당시 통계청이 작성하던 통계가 35종이던 것이 5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조사 및 처리 방법 개선, 각종 보조지표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업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이용 조사 방식(CAPI) 도입, OECD 실업률, 구직 단념자, 장단기 실업자 등 각종 보조지표를 개발하였고 물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물가지수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이 통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방법을 인터넷 시대에 걸맞은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통계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인 KOSIS를 개선하여 통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 특히 통계 소재 정보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을 위해 통계바다(Stat-Korea)를 만들어 통

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양자간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력 관계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각종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통계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2001년 8월, '통계올림픽' 이라고 불리는 <제53차 세계통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참가자 및 대회 관계자들로부터 대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윤 청장님의 4년여 재임 기간 동안의 기고문, 인터뷰, 연설문, 강연문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통계청 역사'의 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통계 발전을 위한 소중한 업무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통계와 통계청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자료 정리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수고해 주신 이동명 총무과장, 장치성 공보팀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7월

통계기획국장 정택환

목 차

화보

발간에 즈음하여

제1부 · 기고문

통계는 경국지대본(經國之大本)이다

- 1 통계는 경국지대본(經國之大本) · 18
- 2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 21
- 3 정보화와 통계정보 · 25
- 4 인구센서스 왜 필요한가? · 28
- 5 인구조사와 지식강국 · 32
- 6 한국서 열리는 통계올림픽 · 36
- 7 중산층 과연 몰락했나 · 40
- 8 실업통계와 체감의 차이 · 44
- 9 통계청 대전 시대와 통계행정의 방향 · 48
- 10 地球房 시대의 도래 · 50
- 11 디지털 경제의 도래 · 53
- 12 사이버 경제의 도래 · 56
- 13 내가 먼저 바뀌어야 · 59
- 14 고령화사회의 도래 · 63
- 15 지식경제로 가는 길 · 67
- 16 또 하나의 올림픽 · 71
- 17 아시아지역 통계협력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 75

제2부 · 인터뷰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 1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 80
- 2 통계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91
- 3 새 천년 첫 인구센서스 의미 중요 · 96
- 4 인구조사로 국가의 지식 역량 파악 · 102
- 5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사령탑, 운영대 통계청장 · 108
- 6 통계올림픽 유치한 운영대 통계청장 · 110
- 7 ISI서울대회를 통계 선진국의 진입 기회로 · 112
- 8 대전 이전을 계기로 지역 통계 활성화에 노력 · 127
- 9 지식국가에 걸맞은 통계시스템 구축 · 134
- 10 오차 축소 등 신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 136
- 11 통계 수준 향상 없인 亞·太 경제 발전 없다 · 138
- 12 전자 통계 행정체계의 강점 살릴 터 · 144
- 13 YTN 경제 스페셜 · 146
- 14 CBS 경제 포커스 · 158
- 15 K-TV 국정 초대석 · 173
- 16 YTN 경제 초대석 · 192

제3부 · 연설문

통계 선진국으로 도약하자

- 1 통계 선진국으로 도약하자 · 200
- 2 통일 대비하여 통계 통합 방안을 연구하자 · 216
- 3 지역 통계를 활성화하자 · 219
- 4 통계 품질을 향상하자 · 221
- 5 학 · 관 협력을 강화하자 · 226
- 6 새 천년의 의미와 통계 환경의 변화 · 233
- 7 새로운 밀레니엄에는 새로운 통계로 · 247
- 8 새로운 세기는 새로운 통계로 시작합시다 · 249
- 9 인구주택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자 · 255
- 10 농어업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자 · 260
- 11 여성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어진다 · 264
- 12 신뢰 받는 통계청을 만들자 · 267
- 13 통계 선진국을 꿈꾸며 4C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272

제4부 · 영문 연설문

Let us Begin the New Century with New Statistics

- 1 Let us Begin the New Century with New Statistics · 278
- 2 New millennium with new statistics · 284
- 3 How to improve the statistical quality? · 287
- 4 Advancing statistics for the next millennium · 293
- 5 Quality is vital to the official statistics · 297
- 6 The Statistical Approach to the Digital Economy and Knowledge-based Economy · 302
- 7 The Impact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n Statistical Services · 334
- 8 IT Statistics in Korea · 359

제5부 · 강의문

『통계』 바로 알기

1 『통계』 바로 알기 · 382

2 통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405

3 통계로 본 IMF 1년과 향후 경제전망 · 422

통계는 경국지대본(經國之大本)

“**훈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응, 손주 보고 싶어서 서울 갔다오는 길이야.”

“할머니, 건강하시네요. 서울까지 다 다녀오시고요?”

“건강은 무슨……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이제는 갈 때가 됐어.”

동네 어귀에서 75세 되신 훈이 할머니와 한 젊은이가 나누는 대화이다. 갈 때가 되다니? 훈이 할머니는 정말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일까? 얼마나 오래 살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로 알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77.4세이니 훈이 할머니는 적어도 통계상 2년은 더 사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대

중도일보 「월요일침에」(1998. 9. 14) 기고문

여명(期待餘命)이란 것이 있다.

훈이 할머니처럼 75세 되신 여성들의 기대여명은 9.76년이므로 통계적으로 보면 훈이 할머니는 앞으로 약 10년은 더 사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통계청이 만들어 내는 통계로 알 수 있다.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댐을 건설할 때도 강수량 통계를 기초로 유역 면적과 댐 높이가 만들어진다. IMF 한파로 인한 실업대책을 만들 때도 통계청이 조사하는 고용동향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최근 경기가 안 좋아 경기부양책을 채택한 것도 통계청이 조사하는 산업활동 동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국가정책은 통계가 없이는 장님 코끼리 더듬기이다. 어디 국가 정책뿐이라, 기업이 사업을 할 때도 통계에 의해야 하고, 개인이 사업을 할 때도 통계에 기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은 성공하기 힘들다.

통계는 그야말로 경국지대본(經國之大本)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나라 경영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가정 경영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국가든 기업이든, 또 개인이든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려면 통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이렇듯 기본이 되는 통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개인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자치단체에서도 무관심하다.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통계부서가 있긴 하나 겨우 흉내만 내는 곳도 많다.

대부분 10여 명 내외의 소규모 조직으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한다. 시 단위 이하의 자치단체에서는 계단 위의 통계 조직도 없는 곳

이 많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전에 와서 감명을 받은 일이 하나 있다.

어느 광역단체장께서 우리 직원들이 도대체 통계에 대한 기초 개념도 없으니 교육을 한번 시켜 달라는 것이다. 단체장께서 이토록 통계적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 이 자치단체는 틀림없이 발전하리라 믿는다.

■ 선진국이란 통계가 발전한 나라다. 통계가 발전했다는 것은 국민의식도 그만큼 발전했다는 의미다. 의사 결정을 할 때 통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몸에 밴 나라이다.

당연히 조사에 응하는 국민들의 답변이 정확하고 진실하다. 이 정확한 답변을 바탕으로 선진 통계기법과 선진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정확한 통계를 만든다.

■ 그러나 원초적인 응답자의 응답이 정확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통계기법이 선진적이고 컴퓨터가 선진적이라 해도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통계수준은 곧 그 나라 국민수준이다.

■ 우리의 경우 통계조사를 할 때에 조사원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소비지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부를 적어 달라고 하면 남의 집 살림살이 알아서 뭐 하려냐며 손을 내젓는다.

국가정책 결정에 꼭 필요한 통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으니 다른 집에나 가서 알아보란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잘 사는 사람일수록 호응도가 낮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확한 통계는 정확한 응답에서 출발한다.

■ 정확한 통계를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응답자들이 정확하고 진실한 응답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월요 아침을 맞는다.

대망의 1999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 아침 동해 바다 위로 불끈 치솟아 오른 태양은 너무도 밝고 아름다웠다. 새해에는 모든 고통과 시름이 사라지고 번영과 안정이 올 것 같아 희망과 용기가 용솟음쳐 오른다.

지난해는 IMF체제로 인해 모두가 어려웠다. 어서 희망의 새해가 오기를 기다렸다. 새해에는 경기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겠지? 기대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

인간은 미래에 대하여 알고 싶어한다. 내일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한다.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바심을 낸다. 어떻게 하면 알

중도일보 「월요아침에」(1999. 1. 25) 기고문

수 있을까 온갖 궁리를 다해 본다. 소위 죽집계 점쟁이도 찾아가고 토정비결도 찾아본다.

또 세계적인 대예언가들의 책을 보기도 한다. 1999년은 세기말인 동시에 천년(Millennium)을 마감하는 해이다. 세기말이 되면 항상 나타나는 종말론적 예언도 많다.

1999년 하면 얼핏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서양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이다. 그의 예언은 정확하다고 소문이 나 있다. 그런 그가 1999년 7월에서 늦어도 2000년에는 하늘에서 대왕의 불길기 내려와서 이 지구가 파멸하고 인류는 멸종한다는 으시시한 예언을 했다.

잠자는 예언가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도 미국 대륙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 잠긴다는 예언을 했다. 서양의 예언가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 거의가 이런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예언을 했다. 반면에 한국의 예언서들은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예언을 했다.

정감록이 그렇고 격암유록이 그렇다. 이들의 예언은 다음 세기에는 문명의 중심이 동북아에 오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적인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문명동진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이들의 예언은 들어서 과히 기분이 나쁘지 않다.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이들이 미래를 아는 것은 거의 직관 내지는 영감에 의해서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특수한 능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보통 사람도 미래를 볼 수 있다. 과학적 논거에 의하여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통계를 통해서다. 통계를 알

면 미래가 보인다.

세계 미래 전망서들이 있다. 영국의 Economist지가 펴낸 『The World in 1999』도, John Naisbitt가 펴낸 『Megatrends』도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서들이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통계에 기초하여 세계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전망도 그렇다. 인구통계에 의해 현재 4천6백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에는 5천2백만 명이 되고 인구구조는 현재의 항아리형에서 종(鐘)모양으로 변하고 평균 수명도 현재의 73.5세에서 78세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경제·사회 각 분야의 미래 변화들을 전망할 수 있다. 경제동향도 마찬가지다. 금년에 경기가 회복될지는 경기종합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경기의 회복 시기와 회복 속도를 알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통계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지수를 보면 금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경제성장률도 작년의 마이너스 5~6% 성장에서 금년에는 플러스 2~3% 성장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를 알면 이렇게 미래가 보인다.

통계를 잘만 이용하면 돈도 벌 수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묻지마 투자’가 유행이라고 한다. 그들이 통계를 연구하고 잘 이용한다면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이유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통계를 지혜롭게 이용하면 우리의 삶은 한층 더 윤택해진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이 통계를 생활화했으면 좋겠다. 막연한 표현보다는 구체적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생활화됐으면 좋겠다. 거리를 말할 때도 '저어기' 라든가 '조금만 가면' 보다는 '1킬로미터 전방' 또는 '3블럭 지나서' 라는 구체적 수치로 말해 주어야 한다.

'열 시쯤' 이 아니라 '10시 5분 전' 으로 말이다. 대충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가 생활화될 때 우리 제품들의 정밀도와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진화될 수 있다.

오늘 날은 정보화사회이다. 우리는 농업사회에서 출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사회로 이행해 가고 있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진다.

농업사회에서는 그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밭 갈고 논 갈며 전래 돼 오는 방식대로 농사를 지으면 되었다. 그러다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생활방식이 달라진다. 생산방식이 기계화되고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를 열게 되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

이 시대에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 하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계적인 암기위주 교육이 강조 되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는 암기가 아니라 정보의 소재 파악 과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하다.

대전일보 「기관장 칼럼」(1999. 6. 11) 기고문

누가 정보를 더 빨리 찾고 더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먼저 그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컴퓨터의 발달로,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전세계 어디든 직접 현지에 가지 않고서도 자기 방안에 앉아서 각종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됐다.

통계야말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국가의 정책 결정으로부터 기업들의 사업 결정, 나아가 개인의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HG 웰즈는 “언젠가는 통계는 쓰거나 읽기와 마찬가지로 유능한 시민이 모두 알아두어야 할 지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보화시대가 도래한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통계정보를 알아야 한다. 통계정보를 알려면 통계정보의 소재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통계정보의 소재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신문에 나는 정도만 알고 있고 좀더 나은 사람들은 통계연보나 통계월보를 찾아본다.

그러나 그보다 인터넷을 통해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로 들어오거나 천리안 등 부가통신망을 통해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인 KOSIS로 들어오면 많은 통계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과거의 통계자료는 물론 최신 자료도 볼 수 있다. 무려 5백25만 종의 자료가 들어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계정보의 보고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6월 1일 현재 1백3개 기관이 3백96종의 정부승인 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중 통계청은 49종의 주요 통계만 생산하고 3백47종은 다른 기관이 생산한다.

통계청 이외 기관의 통계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숫자는 얼마일까 등등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하자, 그러나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년 9월부터는 통계 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생산하는 통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까지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통계는 모두 찾아볼 수 있는 '통계 바다(Stat-Korea)' 프로그램을 만든다.

일반 국민들이 통계정보의 보고인 KOSIS나 '통계 바다'를 잘 이용하여 일상생활이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4

인구센서스 왜 필요한가?

-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연령은 지금 몇 살일까?
- 성별·연령별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로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까?
- 가구당 평균 몇 개의 방을 쓰고 있을까?
- 우리 국민들의 평균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한 나라 인구의 연령 구조, 인구적 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약칭 인

서울경제 「시론」(2000. 5. 3) 기고문

구센서스 또는 인구총조사라고 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단위로 간이조사, 10년 단위로 대규모 조사를 한다. 올해가 바로 대규모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해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센서스 준비에 바쁘다. 미국은 지난 4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미 조사를 실시하였고 나라마다 그 사정에 맞게 조사를 준비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5월 1일에 처음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2000년 센서스는 인구총조사로는 11번째 조사이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2000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우리나라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토에 살고 있는 모든 내국인·외국인과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조사한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통계조사인 것이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벽두에 실시되므로 21세기의 진입에 필요한 각종 정책 기초자료를 조사, 제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전국의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이외에 21세기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식기반사회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자 한다. 우리 국민의 성별 연령별 교육 정도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지식지도(National Knowledge Map)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둘째로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컴퓨터 보유 현황 및 사용 실태, 인터넷 활용 실태,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등을 조사, 우리 국민들의 정보화 수준과 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고자 한다. 주택 면적, 취사 연료, 난방 시설, 상수도 시설, 자동차 보유 대수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넷째로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관련된 복지사항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노인의 생계 수단, 생계 주부양자, 거동 불편 정도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보다 많은 사항들을 조사하고 싶지만 응답자들의 응답 부담, 조사기술상의 애로 때문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통계청에서는 성공적인 2000년 인구센서스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다. 1999년 12월 15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본부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준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와 시험조사를 거쳐 조사표를 만들었으며 조사요원들의 조사 지역 지도를 최신의 디지털 지도로 작성하여 가구 소재 파악을 정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요원들의 공개 모집과 철저한 교육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심벌 마크 제작, 슬로건 공모, 포스터 공모, 신문·방송 광고 등 각종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정책

의 기초 자료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조사는 사실 매우 어려운 조사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니 조사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조사이다.

이 조사를 위해 몇몇 외국에서는 기발한 방법을 쓰기도 했다. 남미의 페루에서는 1993년 7월 1일 센서스를 실시했는데 이를 위해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민의 외출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또 터키에서는 조사 당일에 버스, 철도, 항공 등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시간 동안 통행금지를 실시한 바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몇 번의 시험조사에서도 나타난 사항이지만 부재 가구, 응답 기피, 응답 거부 가구 등이 많아 조사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인구주택총조사야말로 국민을 위한 국가정책의 기초자료 조사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 하나의 참여가 바른 통계를 만든다! 21세기 국가정책의 초석을 놓는 것이다!

21 세기에는 지식역량과 정보화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예견이 아니며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세계 각국이 지식역량의 확충과 정보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2000년 10월) 20~21일 서울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도 이것은 주요 논의 과제의 하나였다. 또 지난 17~19일 매일경제가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서 세계은행의 칼 달만 박사는 자원의 축적에 기초한 발전 전략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지식에 기초해 새롭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에 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정보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식과 정보

매일경제 「분석과 전망」(2000. 10. 28) 기고문

수준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1월 1일부터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고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21세기 진입의 정책수요 사항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가 인구, 가구, 주택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이외에 21세기 진입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 사항을 조사한다는 점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지식 기반 정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 기간, 교육 수준, 대학에서의 전공 분야, 현직업, 근무 연수 등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지식 역량의 축적, 활용 정도를 파악해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컴퓨터 보유가구, 활용 인구, 활용 정도 등을 파악해 정보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정보화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 고령화사회의 진전 정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 인구의 7%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따라서 고령자의 생계 유지 방법, 주부양자, 거동 불편 정도 등

을 파악해 고령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복지사회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고자 한다. 아동 보육 상태, 주택 크기, 사용하는 방 수, 자동차 보유 대수, 상수도 시설, 식수 사용 상태 등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자료 처리 기간의 단축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 처리 방법이 개선돼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 우리나라 인구의 총 수, 주택의 총 수 등 잠정 속보는 올해 내로, 전국 민을 대상으로 인구와 주택의 기본적인 20개 항목을 조사하는 전수조사 결과는 내년 9월에, 10% 표본을 추출해 50개 항목을 조사하는 표본조사 결과는 내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것은 95년 보다 3~9개월 단축해 발표하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의 도입이다. 지금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모두 방문 면접조사로 했지만 이번에는 필요시 응답자가 설문서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도입해 응답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작성하다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무료 안내전화(080-527-2000)로 문의하면 상담요원이 안내해 주도록 했다.

네 번째 특징은 디지털지도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60가구를 한 단위로 전국을 약 25만 개 조사구역으로 분할해 설정했다. 이것은 최신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컴퓨터로 조사구역을 구획·설정했다. 이에 따라 조사시 조사구역 경계선의 불분명으로 인한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인구주택총조사이지만 조사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응답자들이 조사원들의 가구 방문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또 낮에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밤에 방문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해 응답을 기피하는 일도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는 조사되지 않는다. 이 조사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법으로 철저히 보호된다. 전혀 염려할 바가 없다.

또 이런 조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며 응답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2000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조사이다. 남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조사요,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사이다.

이 조사가 국가정책의 기초자료가 되고 자치단체의 정책 기초자료가 된다. 정확하고 충실한 응답이 국가정책을 올바르게 충실하게 만든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 올림픽이 있다. 전세계 통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계에 관한 이론·실무적인 문제와 향후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공식 명칭은 국제통계대회(ISI)이다.

이 대회는 1885년 영국 런던에서 국가통계간에 통일된 기준 설정과 국제 비교성 제고, 통계 이론 및 통계 기법의 발전을 위해 창설됐다. 1887년 로마에서 창립대회가 열렸으니 금년으로 112년의 역사를 지닌 대회이다.

전세계 체육인들의 잔치인 근대 올림픽이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대회가 열렸으니 통계올림픽인 국제통계대회는 이보다 9년이나 먼저 시작된 역사 깊은 대회라 하겠다.

이 대회가 통계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2,000여 명 정도의

서울경제 「시론」(1999. 9. 17) 기고문

전세계 통계인들이 대거 참석해 통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통계학 교수 등 통계학자뿐만 아니라 각국의 통계청장을 비롯한 정부 통계 관계자, 여론조사 기관과 같은 민간업계의 통계 분야 종사자들까지 모두 모여서 분야별로 통계의 제반 문제점을 놓고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기법도 발표되고 기존의 이론이나 기법에 대한 비판이나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또 그동안의 우수 논문 발표자나 국제 통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한다.

이 국제통계대회가 2001년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 지난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열린 제52차 대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2001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서울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제통계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깊은데, 첫째로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벽두에 열린다는 점이다. 새로운 세기에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통계는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룩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추구,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통계 분야에서 새로운 기법도 발전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 밀레니엄은 새로운 통계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통계 수준과 역량을 세계 통계인들이 널리 인정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통계 역사와 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통계 작성 역사도 짧고 통계 기관의 위상도 약하지만 우리의 것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셋째로 선진 통계 기법과 이론을 도입, 활용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통계학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사회학자, 기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이 대회에 참가해 많은 새로운 정보와 이론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 예로 지난번 헬싱키 대회에서는 통계 이론과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고 이것은 통계학뿐만 아니라 인접 사회과학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로 참가자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대회는 내·외국인들을 합해 약 2,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뿌리고 가는 외화만도 2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곁들여 한국문화와 역사, 한국상품 등에 대한 홍보 효과도 엄청나리라 생각된다.

2001년 서울 국제통계대회를 앞두고 통계청은 16일부터 18일까지 대전에서 국제통계포럼을 마련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아시아권의 저명한 통계학자, 통계청장, 그리고 정부 통계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문제, 시장경제 전환 국가들에 있어서의 통계 교육 문제, 그리고 아시아권 국가들 사이의 관·학을 포함한 통계인들의 상호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2000년에는 센서스를 각 국가

들이 시행해야 하니 상호 좋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북한의 통계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장 전환 국가들의 통계적 처리 및 기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본다.

또한 통계 환경과 기준이 문화권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권 통계학자와 정부 통계인들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것이 진전되면 아시아권에서 새로운 협력체의 구성도 시도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이 또한 2001년 서울 국제통계대회에서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최근 실물경제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IMF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면서 구조 개혁 성과가 가시화됨으로써 실물경제가 IMF 관리 체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80% 대에 육박하고 있다.

실업자수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실업자 수가 1999년 2월 178만 1000명, 실업률이 8.6%까지 올라 갔지만 올 2월에는 1월보다 6000명이 줄어든 112만 1000명에 실업률도 5.3%가 됐다.

과거에는 2월에 실업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정부의 실업 대책,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에는 2월부터 실업이 줄기 시작하며 실업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매일경제 「분석과 전망」(2000. 4. 5) 기고문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우리의 빈부 격차가 극심하게 악화되고 중산층도 몰락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MF 위기 이후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사상 유례 없는 실업자의 급증으로 생계가 어려운 서민층이 늘어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산층이 몰락한 것은 아니다.

중산층의 상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에 따른 중산층의 가구 비중으로 살펴보자. 중산층의 가구 비중이 1998년에 65.7%에서 1999년에는 64.8%로 약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중산층을 포함한 중위 60%의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1999년 상반기에 52.3%까지 하락했으나 하반기에는 52.6%로 다소 회복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소득분배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소득분배 상황 변화를 살펴보자. 상위 20% 계층의 소득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을 비교하는 소득배율을 보면 1998년 5.41배에서 1999년 5.49배가 됐다.

또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 계수도 1998년 0.316에서 1999년에는 0.320이 됐다. 소득배율은 0.08이 늘어났고 지니 계수는 0.004만큼 높아졌다. 거의 보합 수준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미미하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득분배 상황이 1999년 1/4 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득배율은 1999년 1/4분기에 5.85로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상반기

에 5.54였다가 하반기에 5.43이 돼 0.11만큼 개선되고 있다.

또 지니 계수도 1999년 1/4분기에 0.333로 정점을 이룬 후 상반기에 0.322였다가 하반기에 0.319가 돼 0.003만큼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IMF 위기로 악화됐던 소득분배 상황은 이미 개선되는 추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 생산적 복지정책 추진과 함께 빠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소득분배 상황은 1999년 하반기부터 미흡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니 계수는 0에서 1까지 숫자로 표시된다. 대체로 0.5 이상이면 소득 불평등도가 매우 심하고 0.4 이하면 소득 불평등이 덜 심한 것으로 본다. 이 지니 계수가 미국 0.381(1995년), 이탈리아 0.354(1993년), 프랑스 0.322(1990년), 일본 0.297(1994년), 멕시코 0.537(1995년), 우리나라가 0.320(1999년)이다. 지니 계수를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1999년 소득분배가 미미하기는 하지만 왜 악화됐을까? 그 첫째 이유는 IMF 영향이다. 우리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 많은 실업자가 생겼고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주소득원인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기회복과 소득증가의 시차문제다. 실물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존재한다.

셋째,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상위 소득 계층은 고임금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이 일시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소득분배 상황 변화는 IMF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까지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제도, 성과분배형 제도, 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서민층,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질적으로 조기 시행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정보 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 문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중산층이 더욱 육성되고 서민층은 중산층으로 상승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가 2~3년 안으로 OECD의 상위권 국가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

최근 통계지수가 체감지수와 다른 것 같다는 얘기들이 일
부에서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난(2001년) 9월 실업
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인 3.0%를 기록하자 실업 통계가 체감지
수와 다르다는 얘기를 한다.

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이상하
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업 통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여기서 그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
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첫째
로 우리의 산업구조적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최근의 경기 둔화는 내수보다는 미국 경기 등 대외 여건의 악화

서울경제 「시론」(2001. 11. 5) 기고문

에 따른 수출 부진에 기인한다. 특히 반도체, 컴퓨터 등 IT 산업의 수출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컴퓨터 같은 산업들은 자본 집약 산업이라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조정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 제조업 성장은 부진하여도 서비스업 성장은 유지되고 있다. 금년 제조업 성장률은 -3.2%(6월), -6.2%(7월), -5.2%(8월)였으나 서비스업 성장률은 4.4%(6월), 4.1%(7월), 6.7%(8월)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 증가율은 -2%대였지만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율은 3%대였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노동력 흡수 효과가 실업률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노동시장적 요인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경기 변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 변화에 노동시장이 비탄력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인력 감축 대신 신규 채용 억제, 근로 시간 조정, 파트타임의 활용 증가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셋째, 계절적 요인도 있다. 농사철이 되면 실업률이 내려가고 동절기나 졸업 시즌이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지난 9월의 실업률 하락은 이 영향도 있었다고 보겠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경기 변동과 실업률의 관계에는 이러한 산업구조적, 노동시장적, 계절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실업 통계가 실업자 구분 기준을 자의적으로 만든 것으로 오해한다. 우리 실업 통계의 기준은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국제

적 통용 기준인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ILO 기준에 의하면 조사 대상 주간에 구직 활동을 했으나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면 실업자로 본다. 또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하면 취업자로 본다.

오늘날 경제 현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 지표만으로 모두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실업 상황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지표(ILO 기준) 외에 여러 보조지표를 같이 쓰고 있다.

OECD 기준 실업률, 전직(前職) 유무별 실업자, 구직 기간별 실업자, 구직 단념자 등을 발표하고 있다. ILO 기준이 구직 활동 기간을 1주간으로 보는 데 비하여 OECD 기준은 1개월 기준으로 본다.

구직 단념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난 1년 이내 구직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구직 단념자는 현재는 비경제 활동 인구이나 여건이 좋아지면 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갈 수 있는 예비 노동력이라 하겠다.

또 연령별, 지역별 실업률도 보조지표로서 살펴보아야 한다. 지난 9월의 실업률이 3.0%였지만 20대의 실업률은 6.1%였으며 청년층(15~25세) 실업률은 8.6%였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지난 9월에 4.2%였고 서울은 3.6%였다. 우리의 실업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ILO 기준 실업률 지표 하나만 보지 말고 이러한 보조지표들을 같이 보아야 한다.

또 실업 통계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자 보고로 만드는 줄로 오해한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자 보고는 정부승인 통계가 아니다. 단지 내부적인 행정 보고 자료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실업 통계는 전국 3만 가구의 표본을 조사 전담 공무원이 직접 면접조사해서 만든다.

조사도 조사 공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나가 직접 조사, 입력하여 본부로 전송한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자 수가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은 실업 통계와 전혀 무관하다.

통계와 체감의 차이 문제는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전혀 없을 수만도 없다. 왜냐하면 체감이란 항상 개인적인 것이지만 통계는 개인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체감만을 확대하다 보면 전체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계는 적정한 통계적 기법을 통해 작성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체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의 실업 통계는 매우 적정한 통계적 방법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가 불식되었으면 한다.

7월 25일은 통계청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지 만 1년 이 되는 날이다. 처음 대전으로 이사를 때는 다들 걱정이 많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빠르게 정착을 잘 하였다. 이들에게는 이제 대전이 다시 바꾸기 어려운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다.

통계청은 자가 청사가 없다보니 이사를 자주 했다. 1960년대 초 창기엔 경운동에 있었고 1990년대엔 역삼동에 있었으나 이제 새로운 세기에는 대전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경운동 시대가 통계행정의 초석을 놓은 시기였다면 역삼동 시대는 통계행정의 기반을 구축한 시대였으나, 대전 시대는 통계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매일경제 「대전청사 이전 1주년에 즈음하여」(1999. 7. 23)

통계청은 통계행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행정통계가 아닌 조사 통계의 경우 사실상 통계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체감과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표본·비표본 오차를 줄이고 각종 보조지표를 개발하는 등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통계행정을 펴나갈 것이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적극 개발해 나가고 반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통계는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통계정보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제공할 것이다. 통계자료를 간행물 이외에 CD-ROM, 천리안 등 PC통신을 통해서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http://www.nso.go.kr>)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특히 금년 9월에는 '통계바다(Stat-Korea)'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통계 정보를 윈스톱 서비스할 예정이다.

넷째, 대내외 통계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통계행정의 선진화와 통계 수준의 향상을 위해 각종 국제 기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2001년 8월에는 통계올림픽이라 할 ISI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으로 통계청의 대전 시대는 통계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는 시대로 만들고자 한다.

금년은 새 천년, 새 세기,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해다. 지구촌 곳곳에서 다채로운 새 천년 맞이 행사를 하였다. 새 천년에는 인류가 지난 2천 년 동안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 한다.

도대체 새로운 세기에 일어날 변화는 무엇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디지털 시대의 도래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라면 앞으로의 시대는 디지털 시대이다.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기계적, 반복적인 일이 중심이 되며 경험과 암기 교육이 중시된다.

이 시대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사회다. 그러나 디지털 시

대전일보 「금요칼럼」(2000. 1. 21) 기고문

대에서는 창의적,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 정보가 중심이 된다. 정확성과 신속성을 요구한다.

모든 일들이 광속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척 신속하다. 이 시대는 정보화시대다. 정보의 소재를 알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적절히 이용하는 능력이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둘째, 인터넷 시대의 도래이다. 디지털 혁명은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20세기까지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멀고 먼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Global Village)으로 좁아졌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촌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이 된다.

지구촌이 地球房(Global Room)으로 좁아진다. 인터넷은 부쉬, 부쉬를 외친다. “부쉬, 부쉬, 공간 부쉬, 시간 부쉬”를 외친다. 인터넷을 마주하고 있으면 공간거리가 사라지고 시간 차이가 없어진다.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 사람과 실시간으로 거래도 할 수 있고 자료도 찾을 수 있으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마치 같은 사무실에 모여 앉아 일하듯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머지않아 세계는 지구촌이 아니라 지구방이 되는 시대다.

셋째, 지식 기반 경제시대의 도래이다. 지금까지는 생산활동에 있어서 토지, 노동, 자본이 중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식, 정보가 더욱 중시된다.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지식 기반 경제에 있어서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 지식 산업, 하이테크 산업 등에서 뒤쳐지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 이젠 국경도 없는 글로벌 경쟁 시

대가 된다.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넷째, 고령화 사회의 도래이다. 과학, 의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각종 질병들을 정복하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있다. 뉴스위크지 최근호(1999. 12. 27자)에 의하면 1995년의 인간의 기대여명이 65.4세였으나 2025년에는 72.5세로 7세나 높아지고 2200년에는 84.9세로 무려 20세 가량 높아진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한다.

결국 새로운 시기에는 개인은 더 인텔리전트화하고 사회는 더 디지털화하며 국가는 더 글로벌화해진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가, 기업, 개인별로 해야 할 일이다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완성을 2010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기고 지금보다 1천 배나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하는 등등의 정보 인프라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지난해에도 4%대의 성장을 이룩했다. 미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1998년 4.3%에 이어 1999년에도 4%대의 고성장을 지속했다. 미국경제는 1991년 3월부터 금년 1월까지 무려 9년(1백7개월) 동안 사상 최장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저물가, 저실업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저물가, 저실업 고성장은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잘 안된다. 기존의 필립스 곡선이 잘 안 맞아 들어간다. 미국경제가 이렇게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고 있다.

일시적 현상이라든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든가 등등.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이른바 '신경제

대전일보 「금융칼럼」(2000. 2. 18) 기고문

론'이다. 그것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E-Commerce)의 발전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경제, 전자경제가 성장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바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경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기초한 경제이다. 정보, 통신, 컴퓨터가 인터넷에 통합되면서 이루어내는 경제이다.

디지털경제는 정보기술(IT) 산업과 전자상거래(EC)로 대표된다. 미국 상무부가 1998년 4월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디지털경제」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디지털경제 시대가 도래함을 공언했다.

1999년 6월에 낸 「도래하는 디지털경제 II」에서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기술의 발전이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 하고 전자상거래가 21세기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자상거래 규모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2000년에는 소매시장만 70억불에 달하고 2002년에는 3천억불에 달할 것이라 한다. 또 2003년에는 기업간 전자상거래만도 1조 3천억불에 달할 것이라 한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 한다. 전자상거래는 비용 감소, 재고 감소, 시간 단축 등의 효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 한다.

또 정보기술(IT) 산업이 미국 경제 발전의 주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경제에서 정보기술(IT) 산업의 비중이 1993년에는 GDP 대비 약 6%였지만 1999년에는 약 8%에 달하고 실질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약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정보기술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하락으로 미국의 인

플레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직업구조와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직업구조, 고용구조, 임금, 자격 요건 등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기존의 일자리는 소멸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 습득과 이를 위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6년에는 미국 노동시장의 약 절반 정도(49%)가 IT 관련 산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한다.

디지털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디지털경제는 누가 더 빨리 효율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된다.

정부도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해 정보기술 산업의 육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통계청에서도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통계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과 기준이 없다. 또 국내에서의 거래 비중도 아직은 미미하다.

하지만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 산업 관련 통계를 정비·개발하고 있다. 지식기반 산업의 분류 기준을 새로 만들고 정보기술산업, 정보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들이 우리의 디지털경제를 촉진시켜 우리도 저물가, 저실업, 고성장의 신경제를 이룩하기를 기대해 본다.

2002년 어느 화창한 봄날. 구보(丘甫) 씨는 창 밖의 노란 개나리꽃을 바라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최근 정부 입찰공사에서 별로 힘도 안 들이고 수주를 하였기 때문이다.

옛날 같았으면 그의 이름대로 구보(驅步)하듯 하면서 관청을 들락거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번 입찰에 그는 종이 한 장 내지 않았다. 담당공무원 얼굴조차 모른다.

그는 조달청의 공사 입찰 사이트에 들어가 입찰 가격, 기본 계획도 등 필요한 사항들을 인터넷으로 모두 처리하였다. 정부의 입찰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 모든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보 씨는 요즘 사이

대전일보 「금요칼럼」(2000. 3. 17) 기고문

버정부의 도래를 실감한다.

사이버 시대의 도래는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선거운동 방식과 투표 행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입후보자가 지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유세해야 할 것이다.

접대와 비방 대신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1999년 미국 테네시주지사 선거에서 프로레슬러 출신인 제시 벤투라(Jessy Ventura)는 사이버 캠페인을 벌여 당선되었다.

그는 수개월 동안 3천여 명의 이메일 주소만 갖고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자금도 2/3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했다. 자연 선거비용이 절감될 수밖에. 또 투표도 이메일로 하는 시대가 이미 왔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11일 아리조나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에서 유권자의 1/3 가량인 35,765명이 인터넷 투표를 했다고 한다. 인터넷 투표를 하니 투표율도 올라 갔다고 한다. 사이버 정치가 실현되면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선거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어 고비용의 정치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정부는 종이 서류 없이도 일처리를 한다. 민원인과 대면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일을 처리하니 행정 효율이 극대화되고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러한 효율적 사이버정부는 먼 일이 아니다. 이미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다. 좀 복잡한 일들도 조만간 실현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2일 이메일로 전 국무위원에게 전자정

부 구현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신 바 있고 국무위원들도 이에 이메일로 답변을 올린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이미 전자결재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부처간 또는 부처 내에서도 업무를 협의할 때 전자문서로 주고받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민원 처리도 상당 부분 인터넷으로 처리되고 있다. 민원이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경우 지금은 민원인이 기관별로 신청해야 하나 조만간 이것도 한 군데만 신청하면 일괄해서 처리될 수 있는 일괄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사이버정부가 실현되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정부의 일처리가 효율적으로 변하고 민원인들은 관청일 처리가 무척 편리하고 경제적이 된다. 자연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통계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이버 통계청을 구축해 오고 있다. 홈페이지와 전자결재는 기본이고 본청과 지방사무소간의 업무연락은 워크플로어를 통해 한 지 이미 오래다.

지난 2월말로 통계청 1,700여 명의 전직원은 모두 각자의 이메일을 보유하고 있다. 청장과의 대화는 물론 일반 업무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최신 통계자료도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올려놓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각종 민원도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전자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정부의 조속한 구현을 위해 통계청은 사이버통계청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통계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정확, 신속한 통계 조사를 위해 조사도 모두 이메일로 할 수 있는 때가 조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요즈 음 신문지상에서 많이 접하는 말 중의 하나가 “바뀌”라는 말이다. 때마침 선거철도 되고 시류와 맞아떨어진 탓인지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린다. 테크노 가수 이정현씨가 부른 「바뀌」라는 노래가 소개되면서 온통 인구에 회자된 셈이다. 이 노래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온통 “바뀌 바뀌”를 외치고 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 있어. 어느 누구 믿어.
어찌 믿어. 더는 못 믿어. 누가 누구 욕하는 거야.
그러는 너 얼마나 깨끗해. 너나 할 것 없이 세상 속에 속물들이야.
워~ 바뀌 바뀌 바뀌. 모든 걸 다 바뀌.

대전일보 「금요칼럼」(2000. 4. 14) 기고문

바뀌 바뀌 바뀌 사랑도 다 바뀌.
바뀌 바뀌 바뀌 거짓은 다 바뀌.
바뀌 바뀌 바뀌 세상을 다 바뀌……”

이렇게 이어지는 이 노래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바뀌’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50번이나 나온다. 이 노래는 ‘바뀌’라는 강렬한 호소력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 많이 사용된다. 원래의 노래말은 이미 무의미하다. 다만 ‘바뀌’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만 강조되고 있다.

이 노래는 노랫말만 바꾸면 선거용으로 안성맞춤이라 4·13 총선에서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입후보자들의 병역, 세금 납부, 전과 기록 등이 밝혀지면서 흠결 있는 후보들에 대한 선거 캠페인용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총선시민연대는 이 노래말을 고쳐 「바뀌」라는 낙선운동 로고송으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상품 선전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신상품이 나올 경우 소비자들에게 타회사 제품을 바꾸기를 선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바뀌’의 대상은 내가 아닌 남이다. 나는 잘하니까 괜찮고 남이 잘못해서 문제니까 남을 바꾸라고 주장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닌 남에게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진정한 ‘바뀌’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하여 어떤 것을 바뀌어야 할까?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살고 싶은 사회가 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자기 이익, 자기 편리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하고 공익을 가장한 사익 추구가 판을 친다. 그러다 보니 남과 내게 적용되는 잣대도 달라지고 바꾸라고 소리 지르는 대상도 달라진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이중적 잣대가 횡행한다. 남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는 확연히 다른 잣대로 평가한다. 나는 항상 옳고 남은 항상 틀렸다. 내가 하는 일은 선이요, 남이 하는 일은 악이다. 나는 정의의 사자지만 다른 사람은 불의의 화신이다. 따라서 바뀌야 할 대상은 당연히 내가 아니라 남이 된다.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바뀌어야 한다. 내 기준에 맞도록 남이 바뀌어야 한다. 자기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남보고는 바뀌어야 한단다.

살기 좋은 사회,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이 아닌 내가 바뀌어야 한다. 그것도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남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매너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흔해빠진 핸드폰을 들고 고속버스 안에서, 기차객실 속에서 옆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 가면서 통화한다. 왜 조용조용 통화하지 못할까? 남이 하면 시끄럽고 내가 하면 편리한 걸까?

산에 가서 피우다 만 담배꽂초는 왜 집어던져 산불을 낼까? 몇 십 년간 가꾸어온 아까운 수목들이 다 불에 타는데? 그러면서 나는 담배불을 끄니까 괜찮고 남은 안 끄니까 산불을 내는 사람이다. 차를 타고 가면서 피던 담배꽂초는 왜 집어던지고 달아날까?

차 안은 깨끗해야 되고 길거리는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괜찮은

걸까? 선거 때만 되면 자기는 후보들에게 손 내밀면서 남보고는
씩어빠졌느니 어찌니 하면서 떠들기만 한다.

언제나 이 이중적 잣대가 바뀌질까? 남이 아닌 내가 바뀌어지면
우리 사회는 바뀌는 것이다. 남보고 “바뀌” 하고 소리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면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살
고 싶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지난 해에는 Y2K 문제로 온 세계가 시끌벅적했다.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연도 인식을 잘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다.

그러나 Y2K 문제에 묻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넘어간 일이 있다. 바로 Y6B 문제다. Y6B란 Year 6 Billion의 약자로서 지구 인구 60억 명 돌파의 해라는 의미이다.

유엔 통계 전문가들은 1999년 10월 12일을 '지구인구 60억 명의 날'로 지정했다 지구 인구 60억 명이 가져올 각종 문제는 어쩌면 Y2K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 한다.

현재 세계 인구는 1초에 2.5명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인구는 75

대전일보 「금요칼럼」(2000. 5. 12) 기고문

초에 1명이 늘어난다.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현재의 두 배인 120억 명이 되어 지구는 인구 과밀로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미래사회는 인구 과밀 사회이기도 하지만 고령사회가 된다. 의학의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가고 있다. 특히 인간 유전자 지도를 완전 해독하기 위한 게놈 프로젝트(Genome Project)가 완성되면 인간 수명은 획기적으로 연장될 것이다.

이러한 게놈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고 있다. 고령화사회의 여부는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로 구분하게 된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율이 4% 미만일 경우 청년사회(Young Society) 4~7%이면 장년사회(Mature Society), 7% 이상이면 노년사회(Aged Society)라고 본다. 그리고 노년사회에 있어서도 고령 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어서면 노령사회(Aged Society)로 본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00년에 7.1%가 됨으로써 고령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이웃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니 우리는 일본보다 30년 늦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사회가 되면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난다.

첫째로, 노인 복지 수요의 증가, 실버 산업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에 337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에는 약 2배인 69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실버 산업도 발전하게 된다.

둘째로, 노동력의 취약 현상이다. 전 인구 중 노동력 인구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의 노동력이 취약해진다. 우리나라의 노동력 인구비 중을 보면 1995년에 70.7%였으나, 2020년에는 69.6%로 약 1.1%p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규 노동 인구층인 15~29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사회 보장 비용의 증가와 노동력 인구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노령 인구를 위한 각종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 보장적 지출의 증가로 노동력 인구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노동력 인구 100명당 노령 인구 수의 비율로 나타낸 것을 노년 지수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 이 노년지수가 1995년에는 8.3%였으나, 2000년에는 10.0%이고 2020년에는 18.9%가 될 전망이다. 노동력 인구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도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므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도 노령연금 지급, 노인 전문병원 개설, 노인복지관 건립 등 여러 가지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령 인구층을 복지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생산적 활용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걸맞은 일자리 창출, 자원 봉사 활용 등 생산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또 가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효도를 강조하는 우리의 가정 체제가 어느 복지 체제보다 우수하고 효율적이다. 따라서 집집마다 효를 중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건전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건전한 가정이야말로 한 사회의 가장 튼튼한 기초다. 가정이 무

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가 바로 선다. 이
평범한 진리를 가정의 달에 새삼 되새겨 본다. 노령화사회의 도래
와 함께!

역사 학자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인류의 문명은 도전과 응전으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도전과 응전으로 문명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인류의 앞에 닥쳐오는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론, 즉 지식이 역사 발전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정보가 곧 경쟁력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위시한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경제성장의 원천이 과거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었으나 이제는 지식이 성장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일보 「글로벌」(2000. 6. 9) 기고문

(Lester C. Throw).

새로운 성장 요인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OECD가 지식경제보고서(1996년)에서 지식이 중요한 생산요소임을 밝혀내고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세계은행(IBRD)도 세계발전보고서(1998년 10월)에서 경제발전의 역사는 지식의 축적 과정이며 지식 경제는 역사의 진화이자 하나의 혁명이라고 하면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21세기는 지식이 경쟁 무기라고 한다. 국민 개개인에게 축적된 지식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Peter Drucker, Alvin Toffler).

과거에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요소들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미래에는 지식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식이란 무엇인가? 흔히들 지식이라고 하면 학문적 지식, 즉 학식으로 알기 쉽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사람을 지식인이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높은 학식이 아니다. 지식은 자기의 일하는 방법을 개선, 개발, 혁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고객 서비스 노하우 같은 현장 경험이나 기술특허, 데이터베이스 같은 실용 지식을 말한다. 즉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방법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나 지식인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경영학자 톰 피터슨은 지식인의 전형으로서 리츠칼튼 호텔의 청소부를 들고 있다. 청소부 버지니아 아주엘라는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지만 청소라는 작업을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높였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신지식인은 누구나 될 수 있고 어느 직종에서도 나올 수 있다.

한국은 지식 경쟁력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동일한 시간을 노동하면서도 생산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1993~1995년의 노동생산성을 국제 수준과 비교해 보면 한국(36)은 미국(100)의 3분의 1 수준이고 일본(7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맥킨지 보고서).

한 전자회사 간부에 의하면 똑같은 기계와 재료를 사용해서 한국은 1만달러짜리 레이더를 만드는데 영국은 우리의 열 배인 10만달러짜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왜일까?

이것은 바로 지식 격차 때문이라는 것이다. 1997년 10월 IMF 위기가 터지기 직전 부즈-알렌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진국과의 지식 격차라고 지적한 바 있다.

21세기의 필수 조건

21세기에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식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식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식의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지식은 언제나 개인에서 시작된다. 개인의 지속적인 지식 창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개인의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교육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지식의 저장에 있어야 한다. 지식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진부한 지식은 없애고 새로운 지식은 저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지식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은 머리 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활용될 때 생산성이 올라가고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

이제는 정부, 기업, 개인 모두 지식 국가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21세기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또 하나의 올림픽이 열린다. 1988년 우리는 잠실 스타디움에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세계 각국에서 내로라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여 자기의 기량을 세계에 맘껏 과시하였다. 이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환호작약했는가? 그 때의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8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통계올림픽이 열린다. 전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약 2,000여 명의 통계인들이 참가하는 통계올림픽이 열린다.

비록 스포츠 올림픽처럼 금메달, 은메달 하면서 메달을 주지는 않지만 전세계 통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토론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를 여는 것이다. 이것을 세계통계

세계통계대회시 신문기고 준비문(2001. 8. 10)

대회(ISI대회)라고 한다.

세계통계대회는 114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매우 유서 깊은 대회이다. 1885년에 창설되고 1887년 런던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다. 이후 매 2년마다 대륙을 달리해 가면서 열린다. 이번 제53차 대회는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게 된다.

이 대회가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세계 통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발표하고 논의한다는 점 때문이다. 통계학자, 정부 통계 관계자, 국제기구 통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통계이용자들까지도 한 자리에 모여 많은 문제들을 토론하고 논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주 이론적인 것부터 실무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다. 대개 학술대회의 경우 이론적 주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이번 대회에 발표되고 토론되는 논문의 수가 약 900여 편에 이른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되는 국제대회가 별로 없다. 세계통계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로, 21세기에 여는 첫 번째 대회라는 점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접근하고 측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21세기에 대두되는 화두들이 이번 서울대회에서 많이 논의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세기를 새로운 통계와 함께 열어 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당한 후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을 전세계 통계인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로, 우리의 통계 역량과 수준을 전세계 통계인들이 널리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통계 역사와 활동을 널리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 현대적 통계의 작성 역사가 짧고 통계 기관의 위상도 낮지만 우리 것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관련 통계 등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가 국제적으로 선두 그룹에 들어가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내국인 발표자가 많아 그들의 능력을 세계 통계인들 앞에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넷째로, 우리의 통계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많은 논문들이 발표, 토론되기 때문에 우리 통계의 발전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다섯째로, 지역 협력 등 많은 협력 관계가 논의, 형성될 것이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통계 협력을 위해 아시아통계포럼(ASF)이 구체화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국가들의 통계학자,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역내의 통

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체 구성이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 협력체가 구체화될 것이다.

여섯째로, 부수적으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이번 대회에 외국인이 약 1,300여 명이 참가한다. 물론 이들은 250불씩 참가비를 내고 참가한다. 이 참가비를 제외하고도 이들이 뿌리고 가는 외화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 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하루 평균 약 450불의 경비를 쓰고 간다고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약 400만불을 숙박비, 쇼핑 경비 등으로 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세계통계대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대회보다 풍성한 대회가 될 것이다. 이 대회를 통해 통계 발전과 통계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제고가 있었으면 한다.

아시아지역 통계협력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는 이미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는 한편 지역화 되어 가고 있다. 개방 경제 체제하에서 자본, 기술 등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고 국가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자국만의 기준이 아닌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은 지역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다. 형태와 정도는 달라도 각 지역별로 지역 협력체들이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통계 분야에 있어서도 지역 협력체와 같은 것이 있다.

유럽에는 유럽 통계국(Euro Stat)이 있고 미주 지역에는 미국 통계학회(ASA)와 같은 것이 있다. 유럽 통계국은 처음에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통계 부문으로 1953년에 출발하였다. 그 후

세계통계대회시 신문기고 준비문(2001. 8. 18)

1958년에 EC의 통계 조직으로 되었다가 1993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 유럽연합(EU)의 통계 작성 기관으로 확립되었다.

이 기구는 정부의 공식 통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룬다. 이 기구에서는 매년 20여 개의 작업단이 80여 회의 회의를 가지면서 회원국들의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국제적인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한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와 동구권의 체제 전환국가들에 대한 통계 기술도 지원하고 있다.

미국통계학회(ASA)는 미국 내 통계학자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주제들이 발표되고 토론된다. 이것은 매우 학술적인 모임이다. 이론적이든 실무적이든 세계 통계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러한 그룹들이다.

국제적으로 어떤 통계적 이슈가 떠올라 그에 대한 개념 정립과 기준 설정이 필요할 때 사실상 이들 선진국 그룹들의 의견에 좌우된다. 그러나 아직 아시아 지역에는 통계 협력체가 없다. 아시아 지역 내의 통계 협력체 설립이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에는 인구가 많고 지역도 광활하며 매우 다양한 국가들이 있다.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가도 있다.

각국의 통계 수준과 활동도 매우 다양하고 차이가 많다. 그러나 동아시아권 국가들은 동양권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국가 사이에는 공통성도 있고 상이성도 있기 때문에 공동 목표 추구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통계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상호 이해 대립이 적다. 상호 대립적이고 경쟁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이다. 아

시아 지역 내에서 상호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도 통계협력체가 필요하다. 국가 통계 작성 차원뿐만 아니라 학문적 이론적인 차원에서도 협력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세계통계대회(ISI)라는 것이 있다. 이 대회는 114년의 오랜 역사와 전세계 통계인들이 참석한다는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정부 및 국제기구 통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통계학자들까지도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통계 문제 전반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실무적이기도 하고 학술적이기도 한 대회이다.

이 유서 깊은 세계통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이번 제53차 서울 세계통계대회에는 전세계 110여 개 국가에서 약 2,300여명이 참가하고 발표 논문만 해도 190여 개 주제에 930여 편에 이른다.

이 서울 세계통계대회에서 아시아통계포럼(Asia Statistical Forum)이 논의된다. 아시아 통계포럼(ASF)은 동아시아 지역 내의 통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체이다.

중국, 일본, 한국을 위시한 동북아 국가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 국가도 포괄하는 협력체이다.

이 포럼은 지역 내의 통계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서 통계학자와 정부 통계 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모임이다. 나는 이러한 지역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의 설립을 제창, 추진하고 있다.

1999년 8월 대전에서 다수의 아시아권 국가들이 참가한 국제통계포럼이 열렸을 때 아시아통계포럼(ASF)을 발의하여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러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통계청에서는 통계학회와 더불어 이 포럼의 정식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서울 세계통계대회에서 아시아통계포럼이 정식 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시아 지역 내의 통계 발전을 위해서.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 책은 통계학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루고 있다. 통계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계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통계학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통계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예제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통계학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통계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예제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통계학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1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 ▶ 통계는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 운영의 초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통계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정작 통계청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통계청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통계청의 가장 주된 기능은 이름 그대로 통계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국가 기본 통계 45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5년 주기의 전국 단위 통계, 사회 통계, 광공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산업 부문별 연간 실적 통계 그리고 산업 동향, 물가, 고용, 경기 등의 월간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eadline News(1998. 8월호) 인터뷰

금년 7월 1일부터는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하여 과거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던 농어업센서스, 농어업기본통계조사, 농어가경제조사 등 농수산 부문 기본 통계 9종도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작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업무 수행 중에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행정 통계와 국가 기관이 담당해야 할 통계 중 노동부의 사업체 대상 일부 노동 통계, 농림부의 가축 및 과수 통계, 한국은행의 GNP 관련 통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기본 통계는 사실상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중앙 통계 기관으로서 각 통계 작성 기관이 준용해야 할 통계 작성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중복 통계작성 방지를 위한 통계 조정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세 감면 규정이나 공단 배치법 등에 널리 이용되는 표준 산업 분류는 사실 통계청에서 통계 기준 설정을 위해 작성한 것인데 일반 행정부처에서 더 많이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자체 생산한 통계 정보와 국내외의 타 통계 기관에서 생산한 각종 통계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통계 책자 등 간행물과 DB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통계청에서는 각 통계 작성 기관 종사자들과 통계 이용자들에 대한 통계 연수기능과 신규 통계 개발 및 통계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산업사회가 발전할수록 통계의 중요함과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통계 자료를 쉽게 구하지 못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통계청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작성된 통계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개발하는 일을 통계 행정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간행물 중심으로 통계 자료를 배포하던 시기에는 몰라도 지금은 자료를 쉽게 구하지 못해 활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계청에서는 조사 주기별로 각종 통계 자료를 간행물 형태로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 통계사무소 자료실은 물론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정기관, 도서관 등에 <통계청 자료 코너> 200개소를 무료로 운영중이며, 직접 자료 구입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국 유명서점에 <통계 간행물 판매센터>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통계 간행물 외에,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PC 통신을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최신 통계 보도자료와 간행물 형태로 발행되는 모든 통계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되는 자료 이외에 통계청에서 보관 중인 원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통계청에서는 자료 이용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 비밀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통계청 전

산 테이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 ▶ 통계 자료를 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지만 전산환경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정부부처가 통계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인구센서스 자료 처리를 위해 1967년에 우리나라의 컴퓨터 1호기를 도입한 바 있으며 DB가 거의 없었던 1970년대 후반부터 통계정보시스템(KOSIS)을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통계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통계청 DB나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계청 데이터베이스(KOSIS)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통계 DB로서 약 380만 계열의 국내외 통계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KOSIS는 통계청에서 자료가 발표되는 순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자료별로 통계가 생산된 시점부터 수록되어 있어 최장 40여 년의 통계 시계열 자료를 앉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OSIS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에서는 바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인터넷상에서 접속하거나 하이텔, 천리안 등 PC통신망을 통해서도 연결 가능합니다.

특히 통계청에서는 일반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데 여기에는 통계청 기능, 주요 통계 조사 현황, 통계

자료 이용 안내, 표준 산업 분류 등이 올라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보도자료를 낼 경우 보도자료의 내용을 기자들이 보도하는 즉시 인터넷에 올리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쉽게 최신 통계에 접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앞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통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 DB에서 각 통계 작성 기관의 DB를 바로 연결하여 통계자료를 종합 제공하는 <통계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1999년초부터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계청 DB에서 윈스톱으로 타 통계기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해외 각국의 통계 자료도 통계청에서 집계 관리하는지?

통계청은 정부 기관, 학계, 연구 기관, 민간 단체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국제 통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UN, ESCAP, IMF, ILO, OECD 등 16개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 해외 각국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각종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해외 자료들을 정리하여 한국통계월보, 계간 국제통계, 국제통계연감, OECD 국가의 주요 통계 지표, APEC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등 각종 간행물이나 CD-ROM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국제 통계를 보다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 통계 DB를 구축하여 KOSIS, PC 통신망 등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 현재 각종 통계는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마다 따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분야의 통계라 할지라도 기관에 따라 수치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 연시에 각종 민간 연구 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제 전망과 관련한 오해인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 체도를 채택하고 있어 여러 기관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통계 기관인 통계청에서는 조정 기관으로서 각종 통계의 중복작성 방지를 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식통계가 여러 정부 기관에서 발표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 등과 같이 일종의 추정치를 기관마다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계청은 이러한 수치는 공식 통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자료의 공표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망 자료들은 이용자들이 활용할 때 전망의 전제나 모델의 내용 등을 소상히 충분히 파악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 정부가 통계를 조작, 발표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IMF 자금 지원을 받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외환 보유고를 부풀려 발표해 온 때문이라고 봅니다.

금융 통계는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통계 현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만 당

시 외환 사정을 어렵게 한 것은 외환 보유고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 외국에서 해당 기업의 신용으로 빌린 단기 차입금의 규모를 정책 당국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외환 보유고의 급격한 감소를 예측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빌릴 경우 거주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 통계엔 잡히지 않지만 외환 위기시 대부분 만기 연장이 안 되어 국내 모기업에서 갚아 주어야 했으므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간혹 통계 작성 기관에서 통계 조사 결과를 왜곡하지 않는가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정부 통계는 표본 조사로 작성되고 있으며 통계 조사 과정별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통계 조사는 지방 통계 사무소에서 조사원들에 이루어지고, 조사결과는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입력된 후 전산담당부서에서 자료 처리되고, 최종결과 분석은 조사 담당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통계 작성 기관에서 통계 조사 결과를 조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단계의 수 많은 관련자가 동의해야 하는 일이므로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은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

통계청에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 기획, 현장 조사, 자료 처리 등 각 단계별로 고심하며 통계 작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조사표 및 집계표 설계, 조사 표본 선정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조사 방향이 확정되면, 실제 조사와 같은 조건에서 시험 조사를 여러 번 실시하여 실제 조사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12개의 지방 통계사무소 및 35개의 지방 통계출장소 사무소의 전담 조사원들이 대부분 응답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조사 누락이나 잘못 기입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전화나 재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 수정하고 확인이 끝난 조사표는 현지에서 본부로 전송 입력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계청 조사원들은 조사업무만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급 직원입니다. 게다가 통계청에서는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조사 실태를 점검하여 조사 요령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 처리 단계에서도 조사 항목간의 함수 관계에 대한 전산 체크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세 된 여성이 자녀를 5명 둔 것으로 기입되어 있다면 연령이 틀렸거나 자녀 수가 틀린 것입니다.

이러한 함수상의 예리를 자료 처리 단계에서 한번 더 걸러내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종 자료 처리 결과가 과거의 시계열 자료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거나 설명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면 지역별 조사 결과 비교나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오류 가능성을 다시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 공무원 사회에서 흔히 통계청에 전보되면 밀려 났다는 속설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대부분의 공무원은 통계직으로서 처음부터 통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자치부의 공채로 임용되어 통계청에 배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들의 시각도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업무는 연구소 업무와 비슷한 성격으로 소위 어깨에 힘줄 일은 별로 없지만 한편으로 민원 업무가 거의 없고 이권 문제에 관련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직원들이 일해 보니 배치되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는 많은 다른 점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에서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박사급 직원을 사무관으로 채용해 오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행정고시에도 통계부문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사회의 각 분야와 협조하고 스스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서 공직의 보람을 찾을 때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통계청이 결코 화려할 수는 없으나 다른 부처에서 넘볼 수 없는 독특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명예롭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가 더욱 전문화되고 통계청의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와 맞물려 훨씬 강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통계청 직원의 자부심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청장님이 평소 갖고 계신 통계 업무에 대한 소신과 철학은?

우선 통계는 곧 경국대본(經國大本)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하여야만 올바른 정책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하에 통계 행정이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통계는 무엇보다 정확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통계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정확하지 못한 통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계는 항상 수요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통계는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계 이용자들이 어떤 통계를 필요로 하는지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통계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와 동일한 맥락으로서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계는 그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넷째, 이같이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통계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려면 효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임 중에 이 네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통계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편 갈수록 통계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통계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현장에서의 통계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 응답자들의 정확한 응답에서 출발합니다. 응답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2

통계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역할과 기능은?

통계청은 국가 기본 통계를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기관이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103개 기관에서 339종에 달하는 공식 통계를 생산·제공하고 있다. 이 중 통계청이 국가의 기본이 되는 49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이렇게 생산한 통계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간행물만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나 CD-ROM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계를 생산하는 데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기준

이나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통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재교육하거나 통계 이용자에게 통계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통계 연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 2001년 서울 국제통계대회를 유치했는데……

‘통계인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통계대회(ISI)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 세계 통계인들의 대회이다. 이번 헬싱키 대회에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2001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다음 대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21세기에 맞이하는 첫 대회인 만큼 지금까지의 통계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통계 수준을 알리고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세계의 통계인이 모이는 이 대회는 각 나라의 정부기관, 저명한 인사, 산업계 인사까지 모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1500명~20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 마인드가 적는데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어떤가?

서구 선진국들은 통계 기관의 역사가 긴 만큼 위상도 높다. 서구인들은 일단 합리적 사고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러한 합리적 사고의 밑바탕에는 바로 통계가 자리하고 있다.

통계 마인드가 없을 때에는 감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추

진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통계 수준은 아직 역사가 짧은 만큼 위상도 낮은 상태다. 앞으로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정밀성이 중요하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국민들 모두가 좀더 정확해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문화나 마인드는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제품의 불량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통계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 어린이 통계경진대회 등을 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개인이나 기업이나 데이터에 기반을 둔 합리적 결정이 필요한 때다.

▶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격차를 보이는데……

물가 통계를 보면 현재 통계청은 509개 품목을 조사한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자신의 생활과 연관된 10개 품목 정도로 물가를 판단하기 쉽다. 이러한 차이에서 격차가 생긴다고 본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139개 항목으로 품목을 축소·선정, 이를 바탕으로 생활물가지수를 새로 생산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 경우가 바로 보조지표라고 하는데 신선식품지수, 구입빈도별지수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만들어 좀더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통계청이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

먼저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계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과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물가 통계나 실업 통계에서 보조 조사를 최대한 많이 할 생각이다. 비표본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비표본 오차를 축소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이용자가 필요한 통계를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일반인들의 생활 시간 활용 조사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를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가 만들어지면 문화나 레저 등 다양한 정책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 번째는 이용자들이 통계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nso.go.kr)를 개설하고 있다. 9월부터는 통계 바다(Stat-Korea) 프로그램을 구축해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분산형으로 103개 기관이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필요한 통계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339종의 모든 통계를 이곳에 모아 쉽게 통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학계와 실무적인 통계청이 상호 보완하는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 기구들과 협력해서 우리나라 통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통계가 엉터리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때 사실 곤혹스럽다. 정확한 통계는 응답자들이 정확한 응답을 했을 때 가능하다. 응답을 하지 않고 통계가 엉터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응답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오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구주택총조사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새 천년을 맞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 주택조사와 함께 정보통신기기의 활용 정도 등이 조사된다. 총조사를 앞두고 윤영대(尹英大) 통계청장을 만나 조사의 의미와 방법, 유의 사항을 알아본다.

또 최근 내수 침체와 기업 자금난 등으로 체감 경기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활동 동향 등 경기 통계를 만들어 내는 주무관청 기관장으로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들어본다.

▶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새 천년 들어 처음하는 것인 만큼 예전과는 다른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인구주택총조사가 무엇이

서울경제 「월요초대석」(2000. 10. 29) 인터뷰

고 왜 조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주택총조사는 나라 살림의 근간이 되는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 분포, 사회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는 국가 기본 통계 조사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일반 통계 조사하고는 다릅니다. 조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인구, 주택 구조와 변동 상황을 파악해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새 천년을 맞아 새로운 정책 수요에 부응키 위해 조사 항목을 다소 조정했습니다. 추가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지요. 정보화 사회, 고령화사회,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또 조사 방법을 선진화하고 자료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일부 내용은 연내에 발표될 것입니다.

▶ 인구센서스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경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기가 급락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기를 양극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열이나 침체냐로 구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 경기 동향을 보면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지 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조 조정, 반도체 가격 동향 등 국내외적으로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8월에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9월에는 이보다 다소 떨어질 것입니다.

▶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로 판단하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선행지수는 점차 떨어지면서 주춤거리고 있고, 동행지수는 10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두 지표만을 가지고 향후 경기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경기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아직 하락기에 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 수출과 내수, 서울과 지방 등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격차가 계속 커지고 체감 경기도 급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통계는 평균적인 것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 섬유 등은 좋지 않지만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은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려면 이들을 모두 합해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통계가 체감 경기와 차이가 나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하지만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수출과 내수, 업종별, 지역별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 4/4분기가 경기 정점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경기 선행지수를 중심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면지,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4/4분기에 다소 올라가겠지만 연율로 정부 목표인 2.5% 수준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다시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주로 30~40대 가정주부, 대학생 등 조사원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 면접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또 아파트 지역 등은 질문지를 드리고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도 병행합니다.

▶ 모르는 사람이 집을 방문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국민들에게 조사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는 2000년대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조사가 아니라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라 각종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 등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물론 불편한 점은 이해하지만 이 같은 점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조사원들에게도 이 점을 집중 교육시키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조사원은 어떻게 식별이 가능한가요.

조사원은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신분증에는 조사원임을 입증하는 사진, 이름, 해당 자치단체장의 이름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조사원 심볼마크를 가슴에 달고 보라색의 조사 요원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조사에서는 나이, 교육 정도, 혼인 상태, 출생지 등을, 표본 조사에서는 인터넷 활용도 등 정보화 정도, 취사 방법, 생계 수단 등이 조사됩니다.

▶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도 같습니다. 미국은 면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일에 통행금지를 실시하기도 하고 조사일을 휴일로 정하기로 합니다. 터키는 올 10월 22일 조사를 실시하면서 14시간 동안 통행금지령을 발동했고 페루도 1993년 외출금지령을 발동하며 조사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조사일을 휴일로 지정했습니다.

▶ 질문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질의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혹시 조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에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조사가 되면 결과가 바로 컴퓨터 코드로 입력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조사 대상자들이 혼인이나 교육 문제 등은 외부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공개를 세금과 연계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소득 항목은 없습니다.

▶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사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원의 방문을 꺼려하는 가정도 많고 “그런 것을 왜 묻느냐.”며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앞으로 국가 정책의 기초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다소 불편하신 줄은 알지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통계청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무료 안내전화(080-527-20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지 작성 방법 등 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해 주십시오.

4

인구조사로 국가의 지식 역량 파악

- ▶ 먼저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 기초 조사이다. 인구, 가구, 주택을 파악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통계 중의 통계이고 국가 기본 통계 조사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조사는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것도 각 나라에서 최대 규모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 10일간 전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 ▶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해 달라.

내일신문(2000. 10. 23) 인터뷰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을 주기로 조사한다. '5'자로 끝나는 해와 '0'자로 끝나는 해의 조사 내용이 조금 다르다. '5'자로 끝나는 해는 일반적인 조사를 한다. 질문 내용도 기본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0'자로 끝나는 해는 심층적인 조사를 한다.

질문 내용이 기본적인 것 외에도 다른 심층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올해 하는 조사는 특히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시대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책 수요가 일어나는 분야,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한다.

첫 번째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다. 지식 국가로 이행을 해야 국가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지식 관련 항목을 설정해서 우리나라의 지식 역량과 지식 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교육 수준, 교육 기간, 대학에서의 전공, 실제로 전공한 분야와 현재 종사하는 직업과의 상관 관계 등이다.

우리가 인적 자원을 충실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관관계의 분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분포와 구조를 파악해야 국가적으로 인력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가 정보화 진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보유하고 있는지, 컴퓨터는 사용할 줄 아는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인터넷은 사용할 줄 아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이다. 이러한 것을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알아 보게 된다.

지금까지 민간 쪽에서 행정 자료 등을 이용해 소규모로 조사

해 발표한 적은 있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조사해 본 적은 없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을 파악함으로써 소위 한국사회의 정보화 진전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정보화 격차가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볼 생각이다.

세 번째는 고령화사회에 관련한 조사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라고 부른다.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또 21%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도 금년을 기점으로 7%가 넘어서고 있다.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고령자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지,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거동 불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자료가 없다.

네 번째는 복지사회 관련 항목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사용하는 방수, 주거 평수, 자동차, 주차 시설 등 복지 관련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예전과 조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자기 기입식 방식을 처음 도입한다. 자기 기입식 방식이란 자신이 직접 설문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자신이 기입하면서 의문이 나는 점은 080-527-2000으로 전화하면 무료로 안내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는 디지털 지도를 이용하게 된다. 예전에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되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60가구를 1단위로 하게 되는데 이를 쪼개는 작업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60가구의 경계가 정확히 그어진다. 심지어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나타난다.

- ▶ 아직도 국민들은 조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계획인가.

앞서 언급한 자기 기입식 방법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조사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장과 표식을 사용할 것이다.

-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주민등록 자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돈도 많이 들이면서 굳이 조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은 너무 자료가 빈약하다. 이것으로는 국가 정책을 만들 수 없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파악하여야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도 정확할 수 있지 않겠는가.

- ▶ 이번에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국가 기본 통계 조사로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다. 경제나 교육, 복지, 지역 개발 등 모든 분야가 이 자료가 없으면 운용이

어려워진다. 지식 정보 강국은 지식의 정도나 정보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고령화 정도를 파악하면 노인 정책과 연결되어진다. 지역 개발의 기초 자료로도 쓰여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시군구와 같은 자치단체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학술 연구 자료의 기초로 쓰인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기반이 된다. 이와 함께 200여 개 국가들이 인구주택총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간의 비교 자료로도 쓰이게 된다. 민간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내년에 열릴 예정인 통계올림픽을 소개해 달라.

내년 8월에 우리나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세계 통계 대회가 열린다. 세계에 있는 학자, 정부 관계자, 통계 이용자들이 모여서 통계 이슈와 관련한 토론을 벌인다. 1회 대회가 1887년에 로마에서 처음 열렸다. 올림픽보다도 역사가 깊다. 2년 간격으로 대륙을 바꾸면서 열리고 있다.

▶ 통계올림픽 준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말해 달라.

전 세계에서 통계인이 2천여 명 모일 예정이다.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한 세계 각국의 통계 이론과 방법, 기법을 배울 수 있다. 발표 논문 수도 8백여 편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만큼 큰 학술대회도 흔지 않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관련해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조사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인데 낯선 사람이라며 문을 안 열어준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을 기피하는 경향도 보인다. 또한 단독, 노인, 부재 가구가 늘어나면서 면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조사는 국가, 지역 정책의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 없는 조사가 아니다.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조사다.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정확한 조사는 부정확한 통계로 이어지고 이것은 부정확한 국가 정책의 배경이 된다.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5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사령탑,
윤영대 통계청장

올 인구주택총조사는 21세기 디지털 통계 시대를 맞아 국가 정책 수립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목 강화에 역점을 들 방침입니다. 최근 20여만 명의 조사원과 공무원을 비롯해 모두 8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11월,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2000 인구주택총조사'의 총사령탑을 맡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예년과 달리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비롯해 정보화 관련 항목,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에 관련한 항목 등을 추가해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디지털화하겠습니다.

우리 통계청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중요성이 간과된 교육 정도, 전공 학과 등을 연계한 국민 지식 역량도 조사, 국민지식지도(KM)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경제 「People Life」(2000. 4. 14)

이와 함께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컴퓨터 보유 현황이나 인터넷 이용 실태와 함께 이를 사용하는 이들을 학력·지역 및 계층별 등으로 세분화, 정보 격차에 대한 근원점을 원천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는 21세기 경제·사회의 초석이 되는 정책 기초 지침으로서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장 조사원, 중간 감시자, 시·도 공무원, 본청을 잇는 다단계 점검을 통해 이번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대폭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조사 상황실을 설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차질 없는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벌마크와 마스크트를 확정하여 발표한 데 이어 포스터를 공모하는 등 앞으로 조사 시점까지 대국민 관심도를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사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21세기 국가 정책의 굳건한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이번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올림픽’이라고 일컫는 제53차 서울 세계통계대회(ISI) 준비에 여념이 없는 통계청 운영대 청장. 세계통계대회는 2년에 한번씩 열리는 통계올림픽으로 올림픽보다도 먼저 시작됐다. 우리나라로서는 올해 8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하게 된다.

통계청은 이번 통계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외곽으로 분류됐던 국내 통계의 위상을 높이는 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미 국내 통계 수준은 세계통계를 선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윤 청장의 설명이다.

지난 1999년 유럽과 북미 중심의 통계 양대 산맥에 맞서 우리나라 주도로 아시아통계포럼(ASF)이 창설되었고, 이를 통해 아시아에 맞는 새로운 통계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내일신문(2001. 2. 26)

유럽이나 미국 표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그동안의 자세를 버리고 아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정서, 전통과 지리에 기반한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

디지털경제에 관한 통계 역시 우리 통계가 자랑하는 분야. 아시아통계포럼 회원국 중에서 그나마 앞서 있다는 호주도 이제 디자인하는 수준이고 일본은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미 각 계층별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정보화 실태 조사,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산업과 콘텐츠 관련 통계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지식 정보화사회를 분석하는 지표를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영의 근본이 통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읽어 낸다면 새로운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 청장이 펼치는 통계 근본론이다.

ISI서울대회를 통계 선진국의 진입 기회로

- ▶ 안녕하세요? 요즘 통계청이 무척 바쁘다고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규모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셨고 또 금년에는 세계통계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매우 바쁘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나라경제 독자들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윤 청장님의 통계에 대한 기본 철학부터 듣고 싶습니다.

저는 ‘통계즉경국지대본(統計卽經國之大本)’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야말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요. 국가정책의 기초가 바로 통계이니까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영, 기업 경영, 개인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것이 통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이 글귀를 걸어놓고 항상 마음과 자

세를 가다듬으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 윤 청장께서는 통계 정책 방향을 설명할 때 4C로 집약하여 자주 설명하시는데 이 기회에 4C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는 통계 정책의 기본 목표를 ‘고객 만족을 위한 통계 행정’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4C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① 첫째로 고객 중심의 통계(Customer-Oriented)를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경제, 사회가 변함에 따라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사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통계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 ② 둘째로 신뢰성 높은 통계(Credibility)를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통계의 생명은 신뢰성에 있으므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통계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선진 통계 기법도 적극 도입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③ 셋째로 통계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Convenience)하자는 것입니다. 통계는 정보(Information)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 작성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점에 제공해야 함은 물론, 만든 통계 결과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로 국제기구나 다른 통계 작성 기관과의 협력을 증진 (Cooperation)하여 우리나라 통계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정책 방향을 하나로 묶으면 고객 만족(Customer-Oriented), 신뢰성 제고(Credibility), 편리성 제고(Convenience), 대외 협력(Cooperation)으로서 4C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추진해 온 통계 정책의 방향입니다.

▶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우리 통계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계청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통계 행정' 즉 4C에 전념한 결과로군요. 그러면 윤 청장께서는 그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통계 행정을 추진하셨는지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책적 수요가 높은 통계의 개선·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98년 이래 생활물가지수, 소비자전망지수, 설비투자추계지표, 서비스업동향지표, 전자상거래통계, 벤처기업통계, 생활시간조사 등 많은 통계를 신규 개발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정보화격차지수 (Digital Divide), 지식기반산업통계 등 다수의 통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종 표준 분류의 정비, 조사 방법의 개선, 각종 보조지표의 개발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선 각종 기준, 표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 분류, 직업 분류 등 각종 표준 분류를 경제·사회 환경에 맞게 개정하였고,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지식기반 산업분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경제, 사회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단일 지표만으로는 사회현상의 적절한 설명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보조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 통계에 있어 주지표인 ILO 기준 이외에 OECD 기준 실업률 통계, 구직 단념자 통계, 장기 실업자 통계, 불완전 취업자 통계 등 실업 통계 보조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물가 통계에 있어서도 소비자물가지수 이외에 생활물가지수, 도시별 물가지수 등 물가 통계 보조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조사 방법면에 있어서도 조사 현장에서 인터넷이나 노트북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정도(精度)와 인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구체적인 사항들입니다.

셋째로 통계 이용의 편리성 제고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통계청은 약 1,000만 계열의 국내외 통계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통계 DB인 KOSI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KOSIS에서 이용자들이 통계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폭 개편 중에 있습니다.

또 통계 이용자들이 통계 소재 정보를 몰라 애를 먹는 일이 많은데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부터 통계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계바다(Stat-Korea)라는 것으로서 국내 약 140여 개 통계 작성 기관에서 만드는 모든 통계를 윈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통계 자료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e-book, 통계 CD-ROM, 각종 자료를 웹상에서 구입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통계 민원도 인터넷 민원으로 대부분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 자료를 통계청홈페이지(www.nso.go.kr)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통계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선 금년에 통계인들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통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또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디지털경제통계를 개발하여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통계, 지식기반산업통계, 정보화실태통계(Digital Divide) 등은 선진국에서도 아직 통계를 만들지 못하고 연구, 검토하는 단계이지만 한국 통계청은 이 분야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최선두 그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ESCAP, UN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호주, 유럽 등에서도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 시간 활용 조사도 국제적으로 선두 그룹에 들어가고 있어 ESCAP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경험을 많이 참고하도록 회원국들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체로서 유럽에는 Euro-Stat가 있고, 미주 지역에는 ASA 같은 것이 있으나 아시아권에서는 이러한 협력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관심 영역과 통계 기준, 표준 등이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아시아통계포럼(Asia Statistical Forum)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의 대양주 국가들이 지역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ASF는 1999년 대전에서 열린 국제통계포럼에서 한국 통계청의 주창 하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유엔통계위원회의 정식 회원국으로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4개국만이 진출하고 있는데 2003년에 한국이 진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국 통계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사업들입니다.

▶ 통계청에서는 통계 행정의 혁신을 위해 중장기 계획인 'NEW STAT 21'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 'NEW STAT 21' 계획의 주요 골자는 무엇입니까?

'NEW STAT 21'은 통계 행정의 혁신을 위한 중기 계획입니다. 21세기에는 지식 기반 정보화사회의 진전 등 국내외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통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NEW STAT 21'이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21세기의 새로운 통계와 새로운 통계청'을 만들기 위한 중기 계획이지요.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통계청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5대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실천하는 것이지요.

- ① 신뢰도 높은 통계(예 : 통계 품질 평가, 연쇄물가지수)
 - ② 새로운 통계의 개발(예 : 전자상거래, 종합환경지수)
 - ③ 사용하기 쉬운 통계(예 : Stat-Korea 서비스 확대)
 - ④ 국제 통계 협력의 강화(예 : ISI대회 개최, 국제통계포럼)
 - ⑤ 조사 환경 개선(예 : Electronic Survey, 연동 표본 개발)
- 입니다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3개년 동안 매년 21개 과제씩 총 63개의 과제를 연동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한국 통계청도 선진 통계국의 대열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흔히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윤 청장께서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통계를 집중 개발하여 국제적으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경제, 디지털사회가 보편화되면서 경제사회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등장하고 있고, 상거래 수단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보화 수준에 따른 소득, 생활 형태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 수요가 예견되어 이에 대한 신규 통계를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첫째 전자상거래 통계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거래 형태인 E-business가 급증하고 있지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기업과 기업간 거래, 기업과 정부간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는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B2B(기업간 거래) 통계를 이미 개발, 공표하고 있고 내년에는 B2G(기업과 정부간 거래)통계도 개발 공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정보화 격차 지수 개발입니다. 성별, 연령별, 계층별, 학력별, 지역별로 정보화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또 정보화의 격차에 따라 취업, 소득, 생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파악할 정책적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화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금년에 이미 정보화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셋째로 정보산업 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경제 성장의 한 동인으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이의 변화를 파악할 정책적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산업 통계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 통계를 포괄한 정보산업 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넷째로 지식 경제 관련 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R&D 투자, 인력 투자 등 지식 투입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과 지식기반산업의 변화·효과 측정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디지털통계 개발 경험은 국제사회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일본 동아시아 통계기관장

회의, 작년 10월의 ESCAP회의에서 우리의 경험을 발표했을 때 일본 등 국제사회가 한국의 선도적 통계 개발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 5월에 호주에서 열린 ICT 전문가회의에서도 한국의 ICT 통계 개발 사례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최근 현장에서의 통계 조사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듣고 있는 데요.

종래의 통계 조사는 통계 조사원이 집과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손과 발로 뛰는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통계 조사에 접목되면서 이른바 전자 통계 조사(Electronic survey) 방식을 2~3년 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대부분의 조사를 전자 조사 방식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자 통계 조사 사례를 들어보면 ① 조사 프로그램이 내장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1999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조사로서 사업체에 조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업체에서 통계청으로 조사 자료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③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로서 응답 사업체나 응답 가구가 조사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금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방식의 변화는 조사 업무 효율화와 응답자 편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요즈음은 많이 나아졌습시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통계 종류가 부족하

다든지, 체감과 지표가 괴리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최근 경제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거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통계 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새로운 통계를 계속 개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부임초에 통계청에서 35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55종의 통계를 작성하는 등 종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공식 통계로 작성되는 통계는 400여 종이나 되므로 통계 가지 수는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지표와 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체감을 반영하는 통계를 보조지표로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가 통계에 있어서 체감과 지표와의 거리감 해소를 위해 생활물가지수, 구입 빈도별 물가지수, 지역별 물가지수 등을 개발, 1998년부터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실업 통계에 있어서도 ILO 지표 이외에 OECD 기준 실업률, 불완전 취업자, 구직 단념자 통계, 구직 기간별 실업 통계, 임시·일용직 통계 등 보조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또 산업생산지수, 서비스업동향지수 등 산업 동향지표가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00년 기준으로 경제 관련 지표의 개편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금은 체감과 지표와의 거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다만 통계는 평균 개념이고 체감은 개인적인 것이라

서 본질적으로 완전 일치할 수 없는 한계는 있다고 봐야겠지요.

언론에서 주로 정부 통계의 개선 과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실상 일반 행정부처에서 작성하는 ‘행정 통계’에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통계의 개선은 해당 부처에서 통계 인력과 통계 조직에 대한 투자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금년 8월에 전세계 통계인들이 모이는 세계통계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대회준비위원장인 청장께서 이번 서울 세계통계대회의 성격과 개최 의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금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제53차 세계통계대회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의 통계학자, 정부 통계 기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 이용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계 발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대규모 학술대회이지요. 저희는 이것을 일종의 통계올림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역사가 매우 깁니다. 올해로서 114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요. 1차 대회가 1887년 로마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2년 주기로 대륙을 달리해 가면서 개최되는데 이번에 서울대회는 53차 대회입니다. 이번 서울대회에는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약 2,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대회입니다.

이번 서울대회는 21세기에 들어서 처음 열리는 세계통계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지요. 새 천년이 시작되고 새로

운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모든 부문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계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변혁의 시점에서 21세기의 통계 이슈들이 서울에서 논의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대단한 대회이군요. 이번 대회의 주요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대회에는 인터넷의 발전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각종 통계의 발전 추세가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입니다. 인구·사회·경제·환경분야 등 통계 전 분야를 망라하여 약 9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될 것입니다.

첫째 특징은 새로운 이론이나 이슈들이 집중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와 통계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입니다.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관련한 디지털경제 측정, 전자상거래, 인터넷 조사, 통계 품질 평가 등에 대한 특별회의가 진행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대한 특강, 인터넷데이의 지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두 분이 특강을 하시게 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데 시카고대학의 헤커맨(James Heckman) 교수께서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에 있어서의 인과 관계 문제를 특강하시고 버클리 대학의 맥파든(Daniel Mcfadden) 교수께서 통계적 모의 실험에 대한 특강을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 협력 방안들이 많이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각국 통계 기관장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끼리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나 각국의 통계 발전 방향, 선진 통계 기법 교류, 상호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 ▶ 이번 세계통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 통계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첫째로 이번 대회에서는 약 900여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므로 통계 관련 최신 이론들과 선진 통계기법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국내 통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통계 위상이 국제적으로 제고될 것입니다. 통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분야도 발표되고 토론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통계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대외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 문화에 대해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넷째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250불씩 참가비를 내고 참가합니다. 외국인들

이 약 1,300여 명 참가하는데 이들이 숙박비, 식비, 관광 경비, 쇼핑 경비를 쓰게 되지요.

관광공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하루 평균 약 400불을 쓴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대회 기간 동안 약 400만불의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통계청에서는 이번 세계통계대회를 계기로 일반인들의 통계 인식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나라가 통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통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 들여 만든 통계 정보가 널리 활용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통계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국민들이 통계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150여 개의 주요 대학·국공립 도서관, 통계청 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통계 간행물 판매 센터(20여 개)와 유명 서점에서 통계 서적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통계청 홈페이지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안방에서도 통계 자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 서적 이외에 전자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계 정보 DB(KOSIS)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다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계 검색 프로그램과 전산 서버를 개선하였고 통계 DB에 수록된 통계 자료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지요.

세번째로 통계 제공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원시 자료 및 e-book 제공,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통계 정보 제공, 발간물 이외에 CD-ROM 통계 자료 제공이 증가합니다.

네번째로 통계 정보의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통계를 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통계 바다 (Stat-Korea)'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통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통계 생산 기관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통계 응답자나 이용자의 통계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통계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사용 편리성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통계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것은 응답자의 진실된 응답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사 기법이 훌륭해도,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했어도 기본적으로 응답자가 진실된 응답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통계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기업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조사 환경은 날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기업 비밀 보호를 철저히 지키고 있고, 또 이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응답자 여러분께서는 깊이 이해하시고 통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이전을 계기로 지역 통계 활성화에 노력

- ▶ 정부의 대전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통계청이 제일 먼저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전 이전 소감은 ?

정부 수립 이후 사실상 모든 국가 운영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외의 비대화, 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가 유발되었습니다. 이제 대전 청사 시대를 개막하게 됨에 따라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간 균형 발전이 가능하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에 있던 청 단위 기관이 국토의 중심부인 대전에 위치하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한결 쉬워지리라 봅니다. 또 대전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보다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매일(1998. 7. 25) 인터뷰

통계청도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통계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함으로써 통계 업무에 대한 이해와 성원도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 ▶ 통계청이 대전으로 옮겨오면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 지역 주민들이 통계 정보원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계청이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중부권 지역 주민께서는 통계 자료 입수·활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계청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부문의 국가 기본 통계 45종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는 발간물, CD-ROM, 인터넷 통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계청에서는 대전 이전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중부권 공공기관이나 대학에 통계 자료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통계 DB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지방화 시대가 진전되면서 지역 발전 계획 수립시 각종 지역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 지역 통계 활성화를 위한 통계청의 계획이나 지원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의 정책이 주로 전국 단위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세분화된 지역 통계 작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만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를 계기로 지역 통계의 중요성과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지역 통계 수요증대에 부응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통계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통계청에서는 지역 통계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소득 추계, 지역 물가, 지역 산업 생산지수 등을 발표해 왔습니다.

지난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면서부터는 지역별 실업 동향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는 계속 지역 통계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지역별 건설발주통계, 지역 경기지수, 지역 인구추계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작성 능력 배양을 위한 여러 가지의 통계 작성 기술 지원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지자체의 통계 작성 기반 확충을 위하여 주민등록인구 통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각종 지역 통계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현지 조사 요령 및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으며,

둘째, 지역 통계 작성 인력의 통계 작성 능력 배양을 위하여 통계 연수원에 '시·도공무원 교육 과정'을 개설, 시·도 통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계 작성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도에서 기본 통계 작성이나 신규 통계 작성 승인시 각종 통계 작성 실무 요령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고 있으며,

넷째, 시·도 통계 데이터베이스(Data Base)와 통계청 DB의 연결을 통한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에 통계 DB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 통계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입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요즘 통계청에서 생산된 자료는 어떻게 배포되고 있습니까?

통계청에서는 각종 통계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개발하는 일을 통계 행정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통계 자료를 월보, 연보, 등의 간행물 형태로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 통계사무소 자료실은 물론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정기관, 도서관 등에 「통계청 자료 코너」 200개소를 무료로 운영 중이며, 직접 자료 구입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전국 유명 서점에 「통계간행물 판매 센터」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국통계연감, 1995인구주택총조사결과, 1996산업생산연보 등 각종 통계 자료를 CD-ROM에 수록하여 서점에 비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를 개설하여 주요 통계 작성 현황, 통계 자료 이용 안내는 물론 통계청 데이터베이스(KOSIS)에 수록된 방대한 통계 정보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망을 통해서도 KOSIS를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과 차이가 많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의 속성상 종합 결과인 통계치와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통계의 경우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간에 괴리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는 원칙적으로 전국의 모든 계층이 소비하는 물품 509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평균한 개념인데 반해 체감물가는 본인이 지출한 품목의 물가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해 생활물가지수를 새로이 개발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전국의 509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에 비하여 '생활물가지수'는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본 생필품을 위주로 154개 품목을 선정하여 별도로 작성·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본 분류 지수 이외에 신선식품지수, 구입빈도별지수 등 다양한 보조지표도 작성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감물가와 일반 소비자물가지수와의 괴리를 크게 줄였습니다.

또 실업 통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ILO 기준에 따라 1주간 구직 활동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업자를 파악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OECD 권고 방식으로 4주간 구직 활동한 사람을 대상으

로 실업자를 집계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자발적 전직 실업자의 실업 사유 파악 등 다양한 보조 지표도 작성·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계청에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통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평소 통계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 통계는 곧 경국대본(經國大本)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필요한 기초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하여야만 올바른 정책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하에 다음의 네 가지 원칙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통계 행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첫째, 통계의 정확도를 보다 더 높여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통계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정확하지 못한 통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통계는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계 이용자들이 어떤 통계를 필요로 하는지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통계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수요자 중심의 통계와 같은 맥

락으로서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계는 그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넷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통계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려면 효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임 중에 이 네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통계업무를 추진할 생각합니다.

- ▶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려면 현장 조사시 국민의 정직한 응답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최근 응답 기피 등 조사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께 당부하실 말씀은?

최근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진척에 따라 통계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조사 대상 가구 및 기업으로부터 응답 기피 현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실업 사태·기업 도산 등으로 응답자의 응답 기피 등 조사 환경은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응답자들의 정확한 응답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조사원이 각 가정이나 업체에 방문한 경우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통계가 올바른 정책 수립에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지식국가에 걸맞은 통계시스템 구축

2001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국제통계대회(ISI)는 우리나라 통계를 널리 알리고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계인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서울 국제통계대회는 새 천년의 벽두에서 굵직한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치르게 돼 보람을 느낍니다. 국제통계대회는 21세기 새로운 통계 기법, 통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외국인만 1500명 정도가 내한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9월 1일 제5회 통계의 날을 맞아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통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개인이나 조직이 가진 지식을 측정하고 관

리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도입해 국가지식지도(Knowledge Map) 작성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통계지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조지표를 개발해 단일지표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달에는 107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한 399가지 통계를 한 곳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접속하면 원하는 통계 자료를 찾기 위해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통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 통계경진대회'를 매년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통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생활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이 대회를 한층 활성화하기 위한 구상을 하겠습니다.

오차 축소 등 신뢰성 향상에 최선 다할 것

표본 및 비표본 오차의 축소와 함께 각종 보조지표 개발 등 통계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5번째로 통계의 날을 맞아 향후 통계 행정의 중점 추진 방향을 위해 종전의 실업률 통계에다 OECD 기준을 새로 추가하고, 물가 통계도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 대상처를 대폭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뒤떨어져 활용도가 낮은 통계는 그 기능 자체가 이미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기업단위통계, 서비스업동향지표, 국민생활시간활용조사 등 다양한 신규 통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정보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지금까지 간행물을 포

내외경제(1999. 9. 1)

함해 CD-ROM, PC통신, 웹사이트 전산 정보망을 통한 통계 정보 서비스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달 중 이를 한층 보완, 국내에서 작성하는 모든 통계를 윈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통계 바다(Stat-Korea)'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계 업무 개선 및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통계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통계 행정의 선진화와 통계 수준의 향상을 위해 여러 국제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001년 서울에서 열리는 통계올림픽인 ISI대회가 통계 행정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비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기피 현상이 IMF 체제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이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정책 수립에 밑거름이 된다는 대승적 생각으로 통계 조사에 적극 응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의 날은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호구조사 규칙'을 발표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1995년 9월 1일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통계 수준 향상 없인 亞·太 경제 발전 없다

정보기술(IT)산업에서 정말 한국은 일본을 앞서가고 있는가. IT는 과연 아시아 경제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가. 정부의 산업 정책은 IT 산업의 육성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경제는 실물경제의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IT산업 및 사이버경제에 대해 떠오르는 갖가지 의문들이다. 아직까지 이 같은 의문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나 민간 연구소들이 저마다 정한 기준과 잣대에 의해 임의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통계청이 아시아·태평양

중앙이코노미스트 『해외동향』(2000. 9. 12) 남윤호 기자 씀.

지역 국가들에 통계 정보의 교류와 공유 그리고 기법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기구 제안을 하고 나섰다.

윤영대 통계청장은 8월 23~24일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계 기관장회의에서 이 지역 국가들의 정부, 민간 연구소, 학계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통계포럼(ASF)을 설치할 것을 공식 제의했다. 원만히 진행된다면 아·태 지역 국가간의 통계 관련 민·학·관의 국제 협력체가 한국의 주도로 발족된다는 것이다.

ASF는 아·태지역에서 IT산업과 사이버경제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져 종전의 통계 체계로는 경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각국이 협력해 경제 정책에 필요한 각종 통계의 질을 높이고 민·관·학간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이다.

이를 통해 특히 IT산업 및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의 움직임을 공식 통계로 정확히 포착해 내기 위한 국제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ASF가 정착되면 아·태 지역 국가의 경제 통계 수준이 상향 표준화되어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제 정책 입안에 도움을 얻는 것은 물론 쌍무협상이나 무역정책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SF는 한국이 주도하며 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 20여 개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6개 국제기구가 참여할 전망이다. ASF 설치에 대해 일본·호주·중국을 비롯한 IMF, OECD 등이 적극 호

응하고 있어 내년 8월 중 기구의 골격이 정해질 것이다.

아시아에 대한 일본 경제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일본이 이 같은 제안을 먼저 내놓고 추진해야 하겠지만 일본은 나름대로 사정이 복잡하다. 아직까지 구미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어 이 같은 제안을 주도하고 나서기가 어색한 입장이다.

일본은 얼마 전만 해도 지난해 4분기의 성장률을 고의적으로 높게 잡았다는 뉴욕타임즈의 지적을 받았고, 하루 뒤 뉴욕타임즈의 지적에 따라 성장률을 0.2%p 하향 조정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그 후 일본 정부의 경제 성장률 통계는 못 믿겠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일자 올 연말까지 측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IMF 체제를 겪으면서 통계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 과거에는 통계에 관해 일본에서 많이 배웠지만 지금은 일본과 같은 수준이거나 일부는 한국이 앞서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통계 기법을 확보하느냐이다. 지금까지 아시아에 비교적 통계가 앞서 있다는 한국이나 일본도 디지털경제에 대한 통계는 별반 차이가 없다.

예컨대 한국의 벤처기업가들이나 연구 기관들은 한국이 적어도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T 분야에서는 제조업의 세계 챔피언적인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고 보지만 정작 일본은 별로 수긍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본의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다는 한국의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인들은 “너나 잘해라”는 식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일본의 한 민간 연구소가 얼마 전 내놓은 아시아 각국의 IT 발전 정도를 보면 한국이 ABC 등급 중 B를 받았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이 보도에 찔쩍 뛰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IT산업이나 사이버경제라는 것이 각국에 확실히 뿌리를 내린 단계가 아닌데다가 종전의 통계 시스템은 대개 제조업 중심 체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측정대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따라 자신의 주관적인 감에 들어맞는 통계에 대해서만 정확한 것이라고 간주해 수용하려는 자세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나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 담당자들은 IT로 요동치는 경제·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사이버경제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으며 자국의 지식 경제 기반이 얼마나 성숙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의 경제·사회 구조에 대한 영향을 통계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디지털경제에 대한 새로운 측정 기법을 모색해 한국에 적용하는 동시에 ASF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제시하기로 하였다. 통계청은 우선 디지털경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숫자로 잡아내기 위한 인디케이터((indicator, 지표)를 고안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정보 접근의 용이성과 접근 기회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별 PC 등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개인별 통신기기 보유 현황, 개인별 PC 이용 시간 및 사용 능력, PC방 이용 횟수, 이메일 이용 현황 등을 2000년도 센서스에서 전 인구의 10%표 본(150만 가구)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보기술산업의 발전 정도와 관련해서는 주로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산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설비 투자 규모, 조직 형태, 경영 현황, 수출입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1999년 정보통신산업의 범위에 출판, 영상, 음반 등 정보 콘텐츠 산업을 추가해 현재 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결과를 연내 공표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조사이다. 통계청은 지난 4월부터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인 B2C 거래에 대해, 이에 앞서 1월부터는 기업간 거래인 B2B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주요 항목은 매출액, 가격 수준, 종사자 수, 결제 수단 등이다. 그 결과 올해 2분기의 B2C 결제의 매출액은 월 1천억원이 넘어 연간으로는 1조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연간 총 소매 거래액의 약 1%가 넘는 규모이며, 민간 연구소들이 연초에 추산한 1천5백억원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만큼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상거래가 소비자들 사이에 급속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B2B 거래는 아직 미약해 지난 1분기중 기업들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한 비

중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또 금년 말부터는 정부 조달 구매인 B2G 거래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느냐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터넷 상거래에서 형성되는 물건의 가격을 내년부터 정식 물가 조사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통계청은 인터넷 상거래가 보급될수록 물가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사이버상의 물가 동향을 조사키로 한 것이다.

한편 통계청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ASF의 제의와 새로운 통계 기법 발표에 대해 각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경제에 대한 한국의 통계가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한 실무 작업은 이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또 사이버경제 활동은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잡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 가상공간의 경제 동향을 얼마나 정확히 수치화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심거리다.

전자 통계 행정체계의 강점 살릴 터

“종전 종이 조사표에서 휴대용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방식을 확대, 통계조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영대 통계청장은 오는 11월,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시대를 맞아 지식 기반 디지털경제, 정보화사회, 복지사회, 고령사회 등과 같은 전반적인 정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을 비롯해 정보컨텐츠업, 벤처기업 등과 같은 신규 통계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자 통계 행정 체계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돼 있습니다.”

내외경제(2000. 9. 14)

“국민들은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통계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개인은 사생활 보호를, 기업은 사업상 비밀을 이유로 통계 조사에 대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어 그 동안 통계 조사에서 겪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응답자인 국민과 통계청이 한 마음이 될 때 좋은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11월 통계 조사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본 시즈오카현 고텐바시에서 열린 동아시아 통계 기관장회의 및 아시아통계포럼(ASF)에서 디지털경제 진행과 관련된 정책적인 관심 사항과 이를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 참석 국가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반향을 받았다며 세계 속에 앞서가는 통계청이 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내년 8월 통계인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제53차 ISI 국제통계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계 선진국 반열에 설 것을 기대합니다.”

▶ IMF 사태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큰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몇 달 전에 비해 뚜렷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통계청장으로서 우리 경제의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실물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중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경기 회복 추세가 탄력을 얻고 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비 증가 → 생산 확대 → 투자 확대 → 경기 회복'의 선순환으로 진입이 기대됩니다.

1998년 5월과 회복 속도를 비교해 보면 생산 활동에서 생산은 가죽·신발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증가하여

YTN 「경제 스페셜」(1999. 7. 6) 인터뷰

21.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출하는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28.3% 증가하고, 내 수출하는 19.8% 증가하여 23.4%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고는 18.0% 감소하였으나 3~4월에 비해서는 둔화되고 있어 출하 신장에 대비한 재고 확보 단계 진입을 기대하게 하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3~4월에 74%대로 높아진 데 이어 5월에는 76.5%로 상승하였고, 소비면에서도 도소매 판매가 8.9% 증가하여 3월 이후 8%대의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동향을 보면 설비투자지수가 43.3% 증가하여 3월부터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공업용 건축 허가 면적은 299.4%에 달하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앞으로도 설비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에서 생산수준은 금년 3월에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 투자는 크게 위축된 데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IMF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내수 회복이 물가 상승이나 경상수지 흑자 축소를 수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내수 수준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는 작년 9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서서 금년 5월 중에도 견조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경기 상승 국면은 앞으

		1998		1999			
		5	연간	1/4	3	4	5
생 산	생 산	-11.1	-7.3	12.5	18.8	17.1	21.8
	제 조 업	-11.3	-7.5	12.8	19.4	17.5	22.4
	(중 화 학)	-9.3	-4.8	16.6	23.5	20.9	26.4
	(경 공 업)	-17.9	-16.0	-0.1	4.9	5.5	8.7
	출 하	-11.8	-7.1	14.1	21.4	19.5	23.4
	내 수	-27.5	-23.0	8.8	16.4	15.5	19.8
	수 출	24.4	28.5	21.9	28.6	25.1	28.3
	재고(기말 기준)	-8.3	-17.3	-18.5	-18.5	-19.4	-18.0
평 균 가 동 률	67.3	68.1	71.3	74.7	74.1	76.5	
생 산 능 력	4.4	4.7	6.0	5.0	4.9	6.4	
소 비	도 · 소 매 판 매	-16.5	-12.7	6.0	8.3	8.2	8.9
	내수용소비재출하	-27.6	-21.4	13.1	19.5	13.6	17.7
투 자	설 비						
	기계류수입액	-56.2	-52.9	7.9	28.3	4.2	15.0
	설비투자추계	-47.1	-38.7	10.9	26.0	29.5	43.3
	국내기계수주	-40.6	-30.5	16.9	15.8	23.6	40.5
	건 설						
건설기성액	-	-	-1.0	-4.6	2.3	0.7	
국내건설수주	-61.6	-42.5	-45.3	-51.1	39.3	89.6	
건축허가면적	-65.2	-55.0	-45.8	-29.6	4.1	46.5	

(% p)

경기종합지수	1999. 1	2	3	4	5
동행지수(전월비)	0.7	0.3	1.2	1.2	1.4
· 순환변동치	88.8	88.7	89.4	90.1	90.9
· 순환변동치 전월차	0.2	-0.1	0.7	0.7	0.8
선행지수(전월비)	2.1	1.2	1.1	1.9	2.3
· 전년동월비	8.7	10.4	11.8	14.2	16.8

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아무래도 경제 회복 기조가 지속되려면 투자와 함께 소비도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통계청에서 최근에 개발·발표한 소비자전망지수는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투자보다는 내수시장의 소비 회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기존에 작성되고 있는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등의 실적 지표 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에 대한 인식, 소비 지출 계획, 생활 형편 등의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내수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소비자전망지수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7년 8월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1998년 2월부터 분기별로 지수를 작성하였으며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1998년 12월부터 매일 지수를 작성하여 지난 5월에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경기가 1998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여 소비자들이 느끼는 소비 심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 후의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4월에 처음 100을 넘은 이래 5월에도 103.9로 그 동안 위축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어 향후에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개월과 비교한 현재의 가계 생활을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96.4로 기준치 100에는 못 미치지만 매월 기준치에 접근해 가고 있어 6개월 전에 비해 가계 생활이 어렵다는 가구

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98.6	8	11	12	99.1	2	3	4	5
· 소비자기대지수	56.7	63.7	56.7	86.7	92.1	94.7	96.1	100.1	103.9
· 소비자평가지수	36.8	47.2	36.8	77.9	78.6	84.4	86.7	92.4	96.4

※ 소비자기대지수 100 : 소비를 줄이겠다는 사람과 늘리겠다는 사람이 같은 수준임을 의미
(금정으로 돌아서는 전환점)

소비자기대지수를 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300만원 이상 소득 계층부터 기준치인 100을 넘기 시작하여 5월에는 100만원 이상의 계층까지 100을 넘어서 소비 회복 심리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 계층도 100에 근접하여 소비 심리가 전 소득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대지수〉

	98.6	8	11	12	99.1	2	3	4	5
300이상	61.6	64.6	89.7	94.6	100.6	101.6	103.2	103.6	107.6
250-300미만	57.9	67.8	85.9	92.7	97.4	100.8	101.9	107.8	110.2
200-250미만	60.8	64.6	85.6	90.1	95.2	97.5	101.5	103.9	108.8
150-200미만	56.6	62.6	83.5	87.7	90.9	94.8	97.3	100.6	106.4
100-150미만	56.0	64.9	81.8	86.9	92.8	94.9	95.7	98.8	103.4
100 미만	54.0	62.0	76.2	81.4	87.3	90.4	91.0	96.9	98.3

현재 수준은 그 동안 100 이하로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가 완화된 상태에서 정상화되어 가는 진입 단계로 과소비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 중에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이 아마 실업 통계

일 것입니다. IMF 사태 이후 그렇게 높아졌던 실업률이 최근 줄었는데, 이렇게 몇 달간 실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지속적인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난 2월 정점에 이르렀던 실업률이 3, 4, 5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98.12	99.1	2	3	4	5
· 실업자(천명)	1,665	1,762	1,785	1,704	1,550	1,406
· 실업률(%)	7.9	8.5	8.7	8.1	7.2	6.5

작년 4/4분기 이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면서 지속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모든 산업에서 고루 취업자가 증가하여 실업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별 취업자 증가를 보면 특히 제조업, 도소매업 경기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8.12	99.1	99.2	99.3	99.4	99.5
· 제조업취업자(천명)	3,858	3,823	3,773	3,862	3,889	3,911
(동월비, %)	-12.5	-8.9	-6.8	-3.4	-0.4	1.9
· 건설업취업자(천명)	1,428	1,271	1,213	1,340	1,425	1,475
(동월비, %)	-27.4	-27.8	-25.4	-18.4	-12.9	-8.4
· 도소매업취업자(천명)	5,637	5,624	5,587	5,580	5,586	5,621
(동월비, %)	-3.9	0.4	0.1	0.4	0.4	1.4

계절적인 영향으로는 동절기를 지나면서 농림어업 취업이 늘고 건설업 공사가 다소 늘면서 실업을 흡수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 벤처기업 창업 지원 등에 따라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지속적인 공공근로사업의 실시에 따라 취업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1999. 3	4	5
· 취업자 (천명)	19,438	20,004	20,301
(공공근로사업취업자)	(330)	(307)	(316)

그러나 일용 근로자, 공공근로 취업자를 합하면 실제로 실업자가 더 많다는 의견이 있으며 상용 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취업 구조가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 회복에 따라 상용근로자 증가가 예상되어 취업 구조는 안정되리라 생각됩니다.

▶ 우리나라는 ILO 기준으로 고용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 통계 작성 방법으로 OECD 기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OECD 기준 고용 통계 작성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 개념과 동일합니다. 즉 조사 대상 기간을 1주로 하였고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실업자로 분류되는 3가지 조건 ①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②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③ 취업이 가능하였던 사람 중에서 구직 활동 여부를 파악하는 대상 기간을 ILO는 1주간, OECD는 4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OECD 기준 실업률을 작성하기 위하여 1998년 1월부터 관련 항목을 조사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검토하여 왔으며, 검토 결과, 1998년 연간 및 1999년 상반기

중 계절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발표할 예정이며 구직 활동 기간이 1주에서 4주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자가 다소 늘어나리라 생각하지만 우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구직 단념자를 통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구직 단념자란 무엇이며, 현재 고용 통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구직 단념자를 실업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실체가 분명치 않은 구직 단념자를 실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직 단념자에 대한 개념이나 파악 방법에 대해서 선진국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직 단념자란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직을 포기한 사람'으로서 '취업 의사'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사 당시 개인의 상황이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조사로 정확한 실체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직 단념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구직 단념자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계청에서도 구직 단념자 통계의 작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개념과 조사 항목의 개발을 위해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 수치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흔히 이야기되기를 피부로 잘 와 닿지 않는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통계 수치간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통계의 속성상 종합 결과인 통계치와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과는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통계의 경우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는 전국의 모든 계층이 소비하는 농축산물, 공산품, 집세,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 509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평균한 개념인 반면 체감물가는 본인이 지출한 품목의 물가를 토대로 판단하며 특히 최근에 가격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업통계도 전국 만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실업률이므로 성별·연령별·학력별로 구분하면 평균 실업률과 언제나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실업자와 취업자간에도 고용 사정에 대한 느낌이 다른데 실업자는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고 느끼며 취업자는 고용 사정이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산업생산활동통계도 물가통계와 마찬가지로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업 전체의 평균적인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기업에 따라 경기 상황에 대한 느낌이

서로 다릅니다.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업체는 경기 회복이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느낄 것이고, 의복, 섬유, 가죽·신발, 인쇄·출판업체는 경기 회복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경기 회복이 진전되고 있다고 느낄 것이나 중소기업은 경기 회복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자 위치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평균적 개념인 통계 수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은 통계치와 체감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가통계의 경우에는 1998년부터 일반 서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본 생필품 및 소비 지출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지수'를 별도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한 조사 대상처의 보완, 소득계층별 물가지수의 개발, 집세조사방법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통계에서도 OECD 기준 실업통계, 불완전 취업자, 구직 단념자 등 고용 관련 보조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 인구 조사 부가 조사의 반기별 실시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라고 표시된 통계청 직원의 명함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

하고 있는 업무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통계청에서는 4C로 대별되는 네 가지 원칙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신뢰도 높은 통계 작성(Credibility)입니다. 이를 위해서 OECD 기준 실업률 발표 등 실업 통계의 개선,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조사 대상처 보완 등 물가 통계의 현실 반영도 제고,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차질 없는 실시를 위한 준비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 중심의 통계 작성(Customer-Oriented)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늘어나는 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규 통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단위통계, 서비스업 동향지표 등 새로운 경제통계, 경기확산지수 개발 등 경기동향 및 예측지표 개선, 국민 생활 시간 활용 조사 등 삶의 질과 관련한 통계, 지역 경기지수 등 지역 통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용에 편리한 통계 제공(Convenience)입니다. 윈스톱으로 통계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CD-ROM, 통계 DB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통계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통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 강화(Cooperation with outsiders)입니다. 이를 위해 관·학 협동 활성화 등 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증대하고, <국제통계포럼> 개최 등 국제 통계 협력의 강화, 2001년 ISI(국제통계기구) 서울대회의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얘기를 듣고 보니 질 좋은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하시지요.

정확한 통계는 통계 작성자와 응답자의 공동 작품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정확한 응답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 환경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응답자들은 기업 비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응답 기피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 사태 이후 경제 사정 악화로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조사 환경에서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조사원이 각 가정이나 업체를 방문했을때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운영대 청장님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다양한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통계청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리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통계청 업무를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통계청의 주요 업무는 크게 ① 경제·사회 통계 자료 생산 ② 통계 정보의 제공 ③ 통계 기준의 설정 ④ 통계 조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인구, 고용, 산업 생산 등 51종의 국가 기본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매월 신문·방송을 통해 접하게 되는 소비자물가, 실업통계, 산업동향, 경기동향 등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계 자료의 제공·보급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50여 종의 통계 자료를 제공·보급합니다. 이것은 책자,

CD-ROM,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공되며, KOSIS, Stat-Korea 등 통계 DB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세 번째로는 각종 통계 조사 결과가 동일한 척도에서 비교될 수 있도록 표준 산업 분류, 표준 직업 분류 등의 통계 기준을 제정·공표합니다. 네 번째로는 통계 응답자의 부담 경감과 중복·유사 통계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중앙 통계 기관으로서 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각 통계 작성 기관이 과학적인 통계 조사 방법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올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통계 조사는 어떤 겁니까?

▶ 금년은 국가적으로 볼 때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하여 선진 경제 실현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금년도 주요 업무 방향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 첫째, 경제·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신규 통계의 적극 개발 및 경상통계의 개선입니다. 정보화격차통계, 전자상거래통계 확대와 같은 지식·정보화사회를 뒷받침할 신규 통계의 개발과 문화·환경·벤처기업 관련부문의 통계 개발 그리고 10년 주기의 농·어업총조사의 실시 등입니다.

▶ 두 번째로 통계 품질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계의 신뢰성, 신속성, 편리성 등을 제고하고 통계 품질 평가 제도를 정

착시키며 물가통계 및 고용통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용하기 편리한 통계 서비스 체계의 정립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인 'Stat-Korea'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통계 DB 확충 및 통계 정보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제53차 세계통계대회(ISI)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지식정보화 관련 통계의 선도적 개발·전수를 추진하겠습니다.

▶ 인구주택총조사는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주택총조사를 지난 해 실시하셨죠? 자세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니까?

지난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과 중앙 및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택에 조사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으며 통계청에서는 인구·가구·주택 총 규모에 대한 잠정 집계 결과를 지난해 12월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1995년	2000년	연평균증가율
총인구(천명)	44,609	46,125	0.7%
총가구수	12,958	14,318	2.0%
총주택수	9,570	11,493	3.7%

본관, 성별, 나이, 교육 정도, 출생지, 혼인 상태 등과 사용 방수, 주거 시설 형태, 점유 형태, 거처의 종류, 주택 종류 등, 그리고 주택의 연건평, 대지 면적, 총 방수, 건축 연도, 편익 시설

수 등 인구·사회·경제학적 제특성을 볼 수 있는 20개 전수 조사 항목은 2001년 9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공 분야, 아동 보육 상태, 1년 전·5년 전 거주지 등과 컴퓨터 활용상태, 인터넷 활용 상태, 개인 휴대용 통신기기 등, 통근·통학 여부, 장소, 소요 시간, 이용 교통 수단 및 정보통신 기기 보유 현황, 자동차 보유 대수, 주차 시설, 임차료 등 인구의 이동, 경제 활동, 산업·직업, 컴퓨터 활용 상태 등 30개 표본 조사 항목은 2001년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의 수준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난 1995년 OECD 가입 직전 OECD에서 한국의 통계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통계 수준을 29개 OECD 회원국 중 중상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나라는 신규 통계의 지속적 개발과 기존 통계의 질적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통계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통계를 비롯한 ICT 관련 통계를 적극 개발하여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사례로 크게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통계 신뢰성 제고에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생활물가지수, 구입빈도별지수 등을 작성·공표하였으며 OECD 기준(구직 활동 기간 1달) 실업률, 비정규직 근로자(임시 일용직)에 대

한 고용통계도 작성·공표하였습니다.

셋째, 결과 발표의 신속성을 제고하였습니다. CAPI, CASI 방식 이용, 자료 수집·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실업통계, 물가통계, 산업동향 등 월간 통계는 1달 이내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제공, 통계바다, KOSIS 의 제공 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통계의 신뢰성, 신속성, 편리성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이제는 OECD 국가의 상위 그룹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간혹 체감경기는 안 좋는데, 왜 경기가 호전된다는 뉴스를 내느냐고 항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통계상 각종 경제 지표들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반영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통계는 일정한 현상을 평균한 개념으로 작성되므로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감각과 어느 정도 괴리를 느끼게 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소비자물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 도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509개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의 변동을 평균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본인이 소비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전체 물가의 변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기름값, 이발비에서, 어머니는 쌀값, 반찬값에서, 그리고 자녀들은 학용품비, 버스료 등

에서 물가를 체감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의 고급화 및 구입 빈도의 증가, 자녀의 성장과 가족 수의 증가에 따라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물가 상승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86을 586PC로 교체한데 따른 PC값 차이를 PC값 인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가족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비가 추가된 것을 음식비의 인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와 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가통계의 경우, 서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154개 생필품(쌀, 식료품)을 주 대상으로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밖에 구입빈도별지수, 신선식품지수 등도 별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통계의 경우 ILO 기준 이외에 OECD 기준 실업률 통계를 공표하고 있으며, 구직 단념자 통계, 12개월 이상 실업자 통계 등을 보조지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통계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불성실하거나 불확실한 답변이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통계의 정확성은 응답자의 정확한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정확한 응답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 장치로서 통계법에 응답자의 응답 내용을 비밀로 유지시키도록 하고 응답 자료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프라이

버시 침해, 과세 등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응답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올바른 응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 후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응답이 나오는 경우, 응답 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정확한 응답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차례의 응답자와의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하여 진실된 응답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조사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조사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통계청에서는 지난해 전자상거래 통계 등 IT 관련 통계의 개발 우수 사례로 국제 사회에서 많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통계 개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 디지털사회로 진행하면서 IT 관련 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IT 관련 각종 신규 통계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1단계로 지난해 B2C 통계 개발을 완료하였고 2단계로 금년도 초 B2B 통계 개발을 완료할 것이며 3단계로 금년도 말까지 B2G 통계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 통계의 개발에도 주력하여 정보통신업만을 특별 분류하여 정보통신업계의 규모, 매출액, 종사자 등 정보통신산업 구조를 파악하는 통계를 지난해 개발하였으며, 지식을 집

약적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통계 개발을 금년 중에 추진하고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통계를 금년 중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 경제·사회 환경이 달라지면서 통계 작성 방법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최근의 통계 작성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종래의 통계 조사는 손과 발로하는 조사(Paper and Pencil Survey)로 통계조사원이 집과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통계조사에 접목되면서 조사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통계조사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조사(1999년 도입)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본부에 전송하는 방식인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전문가 등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조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업체, 가구에서 응답하여 전송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CASI) 방식도 금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방식의 변화는 통계청에 서는 조사 인력의 절감 효과가, 응답자는 편리한 시간대에 응답 가능함에 따른 조사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전자 통계청 구현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구상하고 계시는데, 청장님

께서 구상하시는 전자 통계청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자 통계청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통계 행정의 모든 부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넷조사(CASI)방식 및 이메일 조사의 적극 도입, 통계조사에 노트북을 이용하는 CAPI 방식의 범위 확대 등 전자 조사(e-Survey) 방법 확대와 통계자료, 보도자료 등 주요통계정보에 대한 신속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상에서의 통계 정보 서비스 제공, 통계자료 요구 처리 등 「인터넷 민원 서비스」확대, 인터넷상에서 통계 상품에 대한 쇼핑몰 개설 운용 등 통계 정보 인터넷서비스 확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청내에서 생산되는 전문지식의 원활한 공유·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서류는 전자 결재 처리, 전직원의 이메일 보유 및 활용과 직원의 PC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전직원의 컴퓨터 관련 공인 자격증 취득 유도는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 오는 8월 세계통계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요, 세계 통계대회가 어떤 점에서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제53차 세계통계대회는 전 세계 약 1,500명 통계인들이 참석하는 통계올림픽입니다. 1887년 1차 로마대회 이후 2년 주기로 개최되었으며, 제53차 대회가 금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금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서울 COEX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 및 UN 등 20여 개 국제기구에서 참가할 것입니다.

대회의 주요 내용은 개회식을 비롯하여 국제통계기구(ISI) 총회와 각종 학술회의가 개최됩니다. 인구·사회·경제·환경 등 통계 전 분야를 망라하여 85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지식정보화사회와 관련한 디지털경제 측정, 전자상거래, 인터넷 조사, 통계 품질 평가 등에 대한 특별회의가 진행됩니다.

또한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J. Heckman 박사와 Daniel L. Mcfadden 박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들을 계획이며, 각국의 통계 발전 방향, 선진 통계 기법 교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각국 및 국제기구 대표자의 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이번 대회의 의미는 전세계 통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계의 제반 문제를 논의·토론하는 토론의 장, 즉 통계올림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통계 수준과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의 문화, 역사, 경제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회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 국가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주요 정부 인사를 중심으로 명예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참가자 확대를 위해 대회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각종 정보 제공, 국내외 참가 대상자에게 지

속적인 대회안내 및 참가 권유, 학술회의 외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Social Programs) 마련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통계 정보가 보다 널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텐데요, 통계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통계 정보 DB(KOSIS)의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의 신속한 검색이 가능토록 서버 용량을 증설하고 프로그램을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등과 같은 과거의 대규모 센서스 자료에 대한 DB구축을 추진하고 어린이 통계 홈페이지 구축 등 통계 이용 계층별로 활용 빈도가 높은 통계를 구별한 DB를 별도로 구축하고 OECD, IMF 등의 주요 경제 지표 등 신규 자료를 신속히 입수하여 지속적인 DB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 정보 원스톱 서비스 체계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작성되는 모든 통계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계 바다(Stat-Korea)' 서비스를 1999년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통계 자료 보급을 위해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가공·편집한 '맞춤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각종 통계 정보를 전자북(e-book) 형태로 발간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통계 활용도가 높은 사회가 바로 선진 사회라는 생각인데, 통계를 조사, 생산, 공급하는 위치에 계신 통계청장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식정보사회에서 통계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한 나라의 통계 정보 수준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인구·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필요하고 또한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기업의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조사 환경은 날로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물론 통계 이용자의 신규 통계 개발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자료는 응답자의 진실된 응답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통계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직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 조직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국가 통계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개 좀 해주시지요.

저는 '통계 즉 경국지대본(統計 卽 經國之大本)' 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바로 국가 경영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입니다. 도로, 항만과 같은 유형의 사회간접자본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 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시설투자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통계는 형태는 없지만 유형의 SOC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일정한 투자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국가 경쟁력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잘 설명하는 통계가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미래설계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오류를 가져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질 좋은 통계자료 제공 체계의 구축이 우리 사회의 선진국 진입의 요소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통계 체도가 더욱 발전되고 보다 질 좋은 자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최근 실업자 수가 다시 100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3월 실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될는지? 향후 실업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4%대의 실업률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IMF 경제 위기 이후 최고 8.6%(1999년 2월)까지 상승하였던 실업률이 경기회복,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 대책 실시로 지난 2000년 10월에는 3.4%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10월 이후에는 계절적 요인 및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상승하다가 지난 2월에는 실업률 5.0%, 실업자 107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통상 2월은 연중 가장 높은 실업률, 실업자 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주로 겨울철, 졸업생들을 비롯한 신규 노동 인력의 참가 증대 등 주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3월달은 통상 농림 어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신규 노동 인력 유입도 감소하여 실업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3월달도 전월에 비해 실업자, 실업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폭은 경제 상황, 계절 요인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전까지 연평균 2~3%의 실업률을 유지하다가 IMF 이후 6.8%(1998년)까지 상승 후, 2000년에는 다시 4.1%로 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연간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킨다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 육성, SOC 투자의 확대 등 범정부적인 '종합실업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어 올해 실업률 수준은 구조 조정 가속화,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3~4%의 물가 억제가 가능할는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금년 들어 소비자물가는 다소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까

소비자물가	00.8	9	10	11	12	01.1	2	3
(전 월 비)	0.8	1.5	-0.3	-0.4	0.4	1.1	0.2	0.6
(전년동월)	2.7	3.9	2.8	2.6	3.2	4.2	4.2	4.4
(전년동기)	1.8	2.1	2.1	2.2	2.3	4.2	4.2	4.2
(전년말비)	2.0	3.5	3.2	2.8	3.2	1.1	1.4	1.9

지의 소비자물가는 작년 말에 비해 1.9% 상승하였으며 작년 같은 기간(1~3월)에 비해서는 4.2%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한 요인은 진찰료(43.3%), 투약 및 주사료(76.9%) 등 의료수가와 도시가스 요금(23.7%), 시내 버스 요금(18.6%) 등 공공 요금이 13.3% 상승하였으며, 휘발유(5.9%), 등유(18.4%) 등 공업 제품이 3.7%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 추세는 최근 환율 인상이 제조업 원가 상승이나 공공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요인을 기업의 경영합리화, 할인점 등의 가격 경쟁 등으로 흡수한다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금년도 물가 목표선인 3%대 물가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 통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동안 청장께서는 주로 어떤 방향으로 통계청을 이끌어 오셨는지요?

저의 통계에 대한 기본 철학은 ‘통계 즉 경국지대본(統計 卽 經國之大本)’입니다. 즉 통계는 국가 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며 더 나아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 개인의 의사 결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 정책의 기본 목표를 ‘고객 만족을 위한 통계 행정’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4C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C의 첫번째는 고객(수요자)중심의 통계(Customer-

Oriented)입니다. 경제·사회가 변함에 따라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사항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다양하게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지식기반산업통계 등 IT 통계와 환경오염배출량통계, 환경산업통계 등 환경통계의 개발 등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 높은 통계(Credibility)입니다. 통계의 생명은 신뢰성에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통계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대한 줄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통계 기획, 현장 조사, 자료 처리 등 모든 단계별 통계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계 이용의 편리성 제고(Convenience)입니다. 통계는 정보(Information)이므로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점에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 DB인 KOSIS의 내용과 성능을 대폭 개선하고 CD-ROM, 전산 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문형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 협력 증진(Cooperation)입니다. 통계청에서는 국가간 선진 통계 기법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세계통계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독일, 캐나다, 호주 등 통계 선진국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 통계청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정책 방향을 하나로 묶으면 고객 중심(Customer-Oriented), 신뢰성 제고(Credibility), 편리성 제고(Convenience), 국제협력(Cooperation) 으로 4C가 되며, 이것이 제가 추진해온 통계 정책의 방향입니다.

▶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에서는 금년에도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통계 행정을 추진하였는지요?

통계 행정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크게 네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통계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신규 통계 개발 및 기존 통계의 개선입니다. 정보화실태통계, 지식기반산업통계, 전자상거래통계 등 지식·정보화사회를 뒷받침할 신규 통계의 개발과 문화·환경·벤처기업 관련부문의 통계를 개발하고 10년 주기의 농·어업총조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통계 품질의 혁신 추진입니다. 통계 기획, 현장 조사, 자료 처리 등 통계 작성의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 따른 사후 통계 품질을 평가하는 등 통계 품질 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연쇄 지수, 헤도닉 지수의 연구와 임시직·일용직 등 고용 세부 구조 파악을 위한 보조지표 개발을 통한 물가통계 및 고용통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용하기 편리한 통계 서비스 체계 정립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인「Stat-Korea」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통계

DB 확충 및 통계 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제고입니다. 제53차 세계통계대회(ISI)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과 지식정보화 관련 통계의 선도적 개발·전수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통계청의 지위를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금년 사업 중에서 서울 세계통계대회를 빠뜨릴 수 없는 데요.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통계대회의 의미와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세계통계대회는 전 세계 통계인들이 모이는 학술 토론 대회입니다. 대회에서는 경제·사회·문화·환경·교육 등 모든 통계 관련 분야에 대한 주요 토픽을 논의하는 대회로 다시 말해 일종의 통계올림픽입니다. 참가 규모로 보아도 전 세계 116여 개국, UN 등 15개 국제기구에서 2,628명의 통계 전문가가 참가하는 국제대회이며, 역사로 볼 때 114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대회로 스포츠 올림픽보다 9년이나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성과로는 먼저 국내외 통계 발전에 기여한 점들을 수 있습니다. 통계 관련 논문이 938편 발표되어 이론과 실무에 공히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인터넷 발전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각종 통계의 발전 추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와 관련하여 디지털경제 측정, 전자상거래, 인터넷 조사, 통계 품질 평가, 데이터마이닝 등 최신 통계 기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Heckman 박사의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문제」 그리고 Daniel Mcfadden 박사의 「통계적 모의 실험」에 대한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정보화 관련 통계, 생활 시간 활용 조사 등 선두 그룹통계를 홍보하여 한국 통계의 역사, 현황, 수준을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환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홍보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 특히 청장께서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IT 관련 통계를 집중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최근 디지털사회가 보편화되면서 경제·사회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거래 수단으로 전자상거래가 정착되고 지식이 부가가치의 새로운 원천으로 등장하였으며, 국민의 정보화 수준에 따른 소득,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디지털 경제 변화에 부응하는 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 수준 및 격차 정도를 파악하는 정보화 실태 통계의 개발, R&D, 인력 투자 등 지식 투입 및 성과 측정 파악을 위한 지식 경제 관련 통계 개발, 정보산업통계 및 정보컨텐츠산업통계를 포괄하는 정보산업통계 개발과 전자상거래(E-business) 통계의 확충을 위한 B2C, B2B, B2G 통계의 개발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관련된 관련 통계 개발 경

힘은 국제 사회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호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한국의 ICT 통계 개발 사례를 국제 사회에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 얼마 전 우리나라의 정보화 실태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정보화 실태는 어떤가요?

통계청에서는 지난 3월 정보통신 매체 보급 및 생활 정보화 기반 환경 등에 대한 정보화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30,000가구의 6세 이상 약 80,000명에 대해 컴퓨터 보유율, 활용 상태, 인터넷 상거래 여부 등 22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 컴퓨터 보급률이 53.8%에 달해 2가구 중 1가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58.7%가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 가구의 90.2%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13.4시간(하루에 약 2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이용 가구는 컴퓨터 보유 가구의 74.1%이며 주당 평균 10.2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부문에서는 게임 55.7%, 전자우편 53.9%, 정보 검색 52.2%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76.1%가 향후 정부의 유지 비용 인하, 컴퓨터 구입 지원 확대 등 정보화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은 전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생활 속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정보화와 거리가 있는 계층도 아직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리 국민의 정보화 수준이 연령, 소득 등 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계층별 정보화 격차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컴퓨터 사용 가능(%)	98.1	89.5	65.6	40.9	17.1
인터넷 이용 가능(%)	95.2	86.3	58.6	35.5	14.1
인터넷 이용 시간(주당)	9.4	12.9	10.0	8.7	8.3
인터넷 거래 여부(%)	9.2	18.8	17.3	14.3	10.3

	~100만	250~300만	350~400만	450만 이상
컴퓨터 보유 가구(%)	21.0	75.5	82.4	86.6
컴퓨터 사용 가능(%)	35.9	67.6	70.1	73.8
인터넷 이용 시간(주당)	9.4	10.3	10.8	11.2
인터넷 거래 여부(%)	11.5	16.0	18.5	20.7

〈연령 계층별 정보화 수준〉

(전국 평균=100)

	총지표	컴퓨터 보유 가구		컴퓨터 사용 가능		인터넷 이용 가능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거래 여부	
		%	%	%	%	시간	%				
전국	100.0	100.0	53.8	100.0	58.7	100.0	52.9	100.0	10.2	100.0	15.3
6~9	120.7	-	-	139.9	82.1	98.7	52.2	58.8	6.0	-	-
10~14	173.4	-	-	166.8	97.9	175.4	92.8	81.4	8.3	-	-
15~19	121.0	66.7	35.9	167.5	98.3	184.1	97.4	102.9	10.5	60.1	9.2
20~29	122.4	90.7	48.8	152.5	89.5	163.1	86.3	126.5	12.9	122.9	18.8
30~39	104.1	113.2	60.9	111.8	65.6	110.8	58.6	98.0	10.0	113.1	17.3
40~49	90.3	136.2	73.3	69.7	40.9	67.1	35.5	85.3	8.7	93.5	14.3
50~59	63.8	104.5	56.2	29.1	17.1	26.7	14.1	81.4	8.3	67.3	10.3
60세이상	43.4	35.9	19.3	7.2	4.2	5.9	3.1	74.5	7.6	75.2	11.5

〈소득 계층별 정보화 수준〉

(전국 평균=100)

	총지표	컴퓨터 보유 가구		컴퓨터 사용 가능		인터넷 이용 가능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거래 여부	
		%	%	%	%	시간	%				
전국	100.0	100.0	53.8	100.0	58.7	100.0	52.9	100.0	10.2	100.0	15.3
100만원미만	66.9	39.0	21.0	61.2	35.9	60.5	32.0	92.2	9.4	75.2	11.5
150만원미만	89.8	91.3	49.1	93.7	55.0	90.4	47.8	95.1	9.7	86.9	13.3
200만원미만	99.5	115.4	62.1	104.1	61.1	102.1	54.0	98.0	10.0	87.6	13.4
250만원미만	107.1	130.7	70.3	110.1	64.6	110.2	58.3	96.1	9.8	92.8	14.2
300만원미만	117.4	140.3	75.5	115.2	67.6	128.0	67.7	101.0	10.3	104.6	16.0
350만원미만	119.6	149.6	80.5	118.7	69.7	122.1	64.6	102.9	10.5	105.9	16.2
400만원미만	125.3	153.2	82.4	119.4	70.1	124.8	66.0	105.9	10.8	120.9	18.5
450만원미만	128.9	155.9	83.9	124.0	72.8	127.8	67.6	109.8	11.2	132.0	20.2
450만원이상	131.9	161.0	86.6	125.7	73.8	132.3	70.0	109.8	11.2	135.3	20.7

조사 결과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격차가 있어 서울, 울산이 가장 높고, 전남·충남이 가장 낮았으며, 도시보다는 농촌이 낮아 앞으로 연령, 소득 등 계층별로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생산, 수출 등이 부진하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경기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 경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년은 미국, 유럽 등 세계 경제의 침체로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이 크게 위축되어 어려운 해였습니다. 통계 지표를 보면 GDP는 3/4분기에 전년 동기비

1.8%, 전 분기비 1.2% 증가하여 당초 예상(1.0%수준)보다 호전되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2000	01.1/4	2/4	3/4
전년동기비(%)	8.8	3.7	2.7	1.8
전기비(%)	-	0.3	0.4	1.2

지난 10월의 산업 활동 지표를 보면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조업 일수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2.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4.4%이나 3/4분기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 지표인 도소매 판매가 4.6% 증가하여 상반기 이후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0	01.상	3/4	8	9	10
생 산	16.8	3.2	-1.8	-4.4	5.1	-1.3(2.3)
출 하	16.6	1.6	-2.3	-5.6	4.6	-0.9
설 비 투 자	30.1	-5.4	-12.2	-19.4	-6.4	-4.4
도소매 판매	9.8	3.5	4.8	3.6	7.8	4.6

주 : ()안은 조업 일수 감안시 전년 동월비

무역수지는 1월 중 수출액은 125.4억불로 16.3% 감소하였으나 지난 7월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11월 중 수입액은 115.8억불로 18.3% 감소하여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11월 중 무역수지는 9.7억불 흑자(1~11월 중 90.4억불 흑자)로 흑자폭이 지난 7월 이후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동기비, %)

	01.7	8	9	10	11	1~11
무역수지(억불)	3.2	4.2	7.6	6.6	9.7	90.4
수출액 (%)	-21.1	-20.4	-17.6	-20.1	-16.3	-11.7
수입액 (%)	-18.9	-15.5	-11.9	-18.3	-18.3	-11.9

이와 같이 생산 감소폭과 수출 감소폭이 둔화되고 소비 지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현재 실물경제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러면 통계로 볼 때 우리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Paul Kruegerman 교수는 “경기 예측은 경제학자들에게 영원한 수수께끼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경기 예측 관련 지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첫째, 대략 6개월 후의 경기, 소비 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100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지난 9월(1992.1)에 비하여 10월에 0.8p 상승하였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기대지수	100.3	98.4	98.2	92.1	92.9

둘째, 향후 기업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2월 들어 100을 돌파, 4개월만에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	7	9	10	11	12
전망	111.5	104.6	98.0	75.9	85.0	101.3
실적	105.4	88.9	97.0	85.9	95.9	-

출처 : 전경련

셋째,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가 지난 9~10월 연속 증가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5	6	7	8	9	10
순환변동치 (전월차, p)	97.4 -0.2	97.0 -0.4	96.6 -0.4	96.2 -0.4	96.4 0.2	96.7 0.3

넷째,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5월 이후 6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4	5	6	7	8	9	10
순환변동치 (전월차, p)	-1.8 0.0	-1.5 0.3	-0.9 0.6	-0.4 0.5	0.2 0.6	1.9 1.7	2.5 0.6

이러한 여러 가지 선행성 지표로 볼 때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년 2/4분기 이후에는 회복 추세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GDP가 전분기비로 상승 추세에 있고 국제기구 및 연구 기관에서도 내년도에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

	2001	2002
KDI(11.27)	2.6	3.6
OECD(11.20)	2.0	3.2
IMF(10월)	2.5	4.5

▶ 실업률이 체감과 다르다든가, 정부 발표 물가지수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통계와 체감에는 약간의 거리가 존재합니다. 통계는 전체의 평균(예: 물가 509개 품목의 가격평균)이며 체감은 개인이 주로 소비하는 일부 품목 또는 가족이나 친지의 고용 상황 등 주관적 상황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체감물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체감물가는 자동차, 기름값, 이발비 등이고 어머니의 체감물가는 쌀값, 반찬값, 자녀들은 학용품비, 버스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실업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주위에 학교를 막 졸업하여 취업전선에 뛰어들어든 사람이 많은 경우 실업 체감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통계는 이들 모두의 총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표와 체감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체감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합니다.

물가통계에 있어서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구입빈도별 물가지수를 개발·발표하고 있으며 실업통계에 있어서도 OECD 기준 실업률, 불완전 취업자, 구직 기간별 실업자, 구직 단념자, 임시·일용직 등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1.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5.4	5.2	5.0	4.7	3.2	3.6	3.4
생활물가지수	6.3	5.9	5.5	5.0	2.6	3.2	2.8
신선식품지수	4.4	6.7	9.0	13.3	-1.4	6.3	5.3

	2001.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공식실업률	3.5	3.3	3.4	3.4	3.0	3.1
OECD실업률	3.6	3.5	3.6	3.6	3.2	3.3

〈구직 기간별 실업률〉

	2001년 8월		9월		10월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3개월미만	473	62.9	381	55.7	413	59.1
3~6개월미만	181	24.1	195	28.5	189	27.0
6~12개월미만	84	11.2	92	13.5	86	12.3
12개월이상	15	2.0	16	2.3	12	1.7

이러한 노력의 결과 체감과 지표와의 거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평균 개념이고 체감은 개인적인 것이라서 본질적으로 완전 일치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 ▶ 작년엔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장래 인구 추계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장래 인구는 어떻게 전망되니까?

우리나라 장래 인구는 2000년 7월 1일 현재 47,008천명으로 추정되나 2013년에 5천만 명을 넘고 2023년에 50,683천 명으로 정점(Peak)에 도달한 후 인구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남북한 전체 인구는 2000년 7월 1일 현재 69,183천 명이며 2030년에는 76,130천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2000~2001	2022~2023	2030~2031
인구증가율	0.7%	0.0%	-0.24%

〈총 인구 및 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 천명, %)

	2000	2010	2013	2020	2023	2030
· 남 한	47,008	49,594	50,107	50,650	50,683	50,296
(증가율)	0.7	0.4	0.3	0.0	0.0	-0.2
· 북 한	22,175	23,455	-	24,744	-	25,834
· 남북한	69,183	73,049	-	75,394	-	76,130

※ 증가율은 당해년에서 다음 연도까지 증가분임, 2020년은 0.04%임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령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0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4%(고령사회), 2026년은 20.0%(초고령사회)를 상회하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될 것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80세 이상 노령 인구가 2000년보다 5배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 %, 천명)

	2000	2010	2019	2020	2026	2030
65세이상 구성비	7.2	10.7	14.4	15.1	20.0	23.1
65세이상 인구	3,395	5,302	7,314	7,667	10,113	11,604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 인구는 앞으로 20년간 소폭 증가한 후 2023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력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유년 인구는 감소세를, 노령 인구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사회에 적절한 사회적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 최근 경제·사회 구조가 디지털화되면서 통계 조사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첨단 조사방식을 설명해 주시죠.

종래의 통계 조사는 통계조사원이 집과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손과 발로 뛰는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3년 전부터 정보통신 기술이 통계 조사에 접목되면서 전자 통계 조사

(Electronic survey)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앞으로 대부분 통계 조사에 전자 조사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자 통계 조사의 사례를 보면 조사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조사(1999년 도입)하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 인터넷에 조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업체, 가구에서 응답하여 전송(금년부터 준비)하는 방식을 이용한 CASI(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 방식, 그리고 주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응답자에게 보내 조사하는 이메일 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방식의 변화는 통계청에서는 조사 인력의 절감효과가, 응답자는 편리한 시간대에 응답 가능함에 따른 조사 부담경감이 기대됩니다.

▶ 통계는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그 생명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과 신뢰성에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타당한 명제입니다. 좋은 통계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차가 작은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모든 통계에 대한 '오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획 단계에서는 조사 항목이 통계 기획자가 의도하는

대로 응답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몇 차례의 시험 조사를 거쳐 조사 문항의 타당성을 체크하게 되며, 현장 조사단계에서는 현장 조사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지도를 통하여 정확한 조사표가 수집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처리 단계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짓 응답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가려내어 현지 확인을 통한 수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 통계 발간물에 오류 통계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상호 크로스체크를 실시한 후 자료가 발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하여 통계 품질 평가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 품질 평가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 기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가 통계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 품질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통계 품질평가 기법에 대한 선진 해외 사례를 연구·도입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통계청에서는 통계청 통계뿐 아니라 모든 정부 통계에 대한 품질 파악을 위하여 지난 10~11월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에 대한 품질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가 통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통계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통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어려운 통계를 쉽게 활용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통계청에서는 국내에 있는 모든 통계를 한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지난 1999년 이후 '통계바다(Stat-Korea)'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stat.go.kr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국내 통계 작성 기관의 통계 DB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 계열 이상 수록되어 있는 통계 DB(KOSIS)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이용자층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이원화하여 일반 이용자를 위하여 '자주 찾는 통계'를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주제별, 조사별, 색인어 등 다양한 검색 방법 제공,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 등 과거에 실시한 대규모 통계 조사 결과까지 DB에 연결, 다양한 조건에 의한 자료 선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계청 DB는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 선진국 통계 DB에 견주어 정보량이나 검색 방식에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통계 자료를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전국 150여 개의 주요 대학·국공립 도서관에 통계 자료를 보급하고, 통계청 자료실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통계 간행물 판매 센터(20여 개)와 유명서점에서 통계 서적을 판매하고 최근 통계청 홈페이지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안방에서 통계 자

료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계 서적 이외에 전자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 제공 형태를 다양화하여 원시 자료 및 e-book 제공,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발간물 이외에 CD-ROM 통계자료 제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올바른 통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통계 이용자들도 통계를 왜곡하지 말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통계 인식 제고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정보화시대에서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곧 개인의 능력입니다. 통계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과 국가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21세기에는 이러한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통계 인식 제고를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통계 교실을 하계, 동계 방학 중 2~3회 운영하고 있으며, 동명(서울), 옥계(대전), 용남(충남), 죽향(충북) 초등학교를 통계 연구 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 통계 대회와 대학생 통계 경진 대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의 통계 인식 제고를 위해 교사, 언론인, 국회 보좌관,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통계 연수와 응답자 초청 간담회, 조사 협조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 국가 통계의 정확성은 국민의 진솔한 응답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 통계 조사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현장 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정확한 통계는 통계 작성자와 응답자의 공동 작품입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 환경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응답자들의 기업비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이유로 응답 기피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사상 어려움을 이해하여 조사 공무원이 각 가정, 업체 방문시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는 올바른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응답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지난해 대규모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또 올해는 세계통계대회를 준비하시느라 매우 바쁘시겠습니다. 먼저 한 나라 통계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통계청장으로서 통계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랄까 신조가 있으실 텐데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통계 즉 경국지대본(統計 卽 經國之大本)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야말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요. 국가 정책의 기초가 바로 통계이니깐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영, 기업 경영, 개인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것이 통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이 글귀를 걸어놓고 항상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YTN 「경제 초대석」(2001. 8. 20) 인터뷰

- ▶ 8월 22일부터 전세계 통계인들이 모이는 세계통계대회가 COEX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대회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세계통계대회란 어떤 대회입니까.

금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제53차 세계통계대회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의 통계학자, 정부 통계 기관 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이용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계 발전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대규모 학술대회이지요. 저희는 이것을 일종의 통계올림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역사가 매우 깁니다. 올해로서 114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요. 1차 대회가 1887년 로마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2년 주기로 대륙을 달리해 가면서 개최되는데 이번에 서울대회는 53차 대회입니다. 이번 서울대회에는 세계 110여 개 국가에서 약 2,5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대회입니다.

이번 서울대회는 21세기에 들어서 처음 열리는 세계통계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지요. 새 천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모든 부문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계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변혁의 시점에서 21세기의 통계 이슈들이 서울에서 논의된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 대단한 대회군요. 그래서 세계통계대회를 ‘통계인의 올림픽’이라고

하는군요. 새 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 개최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의 의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대회는 21세기에 들어서 처음 열리는 ISI대회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관련 인구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ICT 관련 통계의 국제 교류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인도 등이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한번도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도 국제 통계 분야에서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이번 서울대회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대회의 주요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대회에는 인터넷의 발전과 지식·정보화사회의 이행과 관련한 각종 통계의 발전 추세가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입니다. 인구·사회·경제·환경 분야 등 통계 전 분야를 망라하여 약 9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될 것입니다.

첫째 특징은 새로운 이론이나 이슈들이 집중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와 통계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입니다.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관련한 디지털경제 측정, 전자상거래, 인

터넷 조사, 통계 품질 평가 등에 대한 특별 회의가 진행되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에 대한 특강, 인터넷 데이의 지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두 분이 특강을 하시게 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지요. 시카고대학의 헤커맨(James Heckman) 교수께서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에 있어서의 인과 관계」 문제를 특강하시고 버클리 대학의 맥파든(Daniel Mcfadden) 교수께서 「통계적 모의 실험」에 대한 특강을 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호 협력 방안들이 많이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각국통계기관장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끼리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나 각국의 통계 발전 방향, 선진 통계 기법 교류, 상호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된다는 점입니다.

▶ 이번 세계통계대회는 우리나라 통계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첫째로 이번 대회에서는 약 900여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므로 통계 관련 최신 이론들과 선진 통계 기법들이 논의 될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국내 통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통계 위상이 국제적으로 제고될 것입니다. 통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분야도 발표되고 토론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통계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

셋째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얼마나 잘 극복 해나가는가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대외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 문화에 대해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통계청에서는 이번 세계통계대회를 계기로 일반인들의 통계 인식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나라가 통계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1,4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대회이다 보면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250불씩 참가비를 내고 참가합니다. 외국인들이 약 1,500여 명 참가하는데 이들이 숙박비, 식비, 관광 경비, 쇼핑 경비를 쓰게 되지요.

관광공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하루 평균 약 400불을 쓴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대회기간 동안 약 600만불의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지요.

- ▶ 흔히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윤 청장께서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통계를 집중 개발하여 국제적으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경제, 디지털사회가 보편화되면서 경제·사회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등장하고 있고, 상거래 수단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보화 수준에 따른 소득, 생활 형태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 수요가 예견되어 이에 대한 신규 통계를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첫째 전자상거래 통계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거래 형태인 E-business가 급증하고 있지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기업과 기업간 거래, 기업과 정부간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는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B2B(기업간 거래)통계를 이미 개발, 공표하고 있고 내년에는 B2G(기업과 정부간 거래)통계도 개발 공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정보화 격차 지수 개발입니다. 성별, 연령별, 계층별, 학력별, 지역별로 정보화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또 정보화의 격차에 따라 취업, 소득, 생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파악할 정책적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화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금년에 이미 정보화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셋째로 정보산업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경제 성장의 한 동인으로서 역할하기 때

문에 이의 변화를 파악할 정책적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 산업통계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통계를 포함한 정보산업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넷째로 지식 경제 관련 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R&D 투자, 인력 투자 등 지식 투입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과 지식 기반 산업의 변화·효과 측정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통계를 개발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디지털통계 개발 경험은 국제 사회에서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일본 동아시아 통계 기관장회의, 작년 10월의 ESCAP회의에서 우리의 경험을 발표했을 때 일본 등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선도적 통계 개발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 5월에 호주에서 열린 ICT 전문가 회의에서도 한국의 ICT 통계 개발 사례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통계 선진국으로 도약하자

말하듯

통계 선진국으로 도약하자

1

통계 선진국으로 도약하자

I. 인사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1998년 7월 권역별로 연찬회를 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기는 처음이군요.

이번 연찬회는 본청 직원과 지방사무소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상호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통계청 발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 시대의 물결은 무엇이며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직원 연찬회 연설문(2000. 7. 5/성남새마을연수원)

II. 통계 환경의 변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와 인터넷 시대, 그리고 지식 경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지난 신년사에서 약 1시간에 걸쳐 얘기를 했고 또 신문 컬럼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한 것이라서 어찌 보면 새로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가 완전히 용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시대 변화와 통계 환경의 변화를 살펴 보고 통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디지털 시대의 도래

첫째로 우리에게 지금 디지털 시대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였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디지털 사회인 것입니다.

아날로그(Analogue)란 어떤 물질이나 상태의 변화를 연속적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쉬운 예로 막대 온도계, 바늘 시계, 바늘 체중계와 같이 변화를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디지털(Digital)이란 어떤 물질이나 상태의 변화를 수치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0과 1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이를 신호 체계로 만들어 정보를 보내고 받고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1과 0이라는 숫자

로 모든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체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확성과 신속성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사회가 산업사회였다면 디지털 시대의 사회는 정보화사회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기 때문에 교육도 경험을 중시하고 암기식이었으나 디지털 시대는 정보화사회이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도 암기식이 아닌 정보 파악 능력과 활용 능력이 중시됩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고정적 생산요소가 중요하였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고정적 생산요소에 정보(information)와 지식(knowledge)이 중시됩니다. 통계에 있어서도 아날로그 시대에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였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정확성과 신뢰성뿐만 아니라 신속성을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변신하지 못하면 개인도, 국가도 21C에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경험적 사고가 아니라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경제는 바로 디지털 경제입니다. 디지털 경제의 등장은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경제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를 이해해야 정확한 통계 조사도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시대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의 통계 조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인터넷 시대의 도래

둘째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터넷 시대를 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거리를 파괴하는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공간 거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The death of distance). 그 넓고 넓은 세계(Wide world)는 지구촌(Global village)으로 좁아졌으나 이제는 하나의 촌락 정도가 아닌 지구방(Global room)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아침은 뉴욕에서, 일은 런던에서, 그리고 저녁은 파리에서 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구가 한 마을처럼 좁아져 마치 나들이하듯 여기저기 돌아 다니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방에 앉아서 컴퓨터 한 대 놓고 인터넷으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모두가 내 사무실이요 내 방인 것이지요.

일도 자기 방에 앉아서 하고 회의도 자기 방에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가 촌락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방으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방처럼 거리차도 시간차도 없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 지구방이 된 것입니다. 인터넷의 시대에는 빛의 속도로 일이 처리되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속성을 요구합니다.

통계 조사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조사하고 자료 입력하고 분석하고 하여 시간이 많이 걸렸고 수요자들도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해주었지만 이제는 수요자들이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통계 작성에도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의 시대에는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됩니다. 사고와

행태, 기준도 국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누가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국제적 기준을 먼저 선점하는 나라가 앞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컴퓨터 활용 능력과 영어 능력입니다. 컴맹이 되어서는 정보 찾기, 활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영어를 몰라서는 정보 수집과 활용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에서 이기기 곤란합니다. 인터넷 시대가 진전될수록 기억력보다는 창의력이 중시되고 기억력보다는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시됩니다.

3. 지식 사회의 도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지식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1C에는 지식이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축적된 지식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Peter Drucker, Alvin Toffler). 아날로그 사회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고정적 생산 요소들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했으나 미래에는 지식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지식이란 학식과 다릅니다. 지식이란 자기가 하는 일의 방식을 개선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고집해서 기계적, 반복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혁신적인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통계 업무도 기계적, 반복적 업무이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늘 하던 대로가 아닌 새로운 방식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III. 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상의 변화들이 우리가 부딪히게 될 새로운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통계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 하에서 통계는 정책 결정의 하나의 참고 자료 정도였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통계는 없어서는 안 될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구 패러다임 하에서는 통계는 과거와 현재의 실적을 나타내 주는 지표였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실적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미래 예측 기능까지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통계 조사가 발로만 뛰면 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발과 머리로 뛰는 통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래식 상거래가 통계 조사의 중심이었다면 신 패러다임 하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 형태, 즉 전자상거래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계란 반복적 업무 정도로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반복적이 아닌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IV. 통계 선진국으로 가는 길

과거 한국의 통계 수준은 국내외적으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한국의 통계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상위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상위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통계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세계 톱 텐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톱 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1. 기본에 충실하자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편리성에 있습니다.

1) 정확성

먼저 무엇보다 통계는 정확해야 합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정확한 조사, 정확한 응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조사자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응답자의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임시 조사원들도 조사 지침을 충실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조사지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조사 결과가 잘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바 a)응답자가 잘 몰라서 엉터리 대답하는 경우 b)조사자가 미숙해서 정확한 응답을 못 받는

경우 c)조사자가 고의적으로 현장에 가지 않고 자문자답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고, 정확성의 기초는 현장 조사의 정확성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 신뢰성

다음으로는 통계는 신뢰성이 높아야 합니다. 통계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계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통계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통계청 발표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에 대하여 신뢰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 때는 실업통계나 물가통계에 대하여 체감과의 거리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동안 많은 새로운 보조지표 작성으로 통계와 체감과의 거리를 좁혀 놓아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물가통계의 경우 생필품의 물가 변동을 나타내 주는 생활물가지수 작성, 야채나 어개류와 같은 계절성이 강한 식품의 물가 변동을 나타내주는 신선 식품 물가지수, 구입 빈도별 물가지수 등의 보조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실업통계에 있어서도 주지표인 ILO 실업률 이외에 구직 활동 기간을 1달로 보는 OECD 기준 실업률, 비경제 활동 인구 중 구

직 단념자(실망 실업자) 발표, 주당 18시간 미만의 불안전 취업자 등등 각종 보조지표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보조지표들은 물가나 실업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 통계와 체감과의 거리를 좁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과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의 조사, 자료 처리, 분석 방법을 보다 개선하여 전문가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여 일반인들의 오해도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통계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통계청의 존재의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야 할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위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셈이 됩니다.

3) 신속성

또한 통계 결과는 필요할 때 제공되어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흔들어서야 무의미합니다.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처방전을 들고 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시의성이 있어야지요. 신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조사와 자료 처리, 그리고 분석 기간을 단축하여 통계 자료 제공에 대한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방식을 지금까지의 Paper survey에서 Paperless survey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 동향 조사에서 컴퓨터

를 활용한 CAPI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성을 제고하였습니다. CAPI를 처음 도입하려고 하니깐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반대했습니다.

현장 조사원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업 통계가 과거보다 2주일 정도 빨리 나옵니다. 신속성이 높아진 것이지요. 우리는 통계 조사 방법면에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CAPI, CASI, 사업체 직접 입력 등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4) 편리성

통계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고 찾는 데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사장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니까 자료 제공 방법이 인터넷 시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을 간행물로 제공하는 방법 외에 CD-ROM이나 인터넷 등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자료를 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통계 바다(Stat-Korea)」를 잘 발전시켜 누구나 쉽게 통계 자료를 찾고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만 익숙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생경한 전문 용어들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5) 통계 품질의 제고

우리는 현재 만들고 있는 통계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양적인 면에서든 질적인 면에서든 우리가 만드는 통계를 재검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선진국 수준의 통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적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통계 품질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통계의 품질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를 보완하여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통계의 품질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통계 이론이나 제도, 조사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의 통계 조사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도 그들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올라가야 합니다.

2. 새로운 통계인으로 다시 태어나자

우리가 통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능력을 배양하자

먼저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컴퓨터 이용 능력은 기본이고, 영어 사용 능력을 향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영어 능력은 필수불가결입니다. 통계 분야만큼 국제화된 분야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사무관이 자기 업무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알지도 못한다거나 외국의 이론, 방법을 읽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일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보내고 싶어도 영어가 안 돼서 못 보냅니다. 영어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국제회의나 세미나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의 내용을 알면 영어가 안 되고 영어를 할 줄 알면 일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국제과장이 나에게 야단을 자주 맞습니다. 국제회의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을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을 추천해 오면 “이 분 영어가 됩니까”라고 물으면 “예, 필리핀에 3개월 코스 연수 다녀왔습니다” 또는 “일본 SIAP의 6개월 코스 연수 다녀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도 잘 하시겠지만 연수 몇 개월 다녀왔다고 말이 술술 나오니까? 귀가 뻥 뚫려집니까? 결국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 병어리 냉가슴 앓듯 하다가 돌아옵니다.

이래 가지고는 조직 발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관 되려거든 2년 내에 TOEIC 560점을 확보하라고 하니까 불평 불만들이 많습니다. TOEIC 560점,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공무원 단기연수 가려면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점수가 560점입니다. 영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자

둘째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

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일해야 합니다. 통계의 기획, 현장 조사, 자료 처리, 분석,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각에서 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 해도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CAPI나 CASI 등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인력 탓, 하는 공무원식 사고를 벗어나야 합니다. 민간 각종 기법도 연구해야 합니다. 또 개인의 지식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의 창출뿐만 아니라 공유, 조직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자부심과 긍지를 갖자

셋째로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국가 정책이 잘못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나 하나 적당히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 하나 잘못되면 국가 정책이 잘못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청은 일선에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 다양한 직렬들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별정직과 계약직은 나름대로 고민과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열심히 하면 일반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계약직의 경우 3년 뒤를 불안해할 것이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분 보장도 되고 승급도 됩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일 잘하는 계약직들은 오히려 일 못하는 일반직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자

다음으로 크게 세 번째로는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1) ISI대회의 성공적 추진

이제 1년 후면 세계통계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위상과 능력을 통계인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자로도 나서고 사회도 보시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회는 비단 국제 과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오불관언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역할이 주어질 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ASF의 발전 방안 강구

지금 세계의 통계계는 유럽과 미국 양대 산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은 인구도 많고 나라 수도 많지만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습니다. 유럽과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개념을 그냥 따라가기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권은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고 경제발전면에서도 선진국과 후진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통계포럼(Asian Statistical forum)의 창설이 필요함

니다.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개인이 국제화되어야

우리는 사무관 이상이면 누구든지 자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에 나가서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회의나 세미나, 또는 외국과의 업무 협의는 국제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통계청은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은둔의 나라, 은둔의 통계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인이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4. 남북 협력 시대를 대비하자

네 번째로 우리는 남북 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닥쳐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 사회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북한 사회에 대한 구체적 통계 자료가 없이 통일이 닥쳐오면 그야말로 캄캄한 밤중을 등불 없이 걸어가는 격입니다.

그 동안 북한 통계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해 오고 있지만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시의 통계 통합 경험 등에 대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통일에 대하여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합시다.

V. 2000년의 10대 과제

이제 금년도의 주요한 10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10대 과제는

- 1)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실시
- 2) New-Stat 21의 착실한 추진
- 3) 통계 품질 평가 제도의 시행
- 4) 지식 기반 서비스업, 정보산업 통계의 개발
- 5) 전자상거래 통계의 개발
- 6) 전자 조사 방식의 확대
- 7) 정보화 수준의 제고, Stat-Korea의 보완 발전
- 8) 환경 관련 통계의 개발
- 9) ISI대회의 착실한 준비
- 10) 통계청 CI의 개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 10대 과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10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VI. 맺음말

통계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21세기에는 통계 선진국을 만듭시다. 우리 모두 새로운 통계인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통계청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합시다.

통일 대비하여 통계 통합 방안을 연구하자

Her mann Glaab 씨를 비롯한 독일 연방 통계청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본 워크샵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갑자기 다가올지도 모를 통일에 대비하여 통계 부문에서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동서가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였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에는 독일 민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민족의 염원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 대비 통계 통합 대응 방안 한·독 워크샵(1998. 6. 10) 인사말

우리에게 다가올 통일을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치밀한 준비는 통계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통일 정책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통계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 분야야말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남·북한간 비교 가능한 통계를 확보하며, 이질적인 통계 작성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의 마련 등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독일 연방 통계청의 귀하신 손님 세 분을 모시고 독일의 통일에 따른 통계 통합에 대한 경험을 듣고, 아울러, 북한 통계의 실태와 문제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 동독의 통계 체제의 전환과 동·서독간의 통계 부문의 통합을 주도해 온 독일 연방 통계청의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과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최되는 워크샵에서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워크샵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의장을 맡아주신 안석교 한양대학교 교수님,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발제자로 수고해 주실 독일측 Hermann Glaab 독일

연방통계청 베를린 지청장님, Gunter Kopsch 통계기준국장님, Oswald Angermann 산업·환경통계국장님, 그리고 고일동 KDI 북한경제연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자로 나오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박상태 서강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통일부 홍성국 과장님, 통계청 김상식 통계조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진순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통계학회 충청지회와 충북개발연구원이 상호 합심하여 지역 통계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의 주제 세 가지 중에는 지역 통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청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통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지역 통계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고 있는 통계연보에 대한 표준화 작업, 지역 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 지원, 통계 홍보의 강화, 지역 통계 생산의 확대, 통계 자료 이용방법의 개선, 통계 연

수 기능 강화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지역 통계가 갖추어지기까지는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조언과 지적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통계청의 대전청사로의 이전을 계기로 한 차원 높은 지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학계, 연구기관이 상호 합심하여 지역 통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통계학회 충청지회장 및 회원 교수님, 충청북도지사님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국가 통계 기관과 국제기구의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대학에서 오신 고명한 교수님, 신사 숙녀 여러분! 한국의 통계청장으로서 이 세미나를 위해 먼 길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는 통계 국제 세미나에서 개최사를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세계 각국과 저명한 정부 통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 들어서 각국의 정부 통계 기구 종사자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빈발함에 따라 통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은 의사결정과 수립된 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세분 된 자료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통계 생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 및 인적자원 문제에 있어서도 큰 제약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통계 조사의 응답자들도 통계 조사의 응답 부담에 대하여 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아시아와 남미의 외환 위기 상황은 정부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서두르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 통계 담당자들은 기업의 생산물처럼 국가 생산물인 통계에 대해서도 품질의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국제 통계 기관과 각국 정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통계의 품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에서 품질 관리를 위해 고안된 TQM 방식을 통계 품질 관리를 위해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또 다른 국가에서는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특정 통계의 평가를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 통계 조직 내에 통계 품질 관리를 전담할 조직을 새로 설치하는 형태도 생겨났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품질 평가 용어의 개념 정립, 평가 지표 선정 등의 표준화 작업에 많은 관심이 표명되었습니다.

또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 위기의 한 원인으로 통계의 투명성 결여가 지적되면서 대한 국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일부 선진 국가의 통계 기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오던 통계의 품질 문제가 국제 통계 기구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표적 국제 통계 기구인 IMF, Eurostat, UN 통계처 등의 주도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전문가 그룹 회의, 통계 기관장 회의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국제기관들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각국 통계 기관에서 통계 품질 문제를 그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통계 품질 평가 표준화에 많은 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들 국제 기관의 주도하에 각국 전문가 집단의 토의를 통하여 통계 품질 관련 용어의 정의,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의 그룹화, 비표본 오차의 측정 방안, 품질 평가 지표의 선정 등에 대하여 많은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지역에 대해서는 Eurostat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ECE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지표의 골격을 정한 품질 보고서(Quality Report)를 작성하는 등 현저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또 IMF에서는 UN 통계처와 각국 전문가들의 협력작업으로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차원, 평가 요소의 선정과 국민 계정 등 활용도가 높은 통계에 대한 상세한 평가 지표의 표준안 작업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통계 품질 평가 문제는 그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통계의 품질 문제는 성격상 그 개념 정의의 통일부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정부 통계의 경우 주된 이용자가 누구인지 때때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서로 다른 사용 목적을 가진 다수의 이용자가 존재할 때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 통계를 작성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통계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잣대로 그 통계의 품질을 측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내용의 통계라도 나라에 따라 조사 항목, 작성 주기, 작성 방법 등이 서로 다를 경우가 많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측정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통계 품질 평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몇 나라에서 자국의 품질 평가 경험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또 UN, IMF 등 국제기관에서도 품질 평가의 공통적인 기준 설정을 위한 방향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각국 및 국제 기관의 사례 발표와 상호 토론을 통하여 우리는

통계 품질 평가에 있어서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하여 자국의 품질 평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위하여 귀중한 논문을 보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표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faint text)

오늘 통계청의 대전 청사 이전을 계기로 이곳 통계청에서 한국통계학회 총회와 학술 논문 발표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총회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문열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께 통계청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계청은 지난 7월말에 이곳으로 이전하여 대전 청사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 행정의 발전사를 더듬어 볼 때 경운동 시대(1961~1991)는 통계 행정의 기초를 마련한 시기였으며, 역삼동 시대(1992~1998)는 통계 행정의 기틀을 다진 시기라고 볼 수 있

한국통계학회 정기총회 축사(1998. 11. 6/대전청사)

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대전 청사 시대는 통계 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도약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의 통계학회 총회와 학술 논문 발표회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통계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통계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통계행정의 정책 방향을 4C에 두고자 합니다

① Credibility

저는 통계 행정의 첫째 목표를 신뢰성 제고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통계의 Credibility 문제는 통계의 영원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 행정 당국에서도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면서 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통계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이외에 생활물가지수, 구입빈도별지수, 신선식품지수 등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시장 형태 변화, 소비 패턴변화도 조사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통계의 경우, ILO 기준 실업률 이외에 취업자의

경우는 취업 시간대별 취업자 수, 추가 취업 희망자 등을 발표하여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업자의 심층분석을 위한 부가 조사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OECD 기준 실업률도 공표할 예정이고 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PAPI 방식 대신 CAPI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의 통계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책자, 비디오 제작 등 홍보 활동과 언론인, 소비자 단체, 국회의원 보좌관 등 직능 단체에 대한 통계 연수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통계 수준을 60~70년대의 후진적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 행정 수준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② Customer-Oriented

통계 행정의 두 번째 목표는 Customer-Oriented입니다. 정책 당국자나 통계 수요자들이 원하는 통계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은 경제·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각종 신규 통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입니다. 이 지수는 각국의 공식 환율 뿐만 아니라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경제력 평가 기준입니다. 이 PPP 작성을 위해 금년 8월부터 식료품, 내구재, 의류 등 381개 품목의 가격 조사를 실시했고 서비스업 등 나머지 품목은 2000년까지 조사하여 2002년경에는 분석 자료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생활시간활용조사〉는 국민들이 하루의 생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조사, 복지정책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아직 개발 중이라 우리의 조사방법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 통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각종 지역 통계의 수요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고용 동향, 지역별 소비자물가 가격 자료 등을 공표 중이고, 시·도 단위의 지역별 경기지수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통계학회 충청지회가 개최한 〈지역통계활성화방안〉 세미나 같은 것도 관·학이 협동하여 Customer가 원하는 통계를 개발·발 전시키기 위한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③ Convenience

통계 행정의 셋째 목표는 Convenience, 즉 이용의 편리성에 두고 있습니다. 통계라는 것 자체가 딱딱하고 골치 아픈데,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마저도 골치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그림이나 도표 등을 이용, 통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제공 방법도 간행물보다는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천리안, 하이텔 등 VAN을 이용한 통계DB 이용, 통계청 DB인 KOSIS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통계청 홈페이지에만 들어오면 우리나라 103개 기

관 380여 종의 통계를 한 군데서 찾아 볼 수 있는 윈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User들이 Convenient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④ Cooperation

통계 행정의 네 번째 목표는 통계청 이외의 통계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국제 협력, 관·학 협동 등이 모두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점차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이때 세계의 여러 나라, 여러 기관과 통계 정보의 교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흐름을 신속·정확하게 분석하여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고, 우리가 생산하는 통계가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통계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하고 조사 기법을 선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 ESCAP, UN 등과의 협력과 한·독, 한·일, 한·중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통계학회와의 각종 세미나 등 관·학 협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나, 통계 기법 개발 등 기술적으로 통계청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으리라 생각되고 통계청 또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금년 12월에 UN과의 협력하에 인적자원계정

(Human Resources Account)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세미나가 12월에 대전청사에서 열립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동북아 지역 Regional Conference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ISI 53차 회의가 2001년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ISI서울대회는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통계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SI대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각종 국제회의에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국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ISI 회장, 부회장, 임원진도 나와야 하며 우리도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네 가지 방향, 4C를 통계 행정의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통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통계학회와 통계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합심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통계청과 일체감을 가지고 이해하며 지원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통계 행정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구하고 발전시켜 온 것을 더욱 내실 있게 가다듬는 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는 일은 학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모두의 과제입니다. 학계에 계신 여러분의 도

움이 없이 우리들의 실무 경험만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균형 있게 발전할 때 그 성과도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학계가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선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통계인 모두의 노력이 결집되어서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이 관·학 협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우리들의 협동정신을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학회와 통계청이 함께 하는 행사가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불충분한 시설이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불편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직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친애 하는 통계청 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천년이 시작되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새 천년의 의미와 통계 환경의 변화

1. 새 천년의 의미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 순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2000년은 단순히 달력상으로만 한 천년이 지나고 또 다른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00년 신년사(2000. 1. 3/대전청사)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지의 발달로 새 천년에는 인류가 유토피아와 같은 살기 좋은 이상향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온 지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앞으로의 천년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속하여 인류사회에 어떤 변화, 어떤 발전이 일어날지 실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전된 상태에 가 있으리라는 추측 정도만 할 따름입니다. 동양식 표현으로는 무릉도원이요, 서구식 표현으로는 유토피아와 같은 인간이 살기 좋은 이상향이 오리라는 것을 추측만 해 볼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지구의 종말이니 인류의 멸망과 같은 비관적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인류는 멸망이 아니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이상향과 같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내리라는 긍정적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2. 새 천년의 통계 환경 변화

그러나 향후 천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미리 헤아려 본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미리 그려본다는 것도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만큼 기술발전이나 문명의 진보가 빠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 10년 이내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향후 통계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디지털 시대의 도래

앞으로의 사회는 디지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급속히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였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디지털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날로그는 어떤 물질의 변화를 연속적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막대 온도계, 전압계, 바늘 시계, 바늘 체중계 등을 들 수 있겠으며 디지털은 어떤 물질의 변화를 수치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수치 온도계, 숫자 시계, 숫자 체중계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아날로그 시대는 토지·노동·자본의 생산 요소와 반복적이며 기계적인 숙련이 주된 생산 수단이 되는 산업사회로 경험과 암기식 교육이 중시되며 방향성과 근사치가 큰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디지털 시대는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지식·정보가 중심이 된 정보화사회로 아이디어와 창의적 교육이 중

시되며 정확성과 정밀성, 신속성이 가장 큰 특징을 이룹니다.

각종 기기, 상품 등에서 이미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구조, 산업구조, 사회구조, 의식구조도 디지털화 해 가고 있으며 전세계가 빠른 속도로 모두 디지털화 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여 변신하지 못하면 개인도, 국가도 21C에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 경제는 디지털 경제입니다(Digital Economy=New economy). 디지털 경제의 등장은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경제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경제를 이해해야 통계 조사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수많은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있지만 오늘날의 미국 경제성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플레이도 없고 실업도 없으면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는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성장에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The Emerging Digital Economy). 과거에는 거대 토지, 거대 자본, 거대 노동력으로 경제활동을 이끌어 왔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작은 공간, 소규모 자본, 소규모 인력으로도 경제 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종업원이 673명인 야후의 시가 총액이 339억불인데 반해 종업원이 23만명인 보잉사의 시가 총액이 358억불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관련 기업의 급부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속성, 정확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21C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이해 못하면 우리는 통계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인터넷 시대의 도래 - 지구방(地球房)화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좁아지면서 공간 거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The Death of distance 시대). 넓고 넓은 세계(Wide World)에서 지구촌(Global Village)시대를 지나 지구방(Global Room) 시대로 변한 것입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세계는 너무나 넓고 멀었습니다. 세계의 끝이 어딘지조차 모를 만큼 넓고 멀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우주의 끝간 데를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신대륙의 발견은 인류에게 세계를 넓혀 놓았고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인간의 왕래와 교류에 있어서 공간 거리라는 것은 매우 큰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시간 문제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처럼 구시대의 공간 거리는 실로 매우 큰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 공간 거리도 정복되기 시작했으며, 멀고도 넓은 세계가 점차 좁아져 더 이상 머나먼 세계가 아닌 지구촌(Global Village)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마치 이웃집 드나들듯 미국도, 구라파도 쉽게 왔다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는 공간 거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는 더 이상 지구촌이 아니라 지구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는 그래도 이웃집 나들이를 가야할 정도로 공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나들이가 필요 없고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The Death of Distances).

방안에 앉아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방안에 앉아서 외국 기관들에 들락날락하면서 자료 조사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하고 외국인과의 의사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같으면 비행기 타고 출장을 가야 할 일도 이제는 갈 필요가 없이 인터넷으로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광속으로 일이 처리되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신속성을 요구합니다. 통계 조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인터넷 시대에는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입니다. 사고와 행태, 기준도 국제적인 것 즉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만을 들여다보고 일할 것이 아니라 외국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국내와 국외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으며, 전 세계가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 국외 시장이 없어지

고 있기 때문에 국내가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국내 자본과 국외 자본이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 시장이 단일화하면서 각종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통합되어 갈 것입니다.

각종 제도나 관행이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되게 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생존이 안 될 것입니다. 새로운 분야에서는 누가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며, 먼저 선점하는 나라가 앞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컴퓨터 사용 능력과 외국어 능력입니다. 컴맹이 되어서는 정보 찾기가 불가능하고 영어를 제대로 못하면 정보 수집과 아이디어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촉진되면 될수록 암기력보다는 창의력이 중시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보의 단순 암기보다는 정보의 소재를 알고 정보를 찾아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쓰는 창의력이 우선 됩니다.

3)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시대의 도래
디지털 사회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지식이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국가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개인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지식이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지식(Knowledge)이란 단순히 아는 것(Knowing)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변혁(Renovation)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방식대로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해서 생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 모색에 있어서도 기계적이며 반복적이 아닌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세계는 이 지식 기반 경제로 이행해 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될 것입니다.

우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경험론적 접근과 기계적이며 반복적인 접근이 아니라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린카드 제도도 이러한 창의적이며 혁신적 업무 수행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4) 고령사회의 도래

앞으로의 사회는 고령사회가 됩니다.*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질병들이 상당 부분 정복되고 어쩌면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인간 생명의 근원적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 수명이 연장되고 점차 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령사회가 되면 사회구조와 산업구조도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통계 조사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5) 개인주의의 심화

디지털 문명, 인터넷의 발달은 극심한 개인주의를 불러올 가능

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자주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면적 관계, 즉 학교 동창, 직장 동료와 같은 집단적인 관계에서 인터넷을 통한 개인주의적 네트워크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오직 나만 있고 타인은 의식할 필요가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만 살다보면 개인만 있고 이웃이나 집단은 없는 극심한 개인주의가 만연될 수 있습니다. 우정도 사랑도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인간관계는 없어지고 개인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는 극심한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전후 좌우를 생각지 아니하고 사고의 중심에는 오로지 나만 있으며 무엇이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극심한 개인주의가 심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우리는 기존의 통계 조사의 접근 방법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II. 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상의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가 부딪히게 될 환경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천년, 백년 후의 일이 아니라 금방 눈앞에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통계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의 패러다임 하에서의 통계가 과거 지향적이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통계가 과거의 실적치를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 하에서의 통계가 정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시되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정확성과 신뢰성에 더하여 신속성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통계 작성에 있어서도 과거 패러다임 하에서는 주로 발로 뛰는 조사였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발로만 뛸 것이 아니라 머리로 뛰어야 할 것입니다.

통계 조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전통적·재래식 상거래가 중심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전자상거래(E-business)라는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패러다임 하에서는 기계적·반복적 접근으로 통계가 만들어 졌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창의적·혁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2. 구체적 변화 사례

이제 우리 통계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변화를 단계별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조사 방법

현장 조사 방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사 방법은 종이 조사표를 들고 현장 조사하는 방법에서 전자 조사 방식(Paperless Survey/Eletronic Survey)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컴퓨

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장 조사 요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할 것이며, 현재 경찰 조사 이외에 다른 조사에서도 CAPI, CASI 조사 방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자료 처리, 보관 방법

현장조사가 전자 조사 방식으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자료 처리 방법에서도 인력이 절감되고 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또한 조사 자료 보관 창고가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사 지하2층 문서 보관 창고에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 자료들이 컴퓨터 안으로 모두 들어가고 이 장소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생산적일 것입니다.

3) 조사 내용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전자상거래(E-business, E-commerce) 통계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 중요한 문화산업 통계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화 진전에 따라 급속히 발전할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컨텐츠 분야도 통계가 작성되어야 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통계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Green GDP, 환경종합지수 등 환경 관련 통계,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관련한 사회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는 복지 관련 통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과거 실적치 위주의 통계 작성에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4) 자료 제공 방법

자료 제공 방법에 있어서도 간행물, CD-ROM 이외에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3. NEW-STAT 21

이러한 통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21세기에는 새로운 통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철학을 담아 만든 것이 'NEW STAT 21 계획'입니다. 이것은 21세기에 있어서의 새로운 통계(New Statistics in the 21st Century)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것은 21세기에 통계청이 새로운 통계청으로 변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또한 이것은 통계 행정의 목표를

- ① N-수요에의 부응(Need),
- ② E-능률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③ W-전 직원의 동참(With)
- ④ S-신속성(Speed)

⑤ T-새로운 기법의 도입(Technology)

⑥ A-정확성 제고(Accuracy)로 설정하고

⑦ T-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우리의 통계 및 통계청을 한 단계 도약(Take-off) 시키자는 뜻의 영문 이니셜을 조합한 우리 청의 '업무 혁신 운동'입니다.

이것은 21세기를 시작하면서 통계청 업무 혁신 운동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21을 사용했지만 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1개 과제를 수행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각 과의 아이디어와 각 과장들을 포함한 간부들의 토론을 통해 성안된 것인 만큼 각 과에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년 10대 과제

'NEW-STAT 21'을 중심으로 금년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2000년 업무 계획을 만들었고, 그 업무 계획 중 금년에 추진해야 할 10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①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실시

② New Stat-21 계획의 착실한 추진

③ 통계 품질 평가 제도의 시행

④ 지식 기반 서비스업, 정보산업 관련 통계 개발

⑤ 전자상거래 통계의 개발

⑥ 전자 (Electronic Survey)의 확대

⑦ 정보화 수준의 제고, Stat-Korea의 보완 발전

⑧ 국제화 수준 비교

⑨ 환경 관련 통계의 개발

⑩ 물가통계의 개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 새로운 통계청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통계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의 자세와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통계청 CI를 개발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통계청 직원 여러분!

하루를 얼마나 보람있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아침에 세운 계획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금년은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천년을 대비한다는 결의와 각오로 계획한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해가 되도록 합시다.

기존의 고정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변화의 방향과 조류를 잘 파악해서 우리의 업무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합시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여의주를 입에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바 모두를 이루는 소망성취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친애 하는 Van Zwet 국제통계기구(ISI) 회장님, Jean-Louis Bodin 차기 회장님, ISI 회원님들과 분과 회원님들, 그리고 모든 참가자 여러분!

제52차 헬싱키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신 핀란드 국가조직위원회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동 대회가 절찬 속에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본인이 한국 국가조직위원회 의장으로 여러분을 2001년 8월에 열리는 제53차 서울대회에 초청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회 개최는 ISI 집행위원회와 한국 정부와 협약하여 1997년 이스탄불 대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회는 인류가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열리는데, 새

제52차 ISI대회시 서울대회 초청연설(1999. 8. 13/헬싱키)

천년은 인류에게 자유, 평화,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계는 이러한 인류의 새 천년의 궁극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통계 없이는 그러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국가 정책의 입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날로 절감되고 있는 만큼 통계는 중요합니다.

새 천년은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과 긴박한 이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류는 통계의 새로운 목표, 새로운 통계 분야 및 새로운 통계 기법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천년을 새로운 통계로 시작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새 천년에 처음 열리는 ISI서울대회는 그 의미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기 ISI대회가 열리는 서울은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과 발전된 현재가 공존하며 더 나은 미래로 뻗어나가는 국제도시로, 성공적인 ISI대회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됨을 확신합니다. 한국조직위원회는 차기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2년 후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적 환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고대합니다.

새로운 세기는 새로운 통계로 시작합니다

1. 서

존경하는 이한동 국무총리님! 그리고 진념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 제53차 세계통계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개회식에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Jean-Louis Bodin ISI 회장님! Richard Gill 학술 프로그램 위원장님! 그리고 전세계에서 오신 2,000여 세계 통계인 여러분!

이번 제53차 서울세계통계대회의 개최를 선언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 대회의 국가조직위원장으로서는 한국국가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53차 세계통계대회(ISI) 개회사(2001. 8. 22/서울 COEX 컨벤션센터)

2. 서울대회의 의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초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뜻깊게도 114년의 역사를 가진 ISI대회가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면서 그 첫번째 대회를 이곳 서울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ISI 서울대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대회는 '21세기 최초의 ISI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ISI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패러다임이 논의되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대회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여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통계 문제가 많이 논의됩니다. 학술 프로그램에는 정보화사회와 관련된 주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8월 28일과 29일은 '인터넷 데이'로 지정되어 인터넷과 관련된 주제들이 토론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회의가 24일(금) 저녁에 열릴 예정입니다.

3. 정보화 사회와 통계의 역할

이제 정보화시대에서의 통계의 역할에 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통계는 바로 정보이면서 동시에 지식입니다. 통계는 역사적 관점과 동시에 현실에서 사회 변화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정보화 사회가 대두되면서 통계에 관한 새로운 요구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기술혁명으로 인류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정보기술의 성장, 전자상거래의 급증, digital divide의 출현, 서비스 부문의 성장, 지식 기반 경제의 중요성 증가 등 수많은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발전을 설명해 줄 새로운 통계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통계 역시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에 따라 보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보다 높은 품질의 통계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 통계 작성의 전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되면서 통계의 품질은 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연관성이 높으며, 신뢰성과 시의성이 높은 통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통계 측면에서도 새로운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면접조사법보다는 전자메일 등 전자 조사를 더욱 선호할 것이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가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기, 21세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통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현실화되기도 하였고 또 앞으로 곧 현실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통계인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여,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하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통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통계로 새로운 21세기를 시작합시다.

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환영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James J. Heckman 시카고대 교수와 Daniel L. McFadden UC버클리대 교수, 이 두 저명한 학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는 8월 27일 오후 기조연설을 하시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연설이 ISI 서울대회를 보다 의미 깊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분들의 초청을 성사하는 데 도움을 주신 Jean-Louis Bodin씨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한국 통계의 역사, 체계 및 활동

이 자리를 빌어, 저는 한국의 통계 역사와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계의 시작은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BC 59년 가구에 관한 통계 기록이 남아 있으며, AD 8세기부터 3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대적 형태의 통계제도는 19C 말부터 시작되지만, 오늘날의 통계제도는 1945년 정부 수립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통계 제도는 분산형으로 공공 및 민간의 135개 기관에 의해 416종의 공식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며 통계청은 그 중 55종을 생산합니

다.

한국 내 172개 대학에 63개의 통계학과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3,000명의 통계학 전공 졸업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통계학회와 대한통계협회의 두 기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 서울 소개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는 한국과 서울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서울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곳 서울은 6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고도(古都)입니다.

서울은 1394년에 조선 왕조의 수도가 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중심 지역으로 한국의 심장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서울은 1988년 하계 올림픽을 비롯한 많은 국제 행사가 개최된 지역이며, 2002년에는 서울을 비롯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머무르시는 동안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한국을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세계통계대회가 열리는 이곳 COEX는 2000년 10월에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아시아 및 유럽지역의 정상들이 모여서 상호 협력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던 역사적인 이 곳에서 53차 세계통계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7. 맺음말

ISI서울대회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ISI사무국, 한국통계학회, 대한통계협회, 통계청, 인터컴 및 허시엔터테인먼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서 대회 기간 동안 건강하고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역사,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가시기 바라며, 이번 ISI서울대회 참가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오랜 추억으로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자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를 앞두고 총조사의 성공을 위한 전직원 결의대회를 가지면서 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년여에 걸친 인구주택총조사 준비는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전파매체를 통한 TV CF, 대담 출연과 신문광고 등 대대적인 집중 홍보로 총조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9월 중순부터 실시한 읍면동 공무원, 지도원 및 조사원 교육이 어제 수도권 교육을 마지막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교관 요원으로 참가한 직원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많은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기본 통계 조사로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복지사회 이행에 따

2000 인구주택총조사 전직원 결의대회(2000. 10. 27/대전청사)

른 기초 자료를 파악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그러나 총조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인 조사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 예상되는데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확대, 부채 가구의 급속한 증가 및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일선 읍면동의 통계 기능 약화 등입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기간 중 국정감사가 실시됨으로써 업무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번 총조사는 역대 총조사 중 가장 어려운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청도 열악한 조사환경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다고 봅니다.

먼저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 TV 광고, 언론기관 설명회 등을 통하여 총조사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총조사 완료 전까지 읍면동 기능 전환 유보 조치 및 통계 담당자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 청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침병이 되겠다는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조사 현장의 실사 지도에 투입되는 전 직원은 담당 지역을 절대 이탈하지 말고 업무에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특히 조사의 누락,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원과 지도원을 지도 관리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념하기 바랍니다. 셋째,

총조사 추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문제 발생시 본청 상황실로 보고하여 초동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조사요원과의 업무 수행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간 지방 출장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애로가 많을 것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통계청 공무원으로서의 절도와 품위를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 등 지방 출장에 따른 안전사고와 환절기의 건강 관리에도 최대한 유의하기 바랍니다.

우리 청 직원이 모두 모인 자리이므로 인구주택총조사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1월 6일에 실시되는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하며 국감일정이 총조사 실시 기간과 겹쳐 직원 여러분들의 애로가 많을 것이나, 이번 국정감사는 16대 국회가 성립하고 처음 열리는 만큼 의원들도 국정감사에 열과 성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각 과장들은 기획과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를 치밀히 파악하여 최소의 인원으로 국정감사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기를 당부하니 특히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동향, 물가, 실업, 현장조사 감독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의 입장에서 다양한 질의·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주택총조사로 다수 인원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하여 본부 근무 직원의 근무 분위기가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하여 개점 휴업인 상태가 절대 아님을 명심하

길 바라며, 오히려 사무실에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은 공식중인 직원의 업무 내용까지 잘 파악하여 외부 민원 제기시 적시에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 과에서는 경상통계 조사의 현장조사 확인 등 치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인천사무소 조사 직원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본부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각종 통계 조사가 예정된 기일 내에 완료된 것에 안도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통계 조사 결과가 이용자에게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특히 현장 단계의 정확성 확인에 최대의 노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제 2000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으므로 연초에 세웠던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0~11월에는 거의 전 직원이 인구주택총조사 업무에 동원되어 각과의 경상업무나 개선 업무 추진에 다소 소홀해졌을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연초의 업무 스케줄 이행 상태를 잘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과, 기획과를 중심으로 12월에 실시되는 국제 품질 평가 세미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내년에 열리는 세계통계대회 준비도 직원 여러분이 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구총조사 현장 조사가 끝나더라도 내용 검토, 자료 처리 등 후속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제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를 위한 예비시험은 모두 끝났고 본시험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본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멀리 지방으로 출장 가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총조사가 성공리에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길 당부 드립니다.

농어업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자

각자 맡은 업무가 과적한 가운데 이번 농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교관 요원으로 참여하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000 인구주택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농어업총조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농어업총조사는 농·어업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 조사이며, 1960년도에 농업국세조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 10년 주기로 실시하여 농업은 여섯 번째, 어업은 다섯 번째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로서, 국제적으로도 약 13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농어업총조사 교관단 교육 인사말(2001. 2. 13/대전청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60년대에는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농·어가에 거주하였으나, 국가 경제의 고속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농·어가 인구의 비중이 10% 이하로 격감하는 등 외형적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어업은 우리 마음의 고향인 동시에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산업이며, 환경을 보전해 줌과 동시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는 터전이 되고, 또한 2, 3차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농·축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며, 도시에서 직장을 잃은 일부 인력들을 흡수해 줄 수 있었던 곳도 농·어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농·어업 부문은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되어 시장 지향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지식·생명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응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식 기반 농·어업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농·어업은 이제 생산·가공·유통까지 연계되는 종합산업으로, 농·어촌은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활기 있는 생활공간이자 산업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업의 주변 여건과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2000 농어업총조사에서는 친환경 농업, 농·어가의 정보화 현황, 주거 및 생활 환경 등과 같은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개선하여 보다 정확하고 경제적인 조사가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농어업총조사는 우리 청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우리는 철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하고 유용한 자료를 생산,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현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현지 조사원의 민원 접수 사항 중 상당 부분이 교관의 교육 내용이나 방법, 자질 등과 관련된 사항임을 볼 때 교관 여러분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담당 공무원은 물론, 조사원에 이르기까지 현지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하여 중앙 교관단이 직접 실시토록 하였으며, 교육 교재의 편성, 교육 방법 및 시간 등을 개선하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교관단 훈련을 이곳 천안까지 와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교관의 말 한 마디가 현지 조사는 물론, 총조사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각별히 명심하여 이번 교관단 훈련 기간 중에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관 여러분은 현지 조사원에게 보이는 2000 농어업총조사의 얼굴이며, 통계청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현지 교육 과정이 통계인과 통계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00 농어업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음 주부터 실시되는 현지 교육 기간 동안 사고나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 하는 서영희 회장님! 정세욱 위원장님!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BPW 국제연맹회장님인 Dr. Pat Harrison과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수상 인사에 앞서, 현재 각계 각층에서 전문직으로 눈부신 활동을 하시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영희 회장님과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모든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영예스러운 상을 통계청을 대표하여 받게 된 데 대하여 통계청 전 직원과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의 증대가 더욱 요구되어 집니다.

전문직여성클럽 'Gold Award' 수상 인사(2001. 2. 26)

21세기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역할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도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청에서는 일찍부터 여성 인력의 활용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첫째로 여성들의 무보수 가사노동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2000년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업주부들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 39분 동안 가사일에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나라가 작성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여러분과 같은 전문직 직장 여성들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들의 무보수 가사노동도 GDP에 반영될 수 있는 기초 통계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로, 1997년 이래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매년 공표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취업·혼인·출산·육아·여가생활·사회적 지위 등 여성들의 역할이 생애 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각종 통계를 작성하면서 모두 Gender를 구분하여 작성함으로써 사회 각 부문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사회참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이 모두 여성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넷째로, 저희 통계청에서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 정원의 39%에 달하는 647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습니다. 본청 국장으로부터 과장, 사무관, 그리고 조사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급에서 남·여 구분 없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일하고 승진·보수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번 수상의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면서, 별로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통계청은 각종 통계 활동을 통해 여성들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BPW Korea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상이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BPW Korea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수상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친애 하는 통계청 직원 여러분! 오늘 제6대 통계청장으로 부임하여 여러분을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로 예산 및 경제정책 수립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통계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왔지만 막상 여러분과 함께 근무할 기회는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통계의 수요자, 이용자로서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경제·사회 정책의 기초인 통계의 중요성을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과거의

통계청장 취임사(1998. 3. 25/역삼동 청사)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을 제때에 이루지 못하고 고비용·저효율의 구조 속에 안주하다가 결국은 IMF 관리 체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IMF 관리체제를 조속히 벗어나기 위하여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피나는 구조조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 가계, 근로자 모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야말로 국가 정책의 기본 토대로서 향후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틀이 새롭게 짜여지는 과정에서 통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같이 중요한 국가 통계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앙 통계 기관의 책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통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기획원의 조사통계국에서 통계청으로 승격된 이후 지난 수년간 선배 청장님들이 우리나라 통계 발전과 통계청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임 청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 보다 견실한 집을 세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통계 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더욱 정확한 통계, 신속한 통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다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신뢰 받는 통계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국가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생활 경험과 통계와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통계인들은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신뢰 받는 통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수요자의 입장에서 통계를 바라봅시다.

대개의 경우 관료들은 자기 위주의,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통계의 수요자,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통계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 통계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합시다.

통계야말로 국가 정책 판단의 가장 기초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 주는가에 따라 정책 판단

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정책 판단은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책 판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합시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는 철저한 직업 의식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 노력, 업무 개선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인사와 조직 운영시 저는 가능한 한 간부들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우대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계를 기획하고 분석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본부요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땀을 흘리는 지방 통계사무소의 현장요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통계 작성은 현장에서의 정확한 기초 자료 수집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본부의 조사기획요원과 지방 통계사무소의 조사요원들간에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아울러 각종 동호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모든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맡은 일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통계청 직원 여러분!

통계청 발전을 위한 모든 일들은 직원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대어 조직의 발전과 여러분 개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방안을 모색할 때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참여를 하여 21세기를 향한 통계 행정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취임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통계 선진국을 꿈꾸며 4C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애 하는 통계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명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8년 3월 23일부로 통계청장에 임명되고 3월 25일에 취임식을 하였으니 오늘 날짜로 정확히 3년 10개월 12일째 통계청장으로 일한 셈이 됩니다. 만 4년에는 약간 모자라지만 역대 통계청장 중 제가 가장 장수한 통계청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통계청장으로 부임하여 통계 선진국을 꿈꾸면서 4C 정책을 표방하고 통계 행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고객 중심(Customer oriented), 신뢰성(Credibility), 편리성(Convenience), 대외 협력(Cooperation)을 우

통계청장 이임사(2002. 2. 4/대전청사)

리가 지향하는 통계 행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먼저 고객이 원하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제가 1998년 부임할 당시 우리 청에서 35종의 통계를 만들고 있었으나 지금은 55종이나 되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림·해양부로부터 이관 받은 통계도 있지만 ICT 관련통계 등 많은 통계를 개발했습니다.

둘째로, 신뢰도 높은 통계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종 통계가 개선되고 과거보다 통계의 정확성,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통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통계 DB인 KOSIS에 수록된 통계 정보량도 크게 확대되었고, 사용 방법도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통계 홈페이지인 Stat-Korea를 1999년부터 서비스하여 국내 모든 통계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통계 작성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 다양한 국내 통계 작성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세계통계대회를 대회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내 세계 각국으로부터 격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모두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일 중에서 잊지 못할 기억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0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저도 신문에, 방송에 또는 홍보사절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읍면동 기능 전환으로 통계 기능이 없어져 과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 아래서 성공적으로 총조사를 마치고 자료 처리도 과거보다 3~9개월 빠르게 공표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만큼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금년에 실시한 농어업총조사도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난 해 실시한 세계통계대회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세계 통계전문가 2,600여 명이 서울에 모여 통계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각국의 통계 기관장이 만나 통계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ICT 통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모습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전파함으로써 우리 통계의 위상이 매우 크게 높아진 것은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통계 가족 여러분 !

이러한 모든 업무 성과들은 항상 인력 부족이라는 제약 조건 속에서도 제가 제시한 통계 정책 방향을 성실하게 실천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과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과장님과 본부 및 지방사무

소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통계 가족 여러분!

이제 저는 통계청의 OB로서 물러가면서 지난 4년간 통계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소감 내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과 신뢰성에 있으며 통계 신뢰는 통계청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통계 신뢰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 더 통계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통계 이용자의 입장에서 통계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국가 기본 통계는 우리 청에서 거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요자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의 입장에서 통계 업무를 하기 쉬운 경향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 동향 등 외부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요자가 통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탓하기 이전에 수요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자세로 통계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계청의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합시다. 신년사에서 말한 것처럼 Value NSO를 위하여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면 통계청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며 통계청의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 스스로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를 위하여 직원 모두가 통계 전문가로서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넷째, 직원간에 단결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조직의
성패는 근무하는 직원들간의 일체감과 유대감에 달려 있다고 생각
합니다. 새로 부임하는 청장을 중심으로 본청 각 국·과, 사무소,
출장소 직원들이 한 몸이 되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통계청은 어떠
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난관을 뚫고 활기 있는 조직으로 무한히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통계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의 곁을 그리고 통계청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만났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통계청
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통계청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와 함께 지난 4년을 동고동락하
신 직원과 그 가족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이
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영문 연설문 제4부

Let us Begin the New Century with
New Statistics

1

Let us Begin the New Century with New Statistics

Honorable Prime Minister, Lee Handong, Honorabl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Jin Nyum, I am deeply grateful for your presence at this opening ceremony of the 53rd Session of the ISI.

Mr. Jean-Louis Bodin, President of ISI, Mr. Richard Gill, Chairman of the scientific program, Excellencies, Distinguished participants, Ladies and gentlemen from all over the world

It is my great honour and privilege to open the 53rd session of ISI. On behalf of the 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53rd ISI Session, I welcome all of you to this Seoul session.

We stand at the entrance of a new century and a new millenium. I am thrilled that the 114-year-old ISI Session is holding its first

제53차 ISI서울대회 개막 연설문(2001. 8. 22/서울 COEX 컨벤션센터)

session of the new century here in Seoul. This Session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some reasons.

First, this Session marks the first of the 21st century. It will provide us with a rare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 paths that the ISI has taken in the past 20th century and to look for a new paradigm for the new 21st century.

Second, this session opens at the doorstep of the information age. The 21st century is the information age. Many discussions will focus on important statistical issues of the information age.

The Scientific Programs include many topics on the information age and new statistical issues. In particular, August 28 and 29 have been designated 'Internet Days' for targeted discussions about the Internet. And there will be a tutorial session on data mining on the evening of Friday, the 24th of August.

Now I would like to turn to the role of statistics in the information age. Statistics is information and knowledge. Statistics tell us how a society has changed, in both historical and real terms. With the advance of the information age, we face many new demands on statistics. These new demand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comes a sharply increasing need for new statistics. With the revolutionary growth of technology, human society has gone through profound changes.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entailed an increasing demand for new statistics.

Growth in information technology, rapid expansion of e-commerce, emergence of digital divide, growth of the service sectors, importance of a knowledge-based economy, and a large number of other issues have drawn keen attention, requiring new statistics that can account for those developments. In addition, there is a growing demand to improve and upgrade existing statistics, in step with technological advances and social changes.

Second is the demand for statistics of higher quality. The wide spread of the Internet and the web has helped people gain easier access to a wide range of information.

Moreover,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being adopted for the whole process of producing statistics and guaranteeing higher quality. Accordingly, users look forward to more accurate, more relevant, more reliable and more timely statistics.

Third is the need for new survey methods of statistics. In response, computers and the Internet will be widely used as a means of survey, supplementing traditional survey methods. Respondents will prefer electronic survey such as those using e-mail and the Internet, to the traditional interview method.

There will be a great demand for new statistics in the 21st century. Some of the demand is already becoming a reality, and others of it will be so in the near future. We, statisticians, have to respond to such demands of the information age. We are required to produce new kinds of statistics having high quality and come up

with new survey methods. Let us begin the new century with new statistics.

I am greatly honored to introduce two prominent scholars to you: Dr. James Heckman, professor of University of Chicago and Dr. Daniel McFadden, professor at UC Berkeley. Both of them are the winners of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 in 2000. They will be with us with their Special Keynote Speeches on the afternoon of August 27.

I am sure their keynote speeches will make the Seoul Session more valuable.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Dr. Heckman and Dr. McFadden. And also I would like to thank Mr. Jean-Louis Bodin who made this invitation a success.

Now, let me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on the history of statistics and statistical activities in Korea. The beginning of statistics in this country dates back to ancient times. Old historical records show that the ancient Korean kingdoms had household statistics by 59 B.C. and the population census was conducted every three years from the 8th century A.D.

The first statistical system of some modernized form start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However, it was not until after the first Korean government was inaugurated in 1945 that this country established the statistical system as we have it today.

Presently, the statistical system in Korea is decentralized, and 135 agencies, public and private, generates a total of 416 sets of official

statistics. KNSO produces 55 of them. Out of 172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Korea, 63 have statistics departments. About 3,000 statistics majors graduate each year. In addition, we have two active players in the field of statistics,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and the Korean Statistical Association.

I would imagine that some of you are first-time visitors to Seoul. So, I would like to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of Seoul. Seoul has a 600-year-long history as the capital of this country. Since it was made the capital of the Joseon Dynasty in 1394, Seoul has been the heart of this country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education and culture.

This city has hosted a number of international events, including the 1988 Olympic games. The world's attention will be focused on Seoul again in 2002 when World Cup soccer matches are held in the city and throughout the country. During your stay here in Korea, I hope you will have many chances to experience the vitality of this city and gain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is country.

COEX, which is the site of the 53rd ISI Session, was also the venue of the 3rd Asia-Europe Meeting(ASEM) in October 2000. The summits of Asian and European nations met here to exchange views and encourage mutual cooperation. I am pleased that the Seoul Session of the ISI is held in this historical place.

In closing, I would like to give my thanks to all the people who worked hard to prepare for the ISI Seoul Session; the ISI Secretariat,

Korean Statistical Society, Korean Statistical Association, KNSO, Intercom, and Hersie Entertainment.

Finally, I would like to share my hope that all the participants find this a productive and enjoyable Session. I also hope that you will have become more familiar with the Korean history and culture by the time you leave, and that the days you spend here linger long in your memories. Thank you very much.

2

New millennium with new statistic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and congratulations to the 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of Finland. Its excellent work and thorough preparation have made the 52nd ISI Session an outstanding and very impressive one.

I would like to highly appreciate the successful session and the generous hospitality rendered by the 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of Finland.

As Chairman of the 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of Korea, I am very pleased and honored to invite you to the 53rd session of the ISI in Seoul.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ISI had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Korean Government to hold the 53rd session of the ISI in

제52차 ISI헬싱키대회 초청연설문(1999. 8. 13/헬싱키 핀란드아홀)

Seoul, Korea. And it was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ISI during its 51st Session in 1997 in Istanbul, Turkey. It is a great honor and Pleasure for me to announce that Korea will host the next ISI Session in Seoul, from August 22nd to 29th, 2001.

The Seoul Session will take place as the world is entering the new millennium. It is everyone's hope that the new millennium will bring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to humankind. As we know very well, statistics provide the ground for these ultimate goals of the new era.

It is more evident than ever that adequate policies to achieve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cannot be formulated without timely, accurate, and reliable statistics.

The new millennium poses us a host of challenges and pressing issues, which require effective solutions. To meet the challenges more effectively, statisticians should envision the future mission of statistics in a new way - to identify new standards for statistical activities, to explore new areas of statistics and to devise new statistical methods and techniques.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ways of doing statistics will help us better prepared for the challenges of the coming era. Therefore, we should begin the new millennium with new statistics.

This is the reason why Korea is happy and proud to host the first Session of the new millennium. Two years from now, the foremost statisticians of the world will gather in Seoul, from the academic

world, official statistical institutions, and from the business community.

Seoul in a cosmopolitan metropolis where past and present are integrated in a magnificent fashion. Rich in centuries of history, the city is on the ascent to an even brighter future. It will create a perfect setting for a successful meeting.

On behalf of the Korean 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I would like to invite all of you to come to the next Session of the ISI in Seoul. Your valuable contributions to this meeting will be highly appreciated and lead to its success.

The 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of Korea will do its utmost to make the Session Fulfilling and delightful. If you come to Seoul, there will be good things waiting for you.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Seoul, and showing you the meaning of Korean hospitality.

Thank you very much.

3

How to improve the statistical quality?

Distinguished delegates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Eminent representativ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utstanding scholars from the academy,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honor and privilege to have the opportunity to speak at the opening session of the Statistical Quality Seminar cosponsored by the IMF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On behalf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I would like to welcome all of you to this Statistical Quality Seminar. Especially I would like to appreciate those who have traveled far distances from all around the world to attend this Seminar.

We are here today to discuss the issue of statistical quality. It is quite needless to say that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official

통계품질 국제세미나 개최사(2000. 12. 6/제주 롯데호텔)

statistics is a very important goal that all official statisticians seek after. That is because official statistics form a basis for making and evaluating national policies. Considering that they set the course of national policies of a country, accuracy and reliability of official statistics are extremely vital.

Statistical quality has been of primary concern to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academy during the 20th century. How are we to define the data quality? What dimensions and components are the data quality composed of?

How can we effectively measure the quality?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quality and how can we implement them in national practices? Many studies and discussions have been made to answer these questions.

As a consequence, several components of statistical quality, such as accuracy, relevance, timeliness, accessibility and coherence, have been put forward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ose components, in turn, have led to further researches on specific indicators for quality assessment. In addition, much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way the quality is controlled and measured.

Quality guidelines are in place, and a variety of methods, including self-assessment, external assessment, quality declaration, quality profile and total quality management, have been suggested.

The progress is particularly remarkable in the 1990s, thanks to the leadership of the countries with advanced statistical technology.

In an effort to increas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statis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IMF, UNSD, Eurostat and UNECE have led discussions on statistical quality through the 1990s. The result is a number of quality indicators and guidelines.

Nevertheless, we cannot say that the question of statistical quality is properly answered. It still remains as a pending issue in the international arena. Why? It seems that not a few problems have yet to be solved with regard to quality measurement and enhancement.

Let me take a look at some main issues about quality assessment. Are the existing methods for quality assessment satisfactory at all? Are the quality indicators appropriate for evaluating quality of official statistics? Is it possible to set up internationally uniform standards for quality assessment, instead of different standards of individual countries? If so, then, is it desirable?

We know that some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Asia have suffered from foreign currency crisis in recent years. Some argue that the quality of foreign exchange statistics was one of the causes of the crisis.

Were the foreign exchange statistics of those countries reliable and transparent enough? If not, are there any specific mechanisms established to improve the quality? With these questions in mind, we cannot but feel the importance of the statistical quality again.

Moreover, while the demand is rapidly growing for statistical information in almost all the countries, the surroundings of statistical

survey and activities are getting ever worse. For instance, limits in financial and human resource and time are stumbling blocks to producing statistics of better quality.

How can we overcome this deteriorating environment and ensure high-quality statistics? This is another unsolved issue we should continue to address.

Meanwhile, the adv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emerging as a contributor to improving quality of statistics.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wide spread of the Internet, has a crucial effect on the way statistical survey is conducted, as well as on social and economic sectors.

If well utilized, the information technology could resolve the limits in time, money and personnel we now face in enhancing the quality of statistics.

In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of statistical qualit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is hosting this seminar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is is a challenging task to all of us.

We have got together here to have in-depth discussions on the experiences of assessing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our work and how we have coped with the task of improving quality in our work.

In this seminar, the IMF, U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present their ideas on how to set up international common

standards for quality assessment. And speakers from several countrie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will present and exchange experiences of their nations in quality measurement and improvement.

These presentations and follow-up discussions, I am sure, will lay the groundwork for stepping up the quality of official statistics. We have, before us, two days of discussions. We will start this morning by introducing the overall framework to safeguard the quality of statistics.

And then, we will review the recent trends, practices, and approaches of quality assessment at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morrow, we will move on to individual nations' concrete experiences in quality assessment and improvement work.

I believe that this meeting is very meaningful in its attempt to provide a global forum for a productive discussion on the quality issue. It is my sincere wish that expert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istical organizations will continue to meet to tackle this common issue with concerted efforts.

In closing,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thanks to the participants who will make valuable contributions to this Seminar. Special thanks are due to Mrs. Carol Carson, Director of Statistics Department, IMF, for her wholehearted support for this seminar.

And I wish you productive and enlightening sessions.

This island is the warmest in Korea in wintertime, but we still cannot escape from the cold touch of the winter. I hope you all will be in good health and enjoy a memorable time while you stay in this beautiful island Cheju.

Thank you.

4

Advancing statistics for the next millennium

Dr. Lee-Jay Cho, Mr. Tatsuo Inoue, Dr. Paul Cheung, Distinguished representatives from central statistical agencies and academic institutes in Korea and other East Asian nations, Eminent scholar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I would like to welcome you to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Forum and give my sincere thanks to you all for participating.

It is my great honor to be with prominent official and academic statisticians from many nations in East Asi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o address important statistical issues with you for two days.

국제통계포럼 개최사(1999. 9. 16/대전청사)

The world will usher in the new century and the new millennium in a few months. In the new century and the new millennium, information and knowledge will play crucial roles in leading economy, politics, culture and all other facets of society. Statistics will be a vital tool to produce relevant essential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knowledge-based society. In this sense,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cannot be over-exaggerated.

At this juncture, we have convened here to address regional and global issues of mutual interest under the theme of "Advancing Statistics for the Next Millennium".

The focus of this forum goes to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2000 round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statistical issues emerging in transition economies, statistical education for a knowledge-based society, and enhancement of regional cooperation.

We will discuss these important issues to encompass our diverse statistical needs and challenges and come up with effective solutions for further statistical development in the region. This will help us to be better prepared to deal with statistical problems confronting each nation.

I believe that the challenges of the new era can be best met by seeking collaboration among official and academic statistician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Currently, international statistical cooperation is maintained in diverse forms.

At the government level,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are the most dominant forms, and in the academy, individual exchanges and academic meetings or seminars are organized by individuals, departments or professional societies on an occasional basis.

However, this poignantly points to the lack of an international body that links the governments, academies and business communities. There is a strong need to form an overarching body in East Asia to unite official and academic statisticians, and engage them in active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the statistical development of the entire region.

Also, some of us may wonder if it is appropriate that international statistical standards, which are usually drawn up by western nations, are applied to East Asian nations without due consideration of their efficacy. East Asian nations may need their own statistical standards, fitting their unique social customs and practices.

I believe that this meeting is very meaningful in its attempt to provide an open forum for candid discussion of these regional issues. It is, therefore, my sincere wish that experts of both sides can continue to meet to tackle common problems with concerted efforts, and to share each other's experiences and learn from them. To this end, I hope we can discuss at this forum how to conduct future regional cooperation of official and academic statisticians, and

explore its possible formats and structures.

In closing, I would like to thank the participants who will make valuable contributions to this forum and bring it to success. I wish you enlightening sessions at the Forum and a pleasant stay in Korea. Thank you very much.

5

Quality is vital to the official statistics

Thank you, Mr. Chairman.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Statistical Quality Seminar, which was held in Jeju Island, Korea, in December last year, organiz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IMF. But before I do that, let me say a few things about the background of why we wanted to have the seminar.

We all know that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official statistics is an important goal for all official statisticians. This is because official statistics form a basis for making and evaluating national policies. Because statistics set the course of national policies of a country, accuracy and reliability of official statistics are extremely vital.

In this sense, statistical quality has been of prime concern to

UN 통계위원회 회의시 발언록(2001. 3. 6/뉴욕 UN 회의실)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uring the 20th century. Some of the most pressing problems regarding to statistical quality are : How to define the data quality ;

What dimensions and components we should consider for data quality ; How to effectively measure the quality ; and What can be done to improve the quality and how to implement them in national practices. Many studies and discussions have been made to answer these questions.

As a consequence, several components of statistical quality, such as accuracy, relevance, timeliness and accessibility, have been put forward. And much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way the quality is controlled and measured. Quality guidelines are in place and a variety of quality assessment methods have been suggested.

Nevertheless, we cannot say that the question of statistical quality is properly answered. It still remains as a pending issue in the international arena. In this juncture, the KNSO and the IMF organized the seminar to have in-depth discussions on the experiences of assessing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our work and how we have coped with the task of improving quality in our work.

In the seminar, 45 experts participated and exchanged their expertise and experiences to assess and safeguard the quality of statistics. They were from eighteen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seve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articipants reviewed the existing variety of frameworks, approaches, techniques and instruments / to promote and monitor the quality of statistics within national statistical organizations and at the international level.

For the initiatives take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participants acknowledged the IMF's work on data quality, specifically, the Data Quality Reference Site on the Internet, and the comprehensive data quality assessment frameworks under development.

The participants encouraged the IMF to continue work on expanding global initiatives to enlighten users on the quality of official statistics and to support countr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statistics.

Also, the participants welcomed the UNSD's effort to collect and disseminate examples of good practices relating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These examples highlight factors that influence the overall environment of statistical systems and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statistical quality.

For country practices and experiences, various approaches to enhancing statistical quality were discussed. These include Total Quality Management, ISO 9000, and similar techniques, as well as methods for internal quality self-assessment and external assessments, including peer reviews.

Some of these approaches focus on statistical processes, some on products, and some on the institutional setting. Some emphasize

providing information to users to assess data quality for their uses, while others emphasize information to feed back into the process.

It was recognized that different quality indicators may have to be used for differing approaches and purposes.

Despite the differences among the approaches used, it was concluded that they should take users' needs as their starting point. It was also agreed that one of the key success factors for all quality initiatives was the commitment of the senior management of statistical offices.

Management should aim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quality is a core corporate issue, and develop the 'learning organization' and a 'culture of quality'. It was also concluded that the various approaches used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s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have differing weights according to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structure management styles, main statistical sources, and levels of statistical development. Thus, the choice of an approach to the management of quality would need to reflect the differing national situations.

Nevertheless, the participants understood that more work should be done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harmonizing terminology and operationalizing concepts regarding statistical quality.

The participants understood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continue to play a role in training activities aiming at improving statistical quality assessment and management. It was

concluded that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statistical quality management ought to be continued.

The papers and discussions of the seminar were put together in the Proceedings. And copies of the Proceedings were distributed to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l over the world.

The papers and discussion notes are also made available on the Seminar website (<http://www.nso.go.kr/sqs2000>). For your information, the summary of the seminar is available here as a room document.

Finally, I hope that the Jeju Seminar has laid an important step forward to spearhead effort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o enhance statistical quality. It is my sincere wish that expert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istical organizations will continue to meet to tackle this common issue with concerted efforts. Thank you very much.

6

The Statistical Approach to the Digital Economy and Knowledge-based Economy

I. Changing Environment Surrounding Statistics

1. Introduction

In the 21st century, we are living in the age of digital economy. The global economy is steering away from the industrial age towards a digital econom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and a rapid penetration of the Internet are altering traditional social and economic paradigms. As the digital economy proceeds further, economic activities are being transformed to suit the digital economy, in which economic transactions are conducted on the

제9차 동아시아 통계기관장 회의 발표논문(2000. 8. 23/일본 시즈오카현 고텐바시)

Internet in the cyber space at the velocity of light.

In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spatial and temporal distance is meaningless, which used to be emphasized in the past industrial society for th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core production elements such as land, labor and capital. In this era, a higher priority is placed on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which advances the efficiency of the utilization of those production elements, than on the acquisition of them.

That is to say, as the digitization of the economy progresses further, we will move into a knowledge-based economy where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more highly valued.

At this juncture,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demand that statisticians should measure and explain these new socio-economic trends. In other words, they want to gain statistical data which illustrate: how far the economy is digitized; how much the economy is knowledge-based; and what kinds of impact the progress of digitization and informatization has on the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As the Korean Government is pressing ahead with reform and restructuring in various sectors, informatization and digitization in the economy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Spurred by the advance in informatization, Korea is in a smooth transitio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No wonder policy-makers are enthusiastic about seeing these socioeconomic shifts

measured and captured in statistical figures.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n overview of how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is responding to the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

More precisely, this paper focuses on what indicators and measurements KNSO uses to identify the progress of digitization and knowledge-basedness of the economy, and how the Office plans to cope with the policy demands for an accurate illustration.

No nation in the world has satisfactory indicators for the digital and knowledge-based economy, but every nation is intent on developing the indicators suitable for its own reality.

Korea is no exception. This paper reports on the efforts made so far by the Office for the purpose and the developments in that direction.

2. Changing Environment

A.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One of the striking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is “the emergence of digital economy”. Advances in the IT sector and expansion of the Internet use are revolutionary in every aspect of the society. They affect economic structure, economic growth, economic activities, pattern of everyday life, education, labor force and employment. All of these changes constitute a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Although there is no undisputed or internationally agreed definition of the term 'digital economy', it can be safely defined as "the economy that is critically dependent upon the digital technology".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digital economy refers to the economy represented by IT and E-commerce (electronic commerce).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digital econom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 i) Development of technical skills to digitize information in any form, ranging from text, voice to simultaneous image;
- ii) Technological advances in hardware and software;
- iii)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and
- iv) Net-based networking effects.

The positive effects of the digital economy, driven by the factors mentioned above, can be briefly described as follows:

- i) Improvement in consumer utility: Consumers can choose from a wide range of goods and services, free from spatial or temporal limitations, and benefit from price reduction.
- ii) Advance in corporate productivity: Internet-based and open-to-competition procurement systems, such as EDI, drive down costs in purchases, production, sale and logistics, which in turn pushes

up the productivity in business. In addition, IT application contributes substantially to increasing production volume.

iii) Enhancement in labor and capital productivity: IT investments improve labor and capital productivity, by displacing workforce from jobs requiring low or no skills and enhancing work efficiency. In addition, as E-commerce makes it easier to enter the global market and creates new operations, it is expected to create the effects of production growth and job generation.

Fully aware of those advantages that the digital economy can bring to us, the nations across the world are taking policy initiatives to digitize their economy. In Korea, digitization is becoming a key word in the economic landscape. In particular, the IT industry and the contents sector are at the very heart of economic growth, and cyber-commerce is growing at a phenomenal rate.

B. Transitio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Another noteworthy change taking place in Korea is a shift to a knowledge-based economy. It is needless to say that, as informatization and digitization of a society advance, information and knowledge are gaining more importance.

In order to go beyond the limits of physical production elements valued in the past industrial age, more emphasis should be given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than the physical elements to ensure that economic growth will be sustained.

The Korean Government, in recognition of the limits of such physical resources, has been long committed to rendering the economy more technology-intensive. In an effort to reach a knowledge-based econom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intensify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conventional industrial sectors, foster the IT industry, and nurture future-oriented sectors related to culture, th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II. Statistical Approach to the Digital Economy

1. Demand for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As the Korean economy moves toward a digital economy, a variety of policy concerns have been raised. To name a few:

- i) What is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of the general public?
 - What are the levels of access by Korean people to telephones, mobile phones, personal computers (PC) and the Internet?
 - What proportion of the entire population is computer- or Internet-literate?
- ii) How much investment is being made in IT infrastructure?
 - What is the number of IT businesses? How much do they

invest in R&D?

- What implications does the IT investment have with regard to the creation of value-added and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 the national economy?

iii) What are the size and the type of E-commerce?

- How large are the B2B and B2C sanctions?

- Does E-commerce have a cost-down effect?

iv) What are the composition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T users?

- Does the access to or use of EC, the Internet and computers differ, depending on gender, education level, geographic location, income and occupation?

v) To which extent does IT affect the labor market and income distribution?

- What impact do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computers and the Internet have on labor produ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It is apparent that every one of these questions cannot be clearly answered in statistical terms. Nevertheless, policy-makers demand that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m be statistically verified. The following presents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policy concerns about the digital economy.

A. Access and Opportunity

Easy access to computers, the Internet and cyber network is crucial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and paves the ground for a digitized economy. The degree of access to computers and the Internet, the penetration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and the ability to use them, indicate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of the society.

To measure the informatization level, we need to identify computer ownership per household, the ability to use computers and the Internet, hours spent on using computers and the Internet, PC communications subscribership, and hours spent on PC communications.

B. The Infrastructure of the IT Industry

The IT industry is a major driving force of the digital economy. In this light, statistical data on the IT industry should be compiled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gress in digitization of the economy. Among the data needed are: investments in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nternet access, and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IT industry.

Besides, separate surveys need to be conducted on individual sectors of the industry, including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IT machinery and equipment, development of software and construction of IT facilities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

Also, the information contents sector should not be overlooked. This sector creates, processes, transmits and stores communication products in a electronic way and includes publishing, music recording, film and broadcasting.

C. E-commerce (E-business)

Electronic commerce means commercial transactions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computers and Web-based network. E-commerce can be divided into i) Business-to-Business (B2B), ii) Business-to-Consumer (B2C), and iii) Business-to-Government (B2G) transactions.

To evaluate the status of EC, the infrastructure of EC, including cyber shopping malls, the size and prevalence of EC,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need to be measured.

The following shows survey items necessary to measure these elements:

i) EC infrastructure: network intensity, delivery means,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payment system, etc.

ii) Magnitude and prevalence of E-commerce: sales, purchases, investments and workforce

iii) Implications for the national economy: price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 EC, share of EC in total transactions, profitability, frequency of purchase, and purchase behavior

D. The Impact on Aggregate Economic Indicators

The significance of the IT industry and E-commerce lies not only in their rapid growth but also in their tremendous impact on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economic growth, employment, prices and productiv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the share of the digital sector in the whole economy, the share of workers in the sector in the entire workforce and the relative productivity of the sector shall be examined.

An in-depth study on possible contributions of the IT industry to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ramifications of E-commerce can be considered. However, what is more practicable is to make use of various relevant surveys and, if possible and applicable, develop new survey items and methods.

E. Digital Divide

Digital divide is the disparity between those with access to digital tools, including computers and the Internet, and those without. This

gap closely correlates with the afore-mentioned digital access and digital opportunit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how much computer ownership and the Internet use differ across demographic groups and geographic areas.

Moreover, it should be identified what effects the digital divide has on the wage and income distribution. The general perception is that as the economy becomes more digitized, the digital divide will have a growing effect on income distribution.

2.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Policy-makers are looking forward to statistical data on the digital economy. How can statisticians respond to their expectation? What indicators can they use to measure the progress of digitization?

A. Opportunity and Access

The following factors need to be survey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vel of access to information opportunity:

- Ownership of computers and other IT equipment (television, telephone, PC, fax) per household
- Ownership of telecommunications devices (mobile phone, pager, city phone) per person
- Ability to use computers and hours spent on computers, per

person

- Internet subscription per household
- Ability to use the Internet and hours spent on the Internet, per

person

- Use of e-mailing and hours spent on e-mailing, per person
- PC communications subscription and hours spent on PC

communications

- Use of PC cafeteria and hours spent in PC cafeteria, per person.

KNSO conducted a survey in 1997 with a view to gleaning data on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and plans two more surveys for the same purpose for 2000. The 1997 Social Statistical Survey covered 34,000 sample households nationwide, and the 2000 Social Statistical Survey is now in progres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1997 Survey, 29 percent of Korean households owned PCs, 40 percent of the population aged 6 or older knew how to operate PCs and 25.7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were PC or Internet users.

Just as the survey taken three years ago, the 2000 Social Statistical Survey aims to statistically explain how much the Korean society is digitalized. In addition, the Survey intends to identify changes and developments made in the process of digitization, such as access to and capability of digital technology, for the past three years.

The 200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cheduled for November, also contains items regarding the progress of

informatization.

While the Social Statistical Survey involves 34,000 households,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argets a far larger sample group: approximately 10% of the total population (1.5 million households). The major survey items of the 2000 Census are:

- i) Ownership of IT machinery and equipment [PC, telephone, fax, satellite dish, community-based wired broadcaster, cable TV and Internet access lines (e.g., ISDN, ADSL)], per household
- ii) Degree of PC utilization per person
- iii) Degree of Internet utilization per person
- iv) Ownership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ellular phone, pager, etc.) per person

Once the census is completed, we will be able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access and opportunity from various angles.

B.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The IT industry, whose growth is the cornerstone on the way to the digital economy, also needs to be examined. The following should be identified to review the progress in the IT industry:

- Number of IT businesses related to computer, semiconductor or

other types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 Number of companies related to hardware, software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 Organizational structure of IT-related companies;

- Size of IT workforce and annual wages;

- Production volume, sales, costs and values added of IT-related companies;

- Magnitude of facility investment and tangible/intangible fixed assets; and

- R&D investment and export/import volumes.

As part of its effort to gain a clearer view of the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 technology, KNSO has carried out establishment-based surveys on the IT industry since 1996. These surveys, however, were not comprehensive enough to achieve the goal.

To remedy this limitation, we expanded the 1999 survey to includ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T equipment, software development, construct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IT facilities in 1998. The comprehensive 1999 survey addressed the afore-mentioned items.

The 2000 survey on the IT industry will cover additional sectors, compared with the survey of the previous year: that is, information contents sectors of publishing, film and music recording. This survey is underway, and the outcome will be available within this

year.

C. E-commerce (E-business)

Electronic business in Korea has been recently growing at breathtaking speed, especially starting from the year 2000.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survey conducted specifically on E-commerce. KNSO, recognizing the need of such statistics, is engaged in a new survey on E-commerce which began in April 2000. This survey covers types, sales and workers of E-commerce businesses.

1) Survey on Business-to-Customer (B2C or retail) E-commerce

The largest portion of B2C Web-based transactions are made through cyber shopping malls. KNSO selected some 1,500 cyber shopping malls to conduct a monthly survey on current practices of B2C E-business. This survey includes:

- Number of workers engaged in B2C E-commerce;
- Sales volume (sales of goods and services, advertisement and other fee-charging services);
- Types of cyber shopping mall;
- Operation costs;
- Composition of consumer prices (sales cost, shipping cost, bank

fee, etc.);

- Composition of buyers (industrial buyers, end consumers, intermediate distributors, etc.)

- E-business support systems (delivery channels, payment and settlement means, security system, etc.); and

- Possible measures to streamline and augment E-business.

The findings of the monthly survey for the April-June period reveal that monthly sales of B2C E-business topped 100 billion won on average, which indicates that the annual sales of B2C E-business will exceed 1.2 trillion won, taking up more than 1% of the total annual sales in retail business.

This projection is almost 10 times higher than an annual sales of 150 billion won, which was foreseen by an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in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B2C E-business, growing at a remarkable rate, will certainly bring profound changes to the existing market structure and the way of doing business.

In addition, the reduction of consumer prices which the Web-based business enables will likely promote the welfare of consumers.

2) Survey on Business-to-Business E-commerce

KNSO conducts a quarterly survey on B2B E-commerce, beginning the 1st quarter of 2000. Among the surveyed 1,500 establishments are: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both listed in the Seoul stock exchange bourse; venture firms listed in KOSDAQ; and companies in the public sector. Major items used for this survey are as follows:

- Sales and the composition of sales by product item;
- Operation costs;
- Amount of purchases;
- Transaction means;
- Delivery channels; and
-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cording to the outcome of the survey for the 1st quarter of 2000, the sales of B2B electronic transactions is 0.5% of the total sales of the surveyed firms, which clearly shows that B2B E-commerce is still small relative to the off-line business.

However, the financial sector where E-business accounted for 32.3% of the total sales proved that this sector leads in Web-based business. Meanwhile, the amount of purchases through E-commerce took up 3.3% of the total purchases.

3) Utilization of existing surveys

Apart from initiating new surveys on E-commerce, KNSO has ensured that the existing establishment-based surveys, such as Current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and Current Wholesale and Retail Trade Survey, will include new items designed to identify sales of E-commerce.

Moreover, KNSO is using household-based surveys to find out the frequency and size of B2C electronic transactions.

4) Future plan

KNSO plans to compile statistics on Business-to-Government E-commerce, starting from the end of this year. In addition, the coverage of surveys on B2B E-commerce will be expanded to include non-listed companies, and the surveys on prices will also deal with E-business factors so as to gauge the impact of E-business on prices.

D. Digital Divide

From the afore-mentioned Social Statistical Survey and the 200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e may get a general picture of the degree of digital divide. With the aim of a deeper and broader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divide, KNSO plans to conduct an annual survey among some 30,000 households nationwide, beginning in 2001.

This survey is intended to find out the imbalance of access to digital tools in the categories broken down by gender, education level, income, geographic area, age and occupation; and the drivers of this digitization gap. The items to be surveyed include:

- Number of PCs owned, and hours spent on using PC;

- Number of Internet users, hours spent on using the Internet and Internet connection methods;
- Number of mobile phones owned;
- Number of users of E-commerce, and frequency and purchas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 Demand for support for digitization;
- Usefulness of support for digitization; and
- Digitization supports desired.

III. Statistical Approach to the Knowledge-based Economy

1. Demands for measuring the knowledge-based economy

With the adv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Internet, remarkable changes are taking place in economic, social and other various dimensions.

Now we are witnessing rapid progress in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nd the revoluti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t this moment, knowledge is not only the source of wealth and welfare, but also the means to cope with the changes.

The Korean Government has joined the international trend of the transitio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which can be defined as

the economy that is directly based on the creation, distribution, and us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step with such global drive, the policy concerns on the progress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are increasing.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we can take in measuring the degree of a knowledge-based economy, bu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take consideration of the creation, acquisition, dissemination and use of knowledge, and focus on the indicators with regard to classifications of knowledge-based industrial sectors; the changing structures of firms and industries; labor market information on skilled workforce; and education and training.

A. Classific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gress of a knowledge-based economy, first, we need to define knowledge-based industrial sectors (i.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and to set up standards for the classification. We also need to develop how to classify products, depending on the level of technology intensiveness.

- Defini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 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ial sectors
- Classifications of products, depending on technology

intensiveness

Besides, as human resources are crucial to the knowledge-based economy, we need to have labor market information on the size, specialty and occupations of the workforce engaged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compile statistical data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workforce, a definition of the workforce and classific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occupations are required.

- Defin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 Classific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occupations

B. Corporate and Industrial Structure

Individual firms are carrying out R&D activities and innovations, both of which are important inputs for knowledge generation. Competitive companies ar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whole economy. In this sense, activities of individual firms and industrial structures should be identified. The indicators required to understand company activities and industrial structures include:

- Size of R&D investments by company and industry, and R&D workforce;
- Innovation activities by company and industry;
- Share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ies in the whole economy, and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ies; and

- Globalization of technologies.

R&D activities refer to systematic and creative activities intended to accumulate knowledg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o utilize the accumulated knowledge for exploring new applications. The key elements of these activities are R&D expenditure and R&D manpower.

Innovation activities are aimed at creating new or remarkably improved products and work processes, and include R&D efforts, technology introduction, investments in tangible and intangible goods,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prototypes, and marketing strategies of new products.

Indicators concerning innovations are: numbers of innovators and non-innovators, technical innovation expenditure (investments in tangible equipment (hardware) and intangible goods such as software, patent rights and trademarks), and composition of sales (share of new products introduced with technical improvement or innovation in total sales).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ies o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ose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look at production volume, sales, values added, investments in tangible and intangible goods, employment, and export and import in the knowledge-based industries.

To understand the extent of technological globalizati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foreig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Korea and Korean companies in operation abroad need to be examined.

C. Labor Market

Highly-skilled manpower is vital to sustaining economic growth and sharpening the competitive edge of the economy in general. Studies on the labor market will reveal information on the size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ir education, occupation and inter-sectoral mobility.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ncludes R&D manpower in a broad sense, can be defined as: i) persons with an education of 2-year college or higher; or ii) persons who, although without education of 2-year college or higher, are engaged in occupa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require qualifications equivalent of 2-year college education or higher.

At a time when national economies are integrating into a global one and the labor force freely crosses national borders, comprehensive statistics on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e demanded. These statistics can be divided into stock and flow statistics.

The former group of statistics can be collected by the Population Censuse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s and Employment Structure Surveys, which deal with education,

specialty, occupation, industrial sector, economic activeness, and wage.

Based on these statistical data, indices on the size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ighly-skilled manpower by industrial sector, specialty and occupation, and inter-sectoral mobility of the labor force can be produced.

Flow statistics are produced based on the education statistics (school admission and graduation), graduates' job acquisition statistics and population mobility statistics, which are generally available as administrative statistics.

D. Education

In a knowledge-based economy, education is a basic element for the utilizat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and therefore, it is regarded as important as physical resources. Information on education includes statistics on school education and those on vocational training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main source of information on school education is education statistics, while information on vocational training largely comes from vocational training statistics.

Vocational training is a kind of investment in intangible resources, designed to develop and improve workers' employability, and serves to enhance corporate productivity and increase product

quality and competitiveness.

Among the survey items of vocational training statistics are training areas, content of training, size of investment in vocational training, number of participants in vocational training, and length (hours) of training.

2. Measuring the knowledge-based economy

As the Korean economy is looking forward to a knowledge-based economy, the measurement and explanation of the progress of a knowledge-based economy in statistic terms are of a growing concern to policy makers. How can we measure the extent to which the economy is knowledge-based?

A. Classification

Before discussing the measurement of a knowledge-based economy, the definition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y and classification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made.

1) Classification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y

OECD defines the knowledge-based industry as an industrial sector which injects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more

intensively than other sectors. According to the OECD definition, the knowledge-based industry is divided into 'the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The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is sub-divided into the following 10 sectors, which are grouped into i) high-tech sectors and ii) medium high-tech sectors, depending on the size of R&D investment:

- Aircraft and spaceships;
- Office and computing equipment;
- Medical products;
- Video and telecommunications devices;
- Precision optical instruments;
- Automobiles;
- Electric machinery;
- Chemical products;
- Transportation machinery; and
- Other machinery and devices.

Meanwhile,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includes the service sectors which are generally considered highly technology-intensive, as shown below:

- Telecommunications service;
- Financial and insurance sector;
-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 and

- Public, social and private services.

However, it is criticized that the OECD classifications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y are too comprehensive, because the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classification is based only on R&D activities, and the selection of knowledge-based service sectors is based on the general classification.

In recognition of the demerits of the OECD classifications, KNSO is working on development of industrial classifications tailored to the Korean reality, while employing the OECD classifications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following will be considered for the selec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ial sectors:

- R&D activities;
- Human resources indices (R&D manpower, share of college graduates, and share of high-skilled manpower);
- Intens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 Patent indices

2) Classification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OECD classifies occup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ree definitions: broad definition, narrow definition and the narrowest definition.

This classification, however, has too wide a coverage, as it includes, in the scope of science and technology occupations,

general managers, educational semi-specialists and other semi-specialist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KNSO is also working to create a new classification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ppropriate both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domestic features.

B. Corporate and Industrial Structure

KNSO has conducted surveys on R&D and innovations in an effort to identify individual companies' commitment to knowledge generation and the outcome of such endeavors.

The R&D survey is carried out on an annual basis, in accordance with the OECD manual developed in 1995. This survey covers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technology, medicine and agricultural science in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medic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and looks into the size of R&D workforce and R&D investment, and R&D activity performance.

A survey on innovation was conducted on a pilot basis in 1996. At that time, the survey covered manufacturing, construction, computer-related services and technical services, and examined technology introduction, technical innovation expenditure, and utilization and evaluation of technical innovations.

KNSO plans to develop the innovation survey further, by doing more studies and reviews on how the survey can be best

conducted.

C. Labor Market

The Employment Structure Survey, which is taken every 5 years, serves to provide information on skilled workforce in the labor market. Approximately 60 items, including education, specialty, industrial sector, occupation, economic activeness, job transfer, and income, are examined in this survey.

As a supplement to the Employment Structure Survey, the 200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ill include survey items for the labor market information, such as the size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high-skilled manpower by industrial sector, specialty and occupation. More precisely,

- i) education level (“less than 4-year college education”, “4-year college education”, “graduate courses for the master’s degree” and “graduate courses for the doctor’s degree”);
- ii) specialty (13 categories);
- iii) occupation (classes); and iv) industry (classes) will be surveyed. This survey is expected to gi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terrelations between specialty and occupation and between acquisition of technical skills certificates and occupation.

D. Education

With a view to identifying the diffusion of knowledg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education-related surveys. School education surveys are useful; the numbers of admissions and graduates by education level and specialty help understand the size of manpower entering the knowledge-based industry.

Vocational training statistics are also a crucial source on information on education. These statistics include statistics on the private sector and those on the public sector, depending upon who provides vocational training. Training in the public sector is identifiable through administrative data, while separate surveys are required to gather information on vocational training in the private sector.

Surveys on private establishments can cover i) employees' households; ii) employers; and iii)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in linkage. The most appropriate survey coverage will be the third one, in that it enables us to gather information on both the supply and demand sides of vocational training. This survey, however, has yet to be developed in the coming years.

E. Development of the Activity Index of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mor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knowledge-based industry, KNSO plans to conduct statistical surveys on service sector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anufacturing surveys. In a related movement, the activity index of the knowledge-based service sector is being developed.

The planned surveys will cover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electric communications, data processing and other computer operations); the information contents service and R&D sector (advertising, film, broadcasting and other cultural sectors); legal service, accounting, market surveys and business services;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other technical services; education, health and other social services; and play, music and other artistic services.

Main survey items will include monthly sales, number of workers employed and the size of fixed asset. The survey findings will provide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knowledge-based service sector.

Monthly activity indices of the knowledge-based service sector will be worked out within this year, and based on this, comprehensive statistics on the knowledge-based industry applicable to the entire economy, will be produced in 2001.

F. National Knowledge Map

KNSO intends to draw up a National Knowledge Map, which will give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n the degree of knowledg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by the general public.

Educational attainment, duration, specialty, occupation, industry,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national technical skills certificates, skill level and geographic distribution will be all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mapped out in the Map.

The 200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ill survey basic items concerning national knowledge that will lay the groundwork for setting up the National Knowledge Map.

IV. Concluding Remark

As reiterated several times before, KNSO dedicates itself to measuring how far the Korean economy is digitalized and knowledge-based. Although adequate and accurate indicators for this purpose are not available yet, continuous efforts will be made to develop new indicators and supplement existing ones, with the policy concerns on the need of the measurement taken into account.

Research and studies on the indicators developed and used by leading countries in this field will be conducted, so that the indicators can serve as a useful reference.

The Impact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on Statistical Services

I. Introduction

The Korean economy has enjoyed high growth prior to the currency crisis. It achieved 8~9 percent growth and the per capita income reached over US 10,000 dollars.

It was the 11th largest economy in terms of trade volume in the world. However, it could not resolve the currency crisis and had to resort to the financial support and assistance from the IMF in November 1997.

What were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crisis? Before looking at the origins, let me review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아시아 통계기관장회의 "금융위기 속의 아시아경제" 회의시 발표논문(1998. 10. 1/필리핀 마닐라 ADB)

the Korean economy.

Externally, following the devaluation of the Thai baht in July 1997, other southeast Asian currencies began to depreciate. The Malaysian ringgit began to depreciate in July 1997 and the Indonesian rupiah also devaluated in August 1997.

Some of the countries could not overcome the currency crisis and had to seek help from the IMF.

The southeast Asian crisis seemed to be a limited regional problem at first. However, it spread to other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Korean won was not immune to the southeast Asian currency crisis.

Internally, a large number of corporations, notably the Hanbo, Kia, and Haitai corporations, became bankrupt in mid 1997. The lending creditor banks of these corporations began to accumulate and suffer from bad loans.

Foreign investors began to withdraw from the Korean equity market and call back their loans in Korea. As a result, the stock market tumbled down and the currency depreciated sharply.

The stock market index fell nearly 50 percent and the exchange rate was devaluated almost 20 percent between July and November 1997. The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defend the Won with its foreign currency reserves.

Unfortunately, Korea could not defend the Won and faced the risk of a moratorium. Korea and IMF agreed on emergency loan of US\$ 57 billion for December 3rd, 1997.

II.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Crisis

1. Foreign Currency Reserves and Financial Market Movements

(1) The demand and supply for foreign currency reserves

The crisis deteriorated Korea's foreign currency reserves last year. However, the balance of foreign currency reserve in Korea have been improved conspicuously with: i) the loans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other financial agencies, ii) surplus in current account balance, and iii) the extension of the maturity dates of many of Korea's short-term liabilities.

In this situation, Korea's usable foreign currency reserves reached US\$41.4 billion as of the end of Aug. 1998, recording more than US\$40 billion for the first time. It is expected that the usable foreign currency reserves will exceed the target of US\$41 billion by the end of this year.

Foreign Currency Reserve Balance

(In billion dollars)

	End '96	End- Oct '97	End- Dec '97	End- Jan '98	End- Mar '98	End- May '98	End- Jun '98	End- Jul '98	End- Aug '98
Foreign currency reserve balance	33.2	30.5	20.4	23.5	29.8	38.8	40.9	43.0	45.1
Usable foreign currency reserve	29.4	22.3	8.9	12.4	24.2	34.4	37.0	39.3	41.4

Source : Bank of Korea

(2) Exchange Rates

The Korean won depreciated nearly 50% after the crisis hit Korea last year. Recently, the exchange rates have been stabilized at 1,300 won level per one US dollar as a result of improved foreign currency reserve balance.

Trends of Exchange Rates

	End '96	End- Dec. '97	End- Mar. '98	End- Jun. '98	End- Jul. '98	End- Aug. '97	11 Sep. '98
· Won/US\$	844.90 (-8.2)	1,695.00 (-50.2)	1,383.00 (+22.6)	1,373.00 (+23.5)	1,230.00 (+37.8)	1,350.00 (+25.6)	1,366.50 (+24.0)

Notes : Parenthesis refer to % change over the same period of the last year

Source : Bank of Korea

(3) Interest Rates

Interest rates rose steeply immediate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t has been showing a downward trend recently in line with the open market operation based on the stability of foreign currency reserves.

The call rates now hover around 8 percent from the 31 percent level at the end of last year. Yields on corporate bonds have dropped to 13 percent from 18 percent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Similarly, the yield of CP came down from 22 percent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to 11 percent.

Trends of Interest Rates

(%)

	End '96	End- Dec. '97	End- Jan. '98	End- Mar. '98	End- May. '98	End- Jun. '98	End- Jul. '98	End- Aug. '98	14 Sep. '98
· Call Rate	12.1	31.3	27.2	22.1	16.7	14.4	10.1	8.5	8.3
· CP(91days)	17.8	40.8	22.2	23.3	19.4	17.0	12.8	10.9	11.2
· Corporate Bond (3 years)	15.1	29.0	18.5	18.3	17.8	16.1	12.3	11.7	13.5

Source : Bank of Korea

2. Business Activities

(1) Bankruptcies and Corporate Creations

The financial crisis led to the increase in bankruptcies, reaching record high 3,323 corporate bankruptcies in January 1998. However, with declining interest rates, corporate bankruptcies has been showing a downward trend since March this year.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new corporations was found to be relatively small in January 1998. But we do observe a modest increase since then.

(%, each)

	1997	1998					
	12	1	3	4	5	6	7
Insolvency rate of commercial bills	0.84	0.69	0.56	0.57	0.53	0.54	0.68
Number of bankrupted corporates	3,197	3,323	2,749	2,462	2,070	1,825	1,799
Number of corporates newly created	1,459	1,242	1,777	1,726	1,434	1,483	1,586

Note : The numbers refer to the data for seven large cities in Korea.

Source : Bank of Korea

(2) Suspension and Closure of Small & Medium sized Companies

The crisis also led to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suspended or closed small & medium sized companies due to the difficulties in securing operating fund and to reduced market demand. The situation has not improved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 rate of suspension or closure of small & medium-sized companies continue to rise

	1997				1998			
	10	11	12	1	2	5	6	7
· Suspension rates(%)	1.39	1.44	1.63	1.76	1.83	2.49	2.54	3.16
· Closure rates(%)	0.05	0.09	0.43	0.15	0.20	0.08	0.19	0.24

Source : Federation of Small & Medium sized Corporates

3. Labour Market

(1) Employment

From 1987 to the onset of the crisis, the unemployment rate remained below 3 percent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In 1995 and 1996, there was near full employment. In fact, there were sign of emerging labour shortages.

However, as Korea struggled with an unprecedented currency turmoil, unemployment rate soared to 7.6 percent in July 1998, a 32-year record high. This was mainly due to the decrease in job opportunities as well as job losses which have occurred largely among workers employed 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 also observe that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ontinue to fall as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have given up looking for jobs. They are classified as an economically inactive group.

(% change over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1997			1998			
	3/4	4/4	yearly	1/4	2/4	Jul	Au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change)	1.5	0.6	2.0	-1.0	-0.9	-1.0	-1.5
Employed(% change)	1.2	0.0	1.4	-3.7	-5.4	-6.5	-6.8
Unemployed rate(%)	2.2	2.6	2.6	5.7	6.9	7.6	7.4
Unemployed(in thousand)	470	561	556	1182	1485	1651	1578

Source : NSO

(2) Wages

Real wages had been rising at a record pace over the past three decades, except during the second oil crisis period. Since 1997, however, the growth rate of wages (even in terms of the nominal wages) decelerated significantly, from 11.6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to 0.9% in the fourth quarter. The declining trend in wages continued to be -1.2% in the second quarter of 1998.

	1997					1998		
	1/4	2/4	3/4	4/4	Ave	1/4	2/4	Ave
Nominal Wages (% change)	11.6	9.7	3.4	0.9	7.0	0.1	-1.2	-0.5

Note : 1) Data refer to companies with 10 or more employees

2) The total wages in Korea generally consists of three elements: the basic wages, overtime premium and bonus.

Source : Ministry of Labour

4. Industrial Activities

(1) Production, Shipment, Inventory and Operating rate
Industrial production, manufacturers' shipment and producers' inventory have been shrinking steadily due to the sluggishness of domestic consumption. Plant operation rate also plunged to 63.7 percent in July 1998, hitting the lowest level since 1985 when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irst compiled such figures.

(% change over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1997					1998			
	1/4	2/4	3/4	4/4	yearly	1/4	2/4	June	July
Production	5.4	7.7	8.8	5.5	6.9	-7.8	-11.6	-13.2	-12.9
Shipment	1.6	7.3	8.0	3.2	5.0	-7.5	-13.3	-14.3	-14.1
Operating rate	79.8	81.1	80.6	78.0	79.9	67.3	67.1	66.4	63.7
Inventory	79.8	81.1	80.6	78.0	5.3	-4.7	-7.6	-7.6	-7.8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 Investments

Investments in plant, machinery, and construction dropped steeply as a result of the ongoing recession and the uncertainty of future economic activities.

(% change over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1997					1998			
	1/4	2/4	3/4	4/4	yearly	1/4	2/4	June	July
Domestic machinery orders received	7.7	10.4	11.3	-15.2	3.3	-39.3	-44.2	-43.6	-26.8
Machinery imports	-13.9	-0.4	-34.6	-20.9	-22.8	-52.9	-57.4	-62.3	-60.7
Permitted area for construction	-3.4	3.6	-15.1	-31.0	-0.4	-22.9	-59.6	-54.3	-63.5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3) Consumption

Indicators for consumption have showed poor results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decrease in consumption of domestic consumer goods and durable goods. This suggests that the economic uncertainties and credit squeezes occurred in the course of restructuring have placed immense pressure on domestic demand and the economy is liable to plunge into severe recession.

(% change over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1997					1998			
	1/4	2/4	3/4	4/4	yearly	1/4	2/4	June	July
Wholesale and retail sales	2.5	4.6	5.7	-0.1	3.2	-10.4	-15.5	-16.0	-17.4
Shipment of domestic consumer goods	-3.5	-0.7	2.7	-4.3	-1.5	-19.7	-26.3	-26.5	-23.6
Durable goods	-3.5	10.9	16.4	-2.5	5.0	-25.5	-35.0	-35.7	-32.8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4) Exports and Imports

Exports have increased steadily up to April 1998. However, the export growth weakened in May. We can probably attribute this to the depreciation of the Japanese Yen and the financial crisis taking place in Russia.

Imports have decreased sharply as a result of the depreciation of the Korean Won and the sluggish domestic consumption. Current account has recorded US\$25.5 billion surplus due to the decrease in imports from January to July in 1998.

Current account trends

(in billion dollars)

	1997					1998		
	1/4	2/4	3/4	4/4	yearly	1/4	2/4	7월
Current account	-7.4	-2.7	-2.1	4.0	-8.2	10.8	11.0	3.7
Trade balance	-5.4	-0.8	0.0	3.1	-3.2	9.7	11.4	4.0
Exports	31.1 (-1.4)	36.0 (9.2)	34.9 (15.8)	36.7 (5.0)	138.6 (6.7)	32.2 (8.5)	35.0 (-1.6)	10.2 (-13.9)
Imports	36.5 (7.1)	36.8 (2.0)	34.9 (2.1)	33.6 (-13.5)	141.8 (-2.2)	23.9 (-35.5)	23.7 (-36.7)	7.1 (-43.9)

Note: () refer to % changes over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5) Inflation

Consumer prices rose 8.3 percent in January and 9.5 percent in February immediate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However, they began to show a downward trend with the stabilizing foreign exchange

rate, the lowering prices of industrial products, and other declining consumer goods.

Consumer price trends

(% change over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1997					1998				
	1/4	2/4	3/4	4/4	yearly	1/4	2/4	7	8	1~8
Consumer prices	4.7	4.0	4.0	5.1	4.5	9.0	8.2	7.3	6.9	8.2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5. Family Formation and Social Status

(1) Change in Family Formation

The number of young couples postponing their wedding is increasing with the deterioration of economic condition. During the second quarter of 1998, marriage occurrence was down 19.5 percent compared with that of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On the other hand, divorce occurrences sharply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re was an increase of 15 percent in divorce occurrences in 1997 from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however, during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the increase was 41 percent.

(in thousand, over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1997				1998	
	1/4	2/4	3/4	4/4	1/4	2/4
Marriages (% change)	78 (-12.7)	98 (0.4)	36 (4.0)	98 (-4.2)	72 (-7.7)	78 (-19.5)
Divorces (% change)	19 (14.8)	19 (13.5)	19 (19.9)	17 (13.9)	24 (25.3)	27 (41.0)

Source : NSO (preliminary)

(2) Increasing number of the homeless

We also observe th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rs who went bankrupt and the unemployed who did not want to inform their loss of jobs to their family stay away from home and become homeless. As a result, the number of these homeless people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began.

(in person)

	1998. 2	1998. 4	1998. 9
Number of homeless	1,000	2,020	3,050

Source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3) Drop in asset value and downward movement of social status

The crisis also affected the value of financial assets and real

estate(e.g., land and house) in a negative way.

This was due to i) the increase in the occurrence of dishonoured bills, ii) the increase in quantity of estate for sale and iii) the lowering stock price. In case of the stock price, it already showed a decreasing trend since May 1997 well before the crisis.

Although it is not shown in the table,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income group is found to be turned downward since the crisis. 8 to 10 percent of wage and salary earners' households in all cities moved to the lower income group where income groups classified as low(30 percent), middle(50 percent) and high(20 percent) when we compared the distribution between that of the first half of 1997 and 1998.

	Rate of change(%)	* Reference period
· Stock price	-54.6	1997.5 versus 1998.7
· Housing price	-11.8	1997.11 versus 1998.7
· Land price	-20.0	4/4 1997 versus 2/4 1998

Source :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4) Decline in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ncreasing saving

Savings by wage and salary earners' households in all cities increased even though their income decreased since the crisis. This implies that the decrease in their consumption is greater than that of

their income.

(% change over the same period last year)

	1996	1997				1998	
		1/4	2/4	3/4	4/4	1/4	2/4
Increasing rate of income	12.6	9.3	8.5	7.0	0.6	-2.8	-5.3
Increasing rate of consumption expenditure	13.4	5.2	4.5	8.2	-0.8	-8.8	-13.2
Saving rate	-0.7	2.5	2.6	-0.7	1.0	3.9	5.1

Source : NSO

III. The Reform Policies

The Korean financial crisis stemmed from a liquidity crisis. The foreign creditors worried about Korea's financial stability and assumed that usable foreign reserves will not be sufficient to defend the Korean Won.

They also worried about the weakness of the financial system burdened with a huge amount of non-performing loans. They called back their loans in increasing frequency which eventually brought about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IMF both recognized that the nature of the crisis as a financial one, and agreed on a loan program to stabilize the economy.

According to the program, Korea is to adopt a policy of high

interest rates to induce foreign capital and tight monetary and fiscal policy to stabilize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n the short term; and to carry out structural reform of its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e Korean government perceived that the crisis came from not only the foreign currency shortage but also the structural impediments in the economic system.

The government decided to reform four major sectors; the financial sector, corporate sector, labour market and public sector to rectify the structural weakness of the economy.

1.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is crucial for economic recovery, and thus has been at the center of government's reform efforts. Swift and prudent reform has necessitated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coordinate and monitor the reform process.

To this end, major financial reform bills were legislate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reform. In addit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FSC) was created in April as an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y.

Korean banking authorities have been encouraged to restructure their commercial banking system. To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banks, the government has been encouraging mergers between financially sound banks and lifted

ceilings on the foreigner's equity holdings of banks.

To speed up the normalization of bank management, the FSC required submission of rehabilitation plans by the twelve banks that have not met the BIS capital adequacy ratio. Those banks that fail to prove their viability will be either merged or close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will also undergo a similar restructuring process.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of non-performing loans,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KAMC) has been purchasing bad loans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The recapitalization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will also be made through the fiscal support.

2.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There are two main objectives in corporate restructuring. The first is reduction of corporate debt. The second is improvement in management transparency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government will not intervene directly in the restructuring of the corporate sector.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The Chaebols(conglomerates) have already pledged to implement restructuring measures, including steps to: 1) enhance their transparency 2) eliminate cross-debt guarantees, 3) improve their capital structure, 4) focus on core business and corporates with small business, and 5) increase the accountability of major

shareholders and managers.

The Chaebols have been required to eliminate their existing cross-debt guarantees by the year 2000, and prohibited to issue new guarantees since April. To improv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corporations agreed to produc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tarting in 1999.

3. Labor market reforms

The labor market in Korea was rigid in the past. The legal system has awarded workers substantial job security by limiting layoffs and temporary contracts. The unclear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layoffs placed an obstacle in reaching flexible market adjustment as economic growth slowed in the 1990's.

The current crisis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enhance market flexibility and restore market mechanism into the labor market. Reform concerning labour market centers o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market flexibility such as redundancy layoffs and manpower leasing.

The Tripartite Committee was created for labour market reform. It consists labour, business, and government. It supports the government's labour market reform.

In addition to the labor market reforms, the government promotes job creation. The government has expanded not only the job training system but also job flexibility by introducing a voucher

system.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unemployed. Furthermore, the government will foster a more competitive market for job placement services through privatization.

4. Public sector reform

Public sector reform is also a crucial element in economic restructuring. The main direction of fiscal and public sector reform is to adopt more market-oriented mechanisms and managerial strategies to increas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To this end, fiscal expenditure management will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budgeting for results”. Medium term fiscal plans will be established to increase more flexibility in budget allocation. Tax structure will also be streamlined in order to increase transparency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ost importantly, public sector reform will be geared toward a small but efficient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central government was downsized last February and a large number of public agencies will be restructured or privatized to increase their efficiency.

Many central government functions were delegated to local governments. Some of the public enterprises will be privatized to increase efficiency. The government is reviewing 26 public corporations and their 82 subsidiaries in order to establish a practical privatization plan.

IV. Impact on Statistical Services

1. Statistical Personnel

Korea has 103 official statistical organizations to compile 377 official statistics. The statistical organizations are 25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16 provincial governments, and 62 non-government organizations.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s the central statistical agency,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36 kinds of statistics which are mostly basic statistics.

As I mentioned above, the Korean government is reforming the public sector, and downsizing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Reform Committee drew the government restructuring scheme which aimed at promoting a small but efficient government.

Thus, a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as enacted, reflecting the final version of the Committee which went into effect last Feb., 28th.

The main contents of the program are as follows:

- The number of Cabinet ministries decreased from 21 to 17 while the number of minister's level officials dropped from 33 to 24.
- The civil service will be downsized by 10.9% of the current total of 161,855 public servants over 3 years from 1998 to 2000.

Fortunatel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s not significantly affected in personnel and budget, compared to other government offices. The curtailment of NSO's personnel is shown to be 29 persons which represents 2.2% of total members at the beginning of 1998.

On the contrary, the NSO's function has been expanded to cover 9 additional agricultural and fisheries statistics, taking over 500 persons from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 (430 persons) and Ministry of Maritime Affairs(70 persons) as of 1 July 1998.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s the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has become strengthened.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the impact is found to be more severe.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in local governments will be cut by 12.1% from the current total of 290,205 this year.

Downsizing Scale at Central & Local Gov't

	T/O	Decreased numbers			
		Total(%)	1998	1999	2000
Central gov't	161,855	17,597 (10.9)	7,743 (4.8)	6,396 (4.0)	3,458 (2.1)
Local gov't	290,205	87,000 (30.0)	35,070 (12.1)		

Note : The personnel in local governments will be downsized by 30% by the year 2002.

Source : Ministry of Govt Administration & Internal Affairs

Statistical Personnel

	98.1.1	98.2.19	98.3.3	98.7.1	98.8.1
NSO	1,301	1,292	1,281	1,781	1,772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Out of 2,000 working for data collection, 500 persons were transferred to NSO as of 1 July 1998				
Provinces	Division level for statistical work was shrunk to section level				
Bank of Korea	Statistics Department, Research Department and Research Institute of Finance & Economy were merged into Research Department as of May 1998				

The recent statistical environment has deteriorated since the onset of the crisis. Respondents are reluctant to answer statistical inquires. As some of them are unemployed or bankrupt, it is not so easy to get cooperation from them. Furthermore, the statistics are required to be more accurate, diversified and timely disseminated.

The local governments squeezes the statistical departments and the manpower for statistics to downsize the organization and the personnel. This will affect the quality of the statistical work compiled by the local governments.

2. Budget

The Supplementary 1998 Budget was made to reflect the situation of the financial crisis. The Supplementary Budget showed a decrease of 2.3 percent compared to that of the original budget. With regard to the NSO's Supplementary Budget for 1998, it was

cut down by 8.2% compared to that of the original budget.

In particular, the expenses for overseas travel were cut by 47.1 percent, reflecting the shortage of foreign reserves and high exchange rate.

In contrast with no significant effect in personnel, the impact of the crisis on NSO's statistical budget is found to be above the average of other sectors of the government.

1998 Original and Supplementary Budget

(in billion won)

	Original	Supplementary	Difference	
			Value	%
Central Gov't	75,464	73,765	-1,699	-2.3
NSO	57	52	-5	-8.2

V. Conclusion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s not due to a single factor but rather to multiple factors to whic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contributed significantly.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crisis is very severe and nationwide.

It affects not only the economy but also the pattern of citizen's life. As the financial crisis hit the real economy,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of unemployed, and a change of the pattern of citizen's life.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up its comprehensive economic restructuring program. This includes the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the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the public sector reform and labour market reform.

When the restructuring process is completed, the Korean economy will recover soon and re-emerge as a truly integrated market-based economy that is more dynamic and globally competitive than in the past.

By the way, it is our assessment that the impact of the crisis on NSO's statistical services has been negligible. However, we observe that there has been significant increase in demand for statistics. Furthermore, the data are required to be more accurate, diversified and timely disseminated.

On the other h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tatistical services are found to be unfavorable in some aspect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s the increasing reluctance of respondents to statistical surveys.

Although the circumstances are becoming unfavourable, NSO of Korea will do its best to improve the statistics of Korea. NSO of Korea has initiated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statistics: developing new statistics, improving the quality of existing statistics, applying new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ing closer links with user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tatistical cooperation.

※ References

ILO Regional Office for Asia & the Pacific, The Social Impac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Bangkok(<http://www.ilo/public/>)

IMF, The Asian Crisis : Causes and Cures, Finance & Development, Vol. 35 No. 2, 1998 ([http://www.imf.org/ external / pubs](http://www.imf.org/external/pubs))

IMF, Guide to the Data Dissemination Standards, 1996. 5

Kim, Suk-Joon, The Reinventing Program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Global Information Age,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to Commemorate the Golden Jubilee of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11~12 Aug. 1998,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Lee, Kyu-Sung, Opening a New Horizon : Korea's Structural Reform, Speech at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n 21 April 1988

Lee, Kyu-Sung, The Asian Crisis and the Korean Economy, Paper presented at Pan-Pacific Conference on 1 June 1998 ([http:// www. mofe.go.kr/](http://www.mofe.go.kr/))

Lee, Kyu-Sung, Korea's Economic Reform : Foundation for Success, Speech at the 6th Government Roundtable in Korea on 24 June 1998, Seoul(<http://www.mofe.go.kr/>)

Pak, Po-Hi, Responding to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mplication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KDI & UNDP, 1998. 7

Park, Daekeun & Changyong Rhee, Currency Crisis in Korea : Could It Have Been Avoided ?, 1998. 4

Yoon, Young-Dae, Countermeasuring the Crisis and Economic Forecasting, Lecture Material for Hannam University(in Korean), 17 Sept. 1998

Yoon, Young-Dae, Statistician's Role in Overcoming the Crisis(in Korean), Lecture Material for NSO Staff Members(in Korean), 7~10 July 1998

Wade, Robert, The Asian Debt-and-Development Crisis of 1997-? : Causes and Consequences, World Development(Aug. 1998), The Russel Sage Foundation(<http://mypage.channeli.net/huntkim/Asia>)

Ministry of Finance & Economy(MOFE), Comprehensive Measures in Restructuring of Korean Economy, Monthly Economy, Vol.37 No.6, 1998. 6(<http://www.mofe.go.kr/>)

MOFE, Economic Policy Directions for the 2nd half of 1998, Monthly Economy, Vol. 37 No. 8, 1998. 8(<http://www.mofe.go.kr/>)

MOFE & KDI, DJnomics : Open the Tomorrow with People(in Korean), 1998. 9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Monthly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July 1998

NSO, Consumer Price Index Monthly, Aug. 1998

NSO, Monthly Statistics of Korea, Aug. 1998

NSO, Monthly Industrial Activities in Korea, Aug. 1998

1. Introduction

In step with the rapid advance in digitalization, Korea is entering the era of digital economy. There is no internationally agreed definition of the term 'digital economy'. To quote the definition given by US Department of Commerce, digital economy is the economy where production, sale and acquisition of goods and services are heavily dependent on digitally-based technologies.

The Department's discussion about digital economy centers on IT industry and electronic commerce. Meanwhile, OECD uses such expressions as information society and information economy, focusing its analysis on IT industry, contents, e-commerce and

Meeting of Asian Statisticians on IT&T 발표 논문(2001. 5. 29/호주 Brisbane)

digital divide.

The notable forces driving behind digital economy are the developed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rapid Internet penetration. Underlying the digital economy are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ever-growing e-business.

The economy digitalization is sweeping the globe, and Korean society is not an exception. The level of digitalization is going higher in Korea, as illustrated in the numbers of subscribers to PC, telephone or mobile phone, Internet hosts and Internet users per 100 persons. These indicators have shown a fast growth, although Korea is still behind Singapore, Hong Kong, Japan and Australia, in terms of those figures.

The problem is,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has brought the country a widening digital divide among people of different income levels, educational attainments or ages, just like in advanced countries (Korea Information Culture Center, 1999).

Digital divide will further broadens income gap, which not only is a bad news itself but also may stifle consumption. Policy makers in Korea, who are well aware of seriousness of the problem, have paid an increasing attention to the issues of digitalization status and digital divide.

In the digital economy, consumption is being made in different manners from the traditional ones. More precisely, the expansion of Internet-based e-commerce will expose both buyers and sellers to

the global market; competition among businesses for a much larger market and new potential customers will be fierce; and customers will be offered more products and services to choose from.

Corporate management is not immune to these changes. With the emergence of companies specialized in e-commerce, business strategies will go through a profound change; the productivity of the companies that have adopted e-business practices will likely improve; direct contacts between end-users and producers will bring forth a new type of distribu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With the progress of digitalization, IT industry is of growing importance in the economy as a whole. Indeed, IT industry seems to have considerable effects on GDP, export/import, employment and other macroeconomic factors. The following gives a detailed description on the impact of IT industry on the national economy:

(1) Economic growth: The value-added of IT industry increased by 23.9% on annual average in the 1991~99 period, which is far above the economic growth rate of 5.9% in the same period. The 1st half of 2000 posted a notable growth of 41.2%, and accordingly, the contribution of IT industry to economic growth was rated at 45.9% in the half-year. (Bank of Korea, 2001)

(2) Export: The export of IT products, including semiconductors and telecommunication equipment, recorded a 19.2% increase on annual average in the 1991~99 period, driving the export growth in

Korea. The IT products export recently increased by more than 40%, leading to a rise in import of related parts and components and a growing demand for investment in IT. (BOK, 2001)

(3) Job creation: Employees engaged in IT occupations totaled approximately 1,257,000 people (3.7% of the entire population of working age) in 2000, and is forecast to increase to 1,588,000 in 2005. The average annual growth of IT workforce for the five years is 4.8%, which is compared to the growth of total employed people of 1.96%. (KISDI, 2000)

(4) Inflation: Since the mid-1990s, the decline in prices of IT products has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curbing inflation. Producer prices rose 4.4% on annual average in the 1995~99 period, whereas prices of IT products declined 5.4% in 1999, lowering the producer prices by 0.8%p. (BOK, 2001)

(5) Productivity: In order to measure the impact of IT on productivity, the entire industrial sectors were divided into IT industry; IT-high industry; and IT-low industry. The comparison of productivity in the three categories revealed that only the IT industry showed a visible improvement in productivity, while the other two industries did not recorded productivity growth.

As digitalization has brought changes to a range of economic and social aspects, as mentioned above, the demand is growing for statistical measurement of the digital economy, among policy makers, entrepreneurs and scholars alike. The following parts of this

paper are to focus on how several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are working to produce measures and indicators of digital economy and to make improvements in reliability of the statistics.

These efforts to produce IT statistics made by government agencies l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ill be described in three parts: IT Industry (on the supply side); IT utilization by businesses (e-commerce included); and IT utilization by individual persons and households.

2. IT Industry

IT industry serves as basis of the digital economy. KNSO has administered a statistical survey on IT industry since 1996,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the surveys conducted until 1998 were limited to a narrow scope of sectors. In 1999, the coverage of the survey was further expanded to includ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T equipment and tools, S/W development, communication services and IT installation and construction projects.

The coverage was further grown in 2000 when information contents sectors, such as publishing, video and music recording, were added to the survey scope for the reference year 1999.

In Korea, IT industry is divided in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dustry and information

contents industry.

ICT industry refers to the industry that processes, transmits and displays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means, and includes all the industrial sectors producing, installing, distributing or operating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information processing, transmission and display.

On the other hand, information contents industry is the industry whose main business activities are to distribute and reproduce information contents.

Here, information contents means the information products whose contents can be created, stored and processed in an electronic manner. With regard to data collection, results of the incumbent surveys containing questions on IT industry are used.

That is, the responses to those survey questions are compiled for data collection. General information on those surveys used is shown below:

<Table 1> Surveys used to collect data for IT statistics

	Survey name	Interviewer	Method	Coverage
Manufacturing	Mining and Manufacturing Statistical Survey	Public servants of local governments (cities and provinces), and temporary staff	Responses entered by interviewers	100% of business establishments employing 5 workers or more
Wholesale and retail trade	Wholesale and Retail Statistical Survey	Staff of local statistical offices, and temporary staff	Responses entered by interviewers/ telephone survey/ mail-out mail-back survey	Sampled units
Communications and computer-related services/broadcasting	Current Information Technology Survey	Temporary staff	Responses entered by interviewers	Sampled units
Other services	Service Industry Statistical Survey	Staff of local statistical offices, and temporary staff		Sampled units

Major survey results compiled include: number of IT business establishments; number of employees; wages paid; sales (revenue); operating cost; tangible fixed asset; and value added. According to the results, in 1999 (surveyed in 2000), IT business establishments grew in number by 7.5% from a year earlier; the workers employed in those establishments increased by 6.5% year-on-year; and sales

and value added jumped by 26.3% and 25.7%, respectively.

For the information contents industry which was newly added to the survey in 2000, establishments numbered 13,427 units; employees were 141,609 persons; and sales and value-added amounted to KRW14 trillion 604 billion and KRW7 trillion 480 billion, respectively.

<Table 2> IT industry statistics

		No. of establishments	No. of employees	Sales (KRW1 billion)	Value-added (KRW1 billion)
IT Industry	1998	28,456	518,276	97,880	43,166
	1999	30,596	552,121	123,641	54,246
	(%)	7.5	6.5	26.3	25.7
Info contents	1999	13,427	141,609	14,604	7,480

With the aim of improving adequacy and reliability of the statistics on IT industry, all the manufacturing companies employing 1 worker or more will be covered by the statistics by using results of the incumbent survey (Basic Business Establishment Statistical Survey) on the manufacturing companies with 4 workers or fewer which are not covered in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tatistical Survey.

Meanwhile, the household electronic appliances wholesale/retail will remain outside the scope of survey as the IT products represent only a meager of the whole products in the sector. However,

additional arrangements will be made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le overlapping of the household appliances and the IT sector as further technological advance is made.

3. IT Utilization by Businesses

1) E-commerce Survey

In response to the fast growing of e-commerce in Korea, KNSO has conducted e-commerce surveys starting from April 2000. For the purpose of statistical surveys on e-commerce, Business-to-Consumer (B2C), Business-to-Business (B2B) and Business-to-Government (B2G) are surveyed to identify the status of e-commerce between economic entities, such as households,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B2C, B2B and B2G constitute separate surveys, as the three sectors require different scopes of survey coverage and extent and show different development stages in e-commerce.

First, the B2C survey is conducted among cyber shopping malls, which currently have a strong showing in B2C e-commerce. This survey is done on a monthly basis and among all the identifiable cyber shopping malls, with a view to getting a general picture of B2C and understanding the trend of the fast-growing sector.

The reasons why a 100% and monthly-based survey is not an impossible idea for B2C are: the universe can be identified with the

help of the domain registration authority and search engines; and the cyber shopping malls total below 2,000, at least for now.

According to the latest survey results of Feb. 2001, cyber shopping malls numbered 1,876 and recorded total sales of KRW237 billion. Out of the total sales, B2C accounted for KRW177 billion, which took up 1.7% of the sales in the retail trade.

The ratio of B2C e-commerce to the retail trade shows a steady rise: from 1.1% in the 3rd quarter of 2000; to 1.5% in the 4th quarter of 2000; and to 1.7% in Feb. 2001. By contrast, the universe of the B2B survey is not easy to establish, as the B2B sector, especially when the broad concept of e-commerce proposed by OECD is applied, takes a wide range of various forms, such as EDI and Internet EC and the existing EDIs are in transition to the Internet platform.

In the meantime, as the B2B e-commerce system requires an enormous amount of initial investment, the most likely candidates for e-business are large-sized companies and EC-related firms. In this light, special surveys are done about such companies to find out the trend of B2B transactions and their plan for e-commerce.

At present, surveyed establishments number about 2,100 and posted KRW8 trillion 117.1 billion in e-commerce sales in the 4th quarter of 2000. Internet-based sales accounted for KRW2 trillion 578 billion. The establishments spent KRW13 trillion 732 billion on e-commerce purchase in the same period, of which KRW7 trillion

827.1 billion was Internet-based. In the future, the scope of B2B e-commerce survey will be expanded to include unlisted companies.

In the B2G sector, the immense purchasing power of the Governme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is likely to create a buyer's market. Therefore, the B2G survey is designed to measure the e-commerce market characterized by open competition for supplies in large quantities to the Supply Office and the Government's other procurement agencies.

The survey is expected to be carried out beginning this year. In addition, in order to estimate the spread and extent of e-commerce across the industry in general, questions on sales of e-commerce are added to the survey forms of the incumbent statistical surveys conducted by KNSO. For a survey purpose, the staff of regional statistical office under KNSO contact companies for interviews. In the case of B2C survey, in addition to the interview, e-mail may be used so long as accuracy is not undermined.

The KNSO surveys on the B2B and B2C sectors largely consist of items intended to measure the EC infrastructure and the EC intensity. The EC infrastructure, which is a basis for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commerce, can be evaluated by a large number of specific indicators in such aspects as hardware, software and support system, as recommended by OECD.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the EC infrastructure, KNSO has selected 4 specific indicators under the EC support system, that is, e-

commerce security; authentication authority; delivery means; and payment/settlement methods, all of which are believed to be crucial to the widespread of e-business in Korean reality.

Meanwhile, the indicators for EC intensity suggested by OECD include: use of computer/Web site/Internet communication network; size of transactions; transaction processes; and the categories of products. KNSO has chosen the following specific indicators to understand the size of transactions, transaction processes and the categories of products : Income size; business costs; amounts of sales and purchase; trading partners (sellers or buyers); and the use of communication networks (Y/N), by transaction process.

With regard to indicators for EC impact, a separate study on developing specific indicators to measure the effect EC has on prices is being made in the Consumer Price Survey sector.

2) Knowledge-based Industry Statistical Survey

ICT utilization in business establishments plays a crucial role in spread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order to estimate the extent to which ICT is made use of in business establishments, the Knowledge-based Industry Statistical Survey administered by KNSO contains questions on ICT utilization.

Those questions are: ownership of computerization equipment and facilities; number of PCs connected to Internet; percentage of

ICT workforce; ICT investment; and obstacles to ICT utilization. Knowledge-based Industry Statistical Survey is a sample survey covering all the service industrial sectors but the wholesale and retail trade. For this survey, staff of regional statistical offices contact sampled business units and directly enter the responses upon interview.

Knowledge-based industry refers to the industry to which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are intensively injected. The OECD classifica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y includes manufacturers of state-of-the-art technology or mid- or high-level technology and service sectors with a high intensity of ICT or knowledgeable human resources.

However, given the difficulty of measuring such intensity, lack of statistic materials and the need of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ECD enumerates applicable service secto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inancing and insurance, business services, health care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real estate and rental, entertainment and culture/sport-related business, other public repairs and individual services.

The OECD classification mentioned above has such a broad coverage that it may include the sectors that should not be includ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dapt the OECD classification standards to the results of the knowledge-based industry survey in Korea to create a classification befitting the Korean reality.

The questions on knowledge-basedness of each industrial sector and the comparison of ICT industry and non-ICT industry in the survey will help get a picture about digital divide and digitalization status. Moreover, the survey results will be useful data for analysis of how much the ICT utilization contributes to growth in productivity.

3) E-commerce Survey b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asked Korea Institute for Electronic Commerce to conduct an e-commerce survey in 1999 and 2000. This survey covered a sample of ordinary companies and 100% of cyber shopping malls, and adopted the OECD definition of e-commerce.

According to the broad definition, e-commerce refers to sale or purchase of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computer networks. In addition, the survey contained questions designed to measure the e-commerce rate by industrial sector.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ntire commercial transaction values to estimate the size of e-commerce.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e-commerce market expanded by 89.4% from KRW9 trillion 194.9 billion in 1999 to KRW17 trillion 416.7 billion in 2000 and will be worth about KRW30 trillion in 2001.

E-commerce rate (e-commerce sales/total sales) registered 0.79% in 1999 and 1.67% in 2000. The e-commerce sales broke down by type of client into: 47.0% in B2B; 17.3% in B2C; 1.2% in B2G; and

34.6% in overseas and others,

4) Digitalization Statistical Survey by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siness establishments)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a subsidiary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has administered an annual survey on digitalization of the government, business and households.

For the survey of business establishments, a total 2,178 companies with 5 employees or more are visited by temporary staff, who directly fill out the questionnaire upon interview. Survey questions are mainly about ownership of digital tools and equipment and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detail, to measure the ownership of digital tools, numbers of PCs owned, general-purpose computers, Internet hosts, wired/wireless 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subscribers to the facilities are asked, while numbers of PC users and PC communications or Internet users, Internet user satisfaction and frequency of e-commerce are asked to find out the level of digital technology use.

As of July 2000, the rate of intranet/groupware setup in businesses is 20%. By size of establishment, the rate varies from 23% in companies with 5~9 workers; 39% in companies with 10~49 workers; to 62% in companies with 50 workers or more, clearly

showing that the rate increases with the establishment size.

The user satisfaction with intranet/groupware was rated at 73 points out of 100, while the user satisfaction with Internet was rated at 70 points. It is predicted that the use of intranet/groupware and Internet by companies will be further increased.

4. IT Utilization by Individual Persons and Households

1) Social Statistical Survey by KNSO (IT industry)

Key measures of digitalization are whether individuals and households have an easy access to information technology and how much opportunity they have to access IT. KNSO conducted a survey on the IT accessibility and the ability to use IT in 1997, and it administered the same survey on two occasions in 2000.

The 1997 Social Statistical Survey covered about 80,000 persons aged 6 or above of 34,000 sampled housing units, who were interviewed by staff of regional statistical offices. The same survey coverage and method was applied to the 2000 Surveys.

Major survey questions were: ownership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ools and equipment; experience of using computers or learning computer skills; ability to use computers; whether to use computers and for what to use computers; hours spent on computer use; PC communications and Internet; money

spent on communications; and impact of digitalization.

Computer ownership by household rose from 29% in 1997 to 46.4% in 2000, and computer literacy among people aged 6 or above also soared from 39.9% in 1997 to 51.6% in 2000. The main purposes of computer use were PC communications or Internet (40.4%) and computer games (27.8%) in 2000, which is compared with word processing (37.3%), computer games (32.5%) and PC communications or Internet (7.9%).

This comparison reveals a sharp increase in computer use for PC communications and Internet in a matter of 3 years, indicating that computer is really a media for globalization.

2) Current Digitalization Survey

Current Digitalization Survey is conducted to identify IT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of economic players and individuals of different ages, income levels and geographical regions and to use the survey results as a basis data for setting up digitalization policies.

This survey covers individuals aged 6 or above from a nationwide sample of about 30,000 households, who are contacted by regular or temporary staff of regional statistical offices for interviews or fill out the questionnaire themselves.

Survey questions include: PC or peripherals owned; money spent on S/W purchase; whether to own communications equipment or lines and how much to spend on them; plan to

purchase a computer; education/training on computer skills; ability to use computers; and whether to use Internet.

The responses to the 22 questions will be compiled by the end of this year and help us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igitalization status.

3) 200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For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2000, about 10% (1.5 million units) of the total households in Korea were interviewed. The collected data are still under the compiling process, and the final results will be published at the end of this year.

The questions concerning IT were: ownership of IT equipment (PC, telephone, fax, satellite dish, connectedness to a local PP (program provider) or cable TV or Internet line) by household; PC use by individual; Internet use by individual; and ownership of mobile communications equipment (mobile phone, wireless pager, etc.) by individual.

The compilation may be used to draw up a knowledge map or to analyze the digitalization by social and demographic variants.

4) Digitalization Statistical Survey by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ouseholds)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as conducted an annual survey

on digitalization in households since 1997. This survey covers individual persons aged 7 to 54 from a nationwide sample of 6,146 households, and they are interviewed by temporary staff who enter the responses upon interview.

Questions asked include: numbers of PC owned, general-purpose computers owned, Internet hosts, wired/wireless 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subscribers to the facilities, in relation to IT tools and equipment; and numbers of PC users and PC communications/Internet users and frequency of e-commerce, in relation to use of digital technology.

PC ownership marked 25% for individuals and 48.6% for households, as of end-1999. Subscribers to cellular phones or PCS numbered 26,179,000 persons as of end-June 2000, which is four times as many as 6,910,000 in 1997. The most widely distributed software was for computer game. Every household with PC owned 7.7 pieces of game software, as of July 2000.

5. Conclusion

Considering the IT statistics administered by KNSO and other statistical agencies, the basic items on digital intensity, including corporate digitaliz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of IT producing companies, are all included in the statistics.

However, in order to come up with statistics about the impact of

digital economy and IT expansion in the social and economic dimension, the results of aforementioned statistical surveys should be analyzed, or relevant questions should be inserted into existing surveys, such as the one on prices.

These efforts to quantify the digital economy are going on in Korea. Although the indicators currently in place are not perfect, they will be updated and supplemented, especially in response to the policy makers' demand.

In addition, the indicators developed and used in leading nations will be studied and reviewed to learn precious lessons from them.

※ Referenc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and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RI) (2000),

Analysis on Economic Effects of the Economy Digitalization and Response to the Trend: Focused on Impact on the Society and Economy as a Whole, for economic policy of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n 2000 KNSO (2000),

Report on 1999 IT Industry Statistical Survey(2001), Results of E-Commerce Statistical Survey for press release

Bank of Korea(2000), Impact of the Advance of IT Industry on Productivity for press release(2001), Analysis on Economic Impact of IT Industry for press release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2000), 2000 Digitalization Statistics

Korea Information Culture Center (1999), Study on Digitalization in People' Life and People' s Awareness to Digitaliz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and KIIEP (2000),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OECD (2000), Knowledge-based industries and services,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1999: Benchmarking Knowledge-based Economies

OECD (2000), Measuring ICT Sector

SWP (Statistical Working Party) of OECD (2000), Knowledge-based industries

WPIE and WPISS of OECD (2000), Defining and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A provisional framework and a follow-up strategy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0), Digital Economy 2000, G.P.O., Washington, D.C.

강의문 제5부

『통계』 바로 알기

강요로 선택된 방법론

· 선택된 방법론

· 방법론의 선택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방법론의 선택

· 방법론의 선택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방법론의 선택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방법론의 선택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방법론의 선택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방법론의 선택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방법론의 선택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I. 통계의 의의와 중요성

1. 통계의 의의

□ 통계란? : 통계 = 정보(Information)

□ 통계의 중요성

- 統計即經國大本
- 「Statistics」: 라틴어 Stato(국가) + istics(지식체계)
 -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의 바탕
 - 기업의 기업 경영 자료
 - 개인의 의사 결정 기초 자료

장래의 세계는 통계에 의하여 지배된다(Economist紙)

충남대학교 상경대학 특강 자료(1999. 10. 13)

- 문맹, 컴맹, 통맹(수 문맹)
 -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
 - 컴퓨터를 활용할 줄 모르는 컴맹
 - 통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통맹(數文盲)

2. 우리나라의 통계 문화

□ 수에 둔감한 우리 문화

- 숫자를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은 제제한 사람으로 치부
 - “양반은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며 쌀값을 묻지 않는다”
 -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
- 일상 생활 용어 중에서 모호한 표현 다수 사용
 - 예) 두서너 개, 너댓 개, 반나절

□ 행정기관이나 기업에 통계나 DB를 관리하는 부서 취약

3. 통계가 잘못 이용되는 이유

□ 통계의 속성에 대한 무지

- 통계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상식과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경향
 - 통계 조사 과정, 통계 이용 방법, 통계 오차 등에 대한 오해 상존

□ 의도적 왜곡

-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실적을 과장, 홍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통계 왜곡 사용

- 공산주의 국가들의 통계

II. 통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1. 통계조사는 전수조사라야 한다?

- 전수조사
 - 모집단 전부를 조사
- 표본조사
 - 모집단에서 일정수의 표본을 뽑아 이들을 조사
-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대한 오해
 - 통계조사는 전수조사라야 정확하다.
 - 표본조사는 오차가 있어 정확하지 않다.
- 전수조사, 표본조사의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전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소 항목의 파악 가능 · 다목적 조사시 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경제적 : 비용, 인력 등이 대량 소요 · 시간 과다 소요 · 심층 정보 확보 곤란
표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 비용, 시간, 인원 등이 적게 소요 · 상세한 정보 획득 가능 · 자료의 정리 및 처리가 용이 · 오차 관리는 오차의 요구 정도에 맞게 표본 설계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오차 내포 · 회소 항목의 파악 곤란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 2000년 11월 1일 0시 기준
- 전수조사 : 일반 항목(전 인구 대상)
- 표본조사 : 특수 항목(전 인구의 10%, 2% 대상)

2. 어느 평균값이 맞나?

- 평균값은 주로 산술 평균의 의미로 사용
 ⇒ 그러나 산술 평균, 중앙값, 최빈수 모두가 평균의 의미, 따라서 어느 평균값인지 정확하게 지칭해서 사용할 필요
- 평균값 : 데이터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 값
 - 산술 평균 : 모든 자료의 값을 다 더해서 전체 수로 나눈 값
 - 중앙 값 : 데이터를 크기의 순서로 배열했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
 - 최 빈 수 : 데이터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

〈사례1〉 이 회사 종업원의 평균 월급은?

	인원(명)	1인당월급(만원)
· 경 영 총	3	500
· 관 리 직	7	420
· 공 장 장	1	300
· 사 원	10	240

- 산 술 평 균 : 340만원
- 중 앙 값 : 300만원
- 최 빈 값 : 240만원

- 사 장 : 우리 회사 직원의 월급은 340만원이다.
- 노 조 : 우리회사 직원의 월급은 240만원이다.
- 누구 말이 옳은가?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평균의 개념을 모두 이해하고, 상호 밀접하게 연관시켜 해석할 필요
- 평균값이 때로는 정상 혹은 표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 어린이의 키, 체중이 평균 이하일 경우 발육 부진으로 판단
 - IQ가 평균 이하일 경우 저능아로 판단 등
- 그러나 평균값은 어떤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일 뿐이므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
- 통계 작성자는 이용자의 이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여러 가지 평균값과 분포의 내용을 알려야 함

3. 통계가 아닌 통계

3-1. 표본이 적은 통계는 통계로 볼 수 없다.

- 과소 표본에 의한 조사 결과는 우연한 사건이거나 조작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뢰성이 없음

〈사례2〉 거지의 수입 발표

애거지 시간당 100弗 벌어 공무원 평균 월급의 2배에 달해
 『한국일보』 7면 / 1995. 3. 7

최근 이집트에서 경찰에 체포된 여자 걸인 1명을 조사해 본 결과 체포 직전 구걸행위
만으로 이집트 공무원 평균 월급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당 1백달러의 고액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 걸인은 기자 파리미드 인근 도로에서 구걸행위로 시간당 3백 이집트 파운드를 벌
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녀는 체포된 직후 경찰이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
회」를 박탈했다고 강력 비난.

이집트에서 구걸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하 1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카이로=AFP】

- 이 기사대로라면 이집트 거지는 연봉 36만불(432백만원)의
고소득자
- AFP통신 같은 유명 통신사가 어찌다 운 좋게 많은 수입을 올
린 거지 1명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오해를 초래

〈사례 3〉 우울증 여성에 대한 자기 자극법 효과

우울증

**“磁氣자극법 효과” 美연구팀,
20분 간격 환자 왼쪽이마 쏘아**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는 「두개골 磁氣 자극법(TMS)」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
과가 나왔다.

영국의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誌
최근호는 미국 워싱턴 근교 국립정신건강
연구소의 마크 조지 박사 연구팀의 우울
증 환자 치료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뉴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조지 박사는
작년 11월 다섯번 발작을 일으키고 자살
시도까지 했던 40대 후반의 여성 우울증

환자에게 자기자극법을 적용, 커다란 효
과를 거뒀다.

그는 야구글러브 크기의 電磁氣과(전
자기파) 발생장치로 이 여성의 이마 왼쪽
부위에 대고 20분 간격으로 자기파를 쏘
았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이 여성은 갈수록 정신상태가 좋아지며
『3년만에 처음으로 즐거운 기분을 느꼈
다』고 말했다.

『조선일보』23면 / 1995.9.7

- 표본이 1명으로 통계적 의미가 없는 실험 결과를 크게 보도

3-2. 대표성 없는 표본조사는 통계로 볼 수 없다.

-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에 의한 표본이라야 표본의 의미가 있음
 - 모집단에 속한 대상들이 표본에 뽑힐 확률이 동일하게 되어야 함. 즉 표본은 모집단의 축소판이 되어야 함
 - 예) TV에서 주택복권의 당첨번호를 뽑을 때 숫자가 적은 과녁에 활을 쏘거나, 유리 항아리 속에서 번호가 적힌 탁구공을 꺼내는 방법
- 대표성 없는 표본조사
 - 방송국 스튜디오에서의 즉석 여론조사
 - 길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 애청자의 엽서를 토대로 한 가요인기순위 책정
 - 아무 곳이나 전화를 걸어 찬반 투표하는 조사 등

〈사례4〉

1936년 미 대통령 선거시, Literary Digest 잡지사
“공화당 Landon 후보 당선될 듯”으로 보도

-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의 Alfred M. Landon 후보와 민주당의 Franklin D. Roosevelt의 대결
- Literary Digest라는 잡지사는 1000만 명의 유권자에게 설문서를 우송한 뒤 230만 명의 회수 응답지 분석 후 Landon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측했으나 결과는 Roosevelt 후보의 압

승으로 끝남.

⑤ - 예측 실패 원인

- 이 잡지는 잡지의 정기구독자와 전화번호부를 근거로 표본 추출
- 당시 경제상황에서는 잡지의 정기구독자나 전화 보유자는 소득이 높은 계층이고, 이들은 공화당을 선호하는 계층이므로 대표성이 낮은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가 되었음.

〈사례5〉

본회사 제품, PC통신 여론조사에서 당당히 1위

- 우리나라 신문광고에서 흔히 “우리 회사는 PC통신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습니다”라는 문구 등장
- PC통신 이용자는 수도권 지역의 10대~30대 젊은이들에 치우치므로 대표성이 낮음

4. 오차의 한계

- 모든 표본조사는 오차가 있으므로 오차를 감안한 해석을 해야하나 오차한계를 무시하고 집계된 결과만을 발표하는 사례 빈번
- A후보 지지도 35%(허용오차한계 : 신뢰수준 95%, 3%p)
⇒ 유권자 전체를 다 조사할 경우 A 후보 지지도

35% 지지 : (35-3)%와 (35+3)%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

는 의미

- 이럴 경우 32% 얻은 B후보와 35% 얻은 A후보, 38% 얻은 C후보는 사실상 허용오차범위 이내이므로 차이 없음
- 「○○○후보 당선 확실」하는 식의 단정은 곤란

〈사례6〉

20대 24.6% 대 23.8% 민자 더 선호 '이변'

『조선일보』(1995. 3. 29)

- 20대의 민자당 지지도는 불과 0.8%p의 차이로 오차의 범위 내이므로 정당 지지도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는 조사결과임에도 20대가 민주당보다 민자당을 더 선호하는 내용으로 기사 뽑음

5.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숫자의 변화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숫자가 퍼센트로 표시된 것 (실업률, 시장점유율 등)일 때에는 이 퍼센트의 변화(분기별, 연도별 변화 등)를 퍼센트 포인트로 표현함

97년 98년

- 실업률(%) 2.6 6.8

- “IMF 사태로 지난 1년 동안에 실업률이 4.2% 포인트

증가했다.”

- “IMF 사태로 지난 1년 동안에 실업률이 262% 증가했다.”
- 두 가지 모두 정확한 표현이나 듣는 사람 느낌은 각각 크게 다름

〈사례7〉 언론에서도 잘못 사용 사례

日 재 할인을 인하할 듯
엔高 대책 0.75%p 내려 1%로 조정 전망
『한국일보』 3면 / 1995. 4. 13

재 할인을 0.75% 인하 日, 엔高 긴급대책 발표
『조선일보』 1면 / 1995. 4. 15

- 일본에서 재 할인을 1.75%에서 1%로 내리겠다는 기사 이므로 『한국일보』의 표현이 정확

III. 통계의 체계

1. 최근 실물경제 동향과 전망

□ 최근 실물경제 동향

- 금년 들어 생산,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산업생산, 도소매 판매, 설비투자 동향을 나타내는 기계수주 등 실물

지표가 큰 폭으로 증가

- GDP 성장은 지난 해 5.8% 마이너스 성장에서 금년 2/4분기에는 9.8%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이 예상됨

(전년 동기비, %)

	98연간	99 1/4	2/4	6	7	8
· 생 산	-7.3	12.5	22.7	29.7	33.2	29.9
· 도소매 판매	-12.7	6.0	10.8	14.2	18.6	17.7
· 기 계 수 주	-30.5	16.9	38.5	51.1	29.4	29.1
· G D P	-5.8	4.6	9.8	-	-	-

□ 최근의 경기회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기술적 반등인가? 경기회복인가?

- 금년 들어 실물지표의 증가율이 높은 데는 기술적인 반등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기회복 요인에서도 기인

- 수출 출하는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증가 추세
- 소비와 투자 관련 지표도 지난 해 4/4분기부터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 일부 업종만이 주도한 것이 아닌가?

- 업종별로 반도체, 사무회계용 기계,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영향이 크지만, 나머지 업종들도 최근 들어 높은 증가

- 금년 1/4분기와 같이 경제 회복 초기에는 일부 업종이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6월 이후 다른 업종으로도 파급되는 추세

(전년동기비, %)

	98연간	99 1/4	2/4	6	7	8
· 생 산	-7.3	12.5	22.7	29.7	33.2	29.9
(반 도 체)	43.2	40.1	46.7	60.3	49.8	31.2
(사무회계용기계)	2.0	36.0	113.4	146.9	146.8	150.5
(자 동 차)	-34.5	29.8	53.8	67.0	119.1	150.3
(위 3개업종 제외)	-13.1	4.3	11.9	16.5	20.6	19.8

□ 현재의 실물경제 수준은?

- 8월 현재 경제수준은 생산의 경우 IMF 이전인 1997년 8월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소비는 거의 1997년 8월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설비투자는 80% 수준까지 접근

□ 앞으로의 전망

-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증가하고 있어 경기는 상승 추세임

(추세치=100, 포인트)

	98.8	10	12	99.1	2	3	4	5	6	7	8
· 순환변동치	85.6	87.0	88.6	88.8	88.7	89.4	90.1	90.9	92.0	93.4	94.1
(전월차)	-0.6	1.4	0.3	0.2	-0.1	0.7	0.7	0.8	1.1	1.4	0.7

주 : 동행종합지수 - 노동 투입량, 생산, 가동률, 출하, 전력 사용량, 수출·수입 등 10개 지표를 종합하여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도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호전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선행종합지수)

	98.8	10	12	99.1	2	3	4	5	6	7	8
· 전년동월비(%)	-2.7	1.1	6.0	8.7	10.4	11.8	14.1	16.5	18.7	19.9	21.3
(전월차, %p)	0.6	1.8	2.6	2.7	1.7	1.4	2.3	2.4	2.2	1.2	1.4

주 : 선행종합지수 - 건축 허가 면적, 기계 수주액, 수출 신용장 내도액, 수출용 원자재수입액 등 10개 지표를 종합하여 향후 경기를 미리 나타내는 지표

2. 물가통계

2-1. 최근의 물가동향

- 99년 1~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에 비해 0.6% 상승에 그쳐 최근 들어 가장 안정세를 보임
- 생활물가는 쌀, 쇠고기, 상수도료 등 생필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물가보다 1.5%p 높은 2.1% 상승

(전년동기비, %)

	93	94	95	96	97	98	99.1~9
· 소비자물가	4.8	6.2	4.5	4.9	4.5	7.5	0.6
· 생활물가	-	-	-	6.0	6.0	11.1	2.1

2-2. 소비자물가통계는 어떻게 만드나?

- 소비자물가지수란?
-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 변동 측정

• 작성 방법

- 매월 509개 품목별 가격을 36개 도시, 115개 시장 (7,900개 대상처)에서 조사
- 농축수산물은 월 3회, 공업 제품과 서비스 품목은 월 1회 가격을 조사하여 월별 지수 작성

2-3. 소비자물가와 체감과의 차이

- 소비자물가 :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의 평균
- 체감물가 : 개인의 소비 지출
⇒ 소득 계층, 직업, 연령, 성별에 따라 소비 지출 형태에 차이

2-4. 물가보조지표 개발

1) 생활물가지수

- 1998년 4월에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축소하기 위하여 「생활물가 지수」를 개발·공표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 지수성격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종합물가	소비자들의 기초생활품에 대한 물가
· 대상품목	509개 품목(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품목)	154개 품목(소비자 물가 지수대상 품목 중 생활품과 자주 구입하는 품목)

〈99년 월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 동향〉

(전년동월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소비자물가	1.5	0.2	0.5	0.4	0.8	0.6	0.3	0.9	0.8
· 생활물가	2.2	0.4	1.8	1.9	2.6	2.4	1.9	2.8	2.6

2) 신선식품지수, 구입빈도별지수

- 계절적, 기후적 요인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 과일류, 생선류 등 47개 품목을 묶어 「신선식품지수」 작성
- 소비자가 구입하는 회수를 기준으로 「구입빈도별 지수」 작성
 -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미만

(전년 동기비, %)

	소비자 물가	생활 물가	신선 식품	구입빈도	
				(월1회이상)	(분기1회이상)
· 98년 평균	7.5	11.1	8.9	12.9	11.9
· 99. 1~9월	0.6	2.1	9.7	4.2	-1.3

3) 품목별 조사 규격, 조사 대상처 보완

- 도시 가구의 소비 패턴과 유통구조 변화를 신속히 반영
 -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하는 규격으로 변경
 - 휴대폰, PC 등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진 102개 품목 조사 규격 보완
 - 수입품 비중이 큰 참깨, 도라지, 땅콩 등 일부 농수산물은 국산과 수입산으로 복수 규격화

- 유통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사 대상처 보완
 - 성장업체인 할인점과 편의점 추가, 재래시장 내 점포 축소
 - 휴·폐업 및 취급 중단 점포 등 332개 대상처 대체

3. 고용통계

3-1. 최근 고용동향

- 실업률이 1999년 2월 8.6%를 기록한 후 급격히 하락하는 등 고용사정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으며, 8월에는 5.7%까지 하락

	99.2	99.3	99.4	99.5	99.6	99.7	99.8
· 실업자(천명)	1,781	1,703	1,546	1,402	1,356	1,349	1,241
· 실업률(%)	8.6	8.0	7.1	6.4	6.2	6.2	5.7

- 실업률 감소의 주요인으로는
 - 첫째, 경기회복 가속화에 의한 고용 흡수력의 증가
 -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전년 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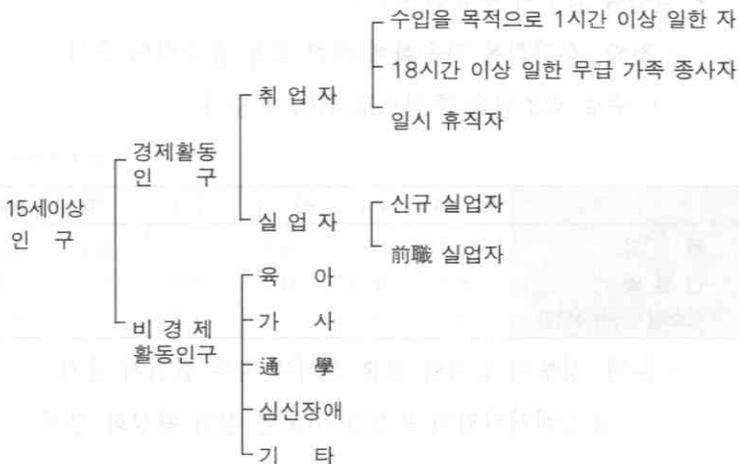
	98. 3/4	4/4	99.1/4	2/4	7월	8월
· 제조업	-14.7	-13.1	-6.6	1.7	5.4	7.2
· 건설업	-26.0	-26.4	-24.1	-8.7	0.5	2.1
· 도소매·음식숙박업	-4.6	-4.2	0.1	1.2	3.0	3.1

- 둘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취업자 증가
 - 중소기업의 육성을 비롯한 창업 활성화 정책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 SOC 등 공공투자의 확대

3-2. 고용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 조사 방법
 - 전국 30,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 15일이 속한 주간의 경제활동을 조사
 - 분류 기준 및 개념은 ILO 등 국제 기준에 의거
- 고용통계에서의 분류 기준
 - 만 15세 이상 인구를 ① 경제활동 인구 ②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
 -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
 - 비경제활동 인구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 인구



3-3. 고용 보조지표 개발

- 고용상황을 보조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위해 연구, 검토 중

1) 구직 활동 1개월 기준 실업 통계(OECD 기준)

- OECD 기준 실업 통계는 기존의 ILO 기준과 동일하나 실업자의 정의 중 구직 활동 기간과 관련하여 OECD 기준은 1개월, ILO 기준은 1주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 ILO와 OECD 기준 비교 >

	ILO 기준	OECE 기준
구직기간	1주간	4주간
취업자	주1시간 이상 일 한 사람	주1시간 이상 일 한 사람
실업자	수입 있는 일이 없었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즉시 취업이 가능했던 자	수입 있는 일이 없었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즉시 취업이 가능했던 자

- 1999년 6월분 고용동향부터 ILO 기준과 OECD 기준 실업 통계를 병행공표하고 있음

(단위 : 천명, %)

	99. 6월	99. 7월	99. 8월
· ILO 기준 실업자	1,356 (6.2)	1,349 (6.2)	1,241 (5.7)
· OECD 기준 실업자	1,470 (6.7)	1,460 (6.6)	1,349 (6.2)
· 차 이 (%p)	114 (0.5)	111 (0.4)	108(0.5)

주 : ()은 실업률

2) 불완전 취업자

- 비자발적 이유로 정상적 근로 시간보다 적게 일한 취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국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
- 현재 통계청은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를 공표

(천명,%)

	99.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18시간 미만 취업자	636	561	501	474	517	604
· 추가취업희망자	236	225	206	173	184	178
· (구 성 비)	(37.1)	(40.1)	(41.1)	(36.5)	(35.6)	(29.5)

3) 구직 단념자

- 구직 단념자는 일반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으로 정의됨
 -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음
- 현재 국제적으로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
-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환경에 적합한 기준 설정을 위해 연구 검토 중

IV. 통계정보 쉽게 찾아보기

1. 통계 정보 접근 경로



2. 통신망으로 접근하는 방법

□ 통계 정보 시스템(KOSIS,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 인구, 물가 등 19개 분야의 통계 자료를 DB화하여 1991년부터 메뉴 선택 방식으로 검색 가능

- 회원제 무료 서비스 : 1999년 9월 현재 회원 45,913명

- 접속 방법

- ① 인터넷 통계청 홈페이지 : www.nso.go.kr

- ② PC통신 경유 접속 : 천리안, 나우누리 등 14개

- ③ 전화 접속 : 042-481-2480, 02-3446-8561

- 특징

- 문자형(text) 서비스 : 웹형 서비스로 전환 중

- 다단계 검색 방법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 각종 통계 관련 정보, KOSIS 접근 경로

- 통계청 보도자료, 표준 분류, 인터넷 민원 등

□ 통계 정보 종합 서비스 시스템(Stat-Korea)

- www.stat.go.kr
- 우리나라는 108개 통계 작성 기관이 각각 통계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접근 불편
- 이를 통합하여 One-Stop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 구축
 - 기존의 KOSIS의 문제점도 동시에 보완한 시스템
- 현재 개발은 완료했으며, 수록 자료 점검을 위해 시험 운영 중
 - 1999년 11월 중에 대외 서비스 예정

3. 통계 간행물 및 CD-ROM 활용 방법

□ 통계 간행물

- 유료 구입 가능 서점
 - 대전 : 문경서적(선화동), 계룡문고(은행동), 대훈서적(타임월드)
 - 전국 : 종로서적, 교보문고 등 총 25개 서점
- 통계 자료실 : 자료 열람 및 KOSIS 검색 가능
 - 대전 통계청 본청 : 정부청사 3동 13층
 - 서울사무소 : 강남구 논현동
- 통계자료 코너 : 열람만 가능
 - 각 시·군·구청, 상공회의소, 대학도서관 등 151개 기관

□ 통계 CD-ROM

- 구입 가능 서점
 - 대전 : 문경서적(선화동), 계룡문고(은행동), 대훈서적(타임월드)
 - 전국 : 종로서적, 교보문고 등 총 25개 서점
- 가격 : 개당 7,000~15,000원
- 종류 : 한국통계연감,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 7종
- 특징
 - 통계적 분석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입력 불필요
 - 자체 분석 기능 사용 가능 : 도표 작성, 자료 추출 등

4. 주문형 통계 정보 서비스

- 기존 통계 간행물 이외의 심층 통계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의 주문을 받아 별도 전산 처리하여 제공
- 제공 기간 : 17일 이내
- 요금
 - 국가 및 지자체 : 무료
 - 기 타 : 유료

V. 정확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 통계 = 작성자와 응답자의 합작품
- 작성자 : 표본설계, 현황 조사, 결과 분석 등에 있어서 선

진 기법을 활용, 오차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

- 응답자 : 정확한 응답이 절대 필요
 - 사생활 노출 기피
 - 개인 비밀 노출 우려 ← 응답 기피
 - 과세자료 활용될 우려
- 법에 의해 비밀보호
 - 통계법에 의해 개인비밀은 철저히 보호
 - 통계로만 집계, 분석되기 때문에 과세자료화 할 염려 없음
- 정확한 통계는 정확한 응답에서 출발

2

통계 어떻게 읽을 것인가?

I. 통계제도

□ 통계의 분류

- 공식통계 :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 (물가, 고용, 국민계정 등)
- 비공식통계 : 공식통계 이외의 각종 여론 시장조사 등의 통계
- 조사통계 : 표본조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통계 (「○○○통계조사」 등)
- 행정통계 : 행정업무수행 중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통계 (자동차등록통계, 무역통계, 건축허가통계 등)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특강 자료(2001. 11. 30)

- 가공통계 : 조사통계나 행정통계에 어떤 연산을 가하여 작성한 통계(GDP통계, 경기종합지수 등)

□ 통계제도의 유형

- 집중형 : 캐나다, 독일, 영국,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등
 - 국가기본통계를 중앙통계기관에서 집중 생산
 - 통계전문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활용 가능
- 분산형 : 미국, 일본, 영국, 대만, 한국 등
 - 해당 정부부처에서 각 기관의 업무와 연관된 통계 생산
 - 업무관련 전문지식 활용 및 통계수요에 신속대응 가능

□ 우리나라의 통계제도

- 분산형 통계제도
 -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국가기본통계의 많은 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타 부처는 해당기관의 기능과 관련 있는 통계생산
- 통계작성기관 현황
 - 정부기관 : 통계청, 농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 민간지정기관 : 한국은행, 산업은행, 전경련 등

	계	정부기관(통계청)	민간지정기관
통계작성기관	134	64(1)	70
공식통계종류	414	312(54)	102

□ 통계청의 기능

- 국가기본통계 작성

- 월간통계 : 물가통계, 고용통계, 산업활동동향 등
- 연간통계 : 광공업 · 건설업 · 운수업통계 등
- 5년주기 : 인구주택총조사, 산업총조사, 도소매 · 서비스
업 총조사 등
- 통계기준설정 및 종합조정 : 표준산업분류 등
- 통계정보 집중관리 및 제공
 - 국내외 각종 통계DB 관리
 - 간행물 및 인터넷에 의한 자료제공

II. 통계계정책 방향

통계정책 : 4C Policy

- ◆ 이용자 중심의 통계개발(Customer-Oriented)
- ◆ 신뢰성 높은 통계생산(Credibility)
- ◆ 통계이용의 편리성 제고(Convenience)
- ◆ 대외협력증진(Cooperation)

- 이용자 중심의 통계개발(Customer-Oriented)
 - 수요가 많은 신규통계 적극 개발
 - 기존 통계도 이용자가 원하는 신규항목 추가
- 신뢰성 높은 통계생산(Credibility)

- 기획 · 조사 · 자료처리 · 결과표작성 등 전과정에서 오차 최소화
- 통계품질평가제도 정착
- PAPI에서 CAPI, CASI 등 전자통계조사방식 확대
- 조사직원의 전문성 제고
- 통계이용의 편리성 제고(Convenience)
 - 통계DB(KOSIS)의 콘텐츠 확대 및 속도개선
 - 통계정보 제공 매체의 다양화(인터넷, CD-ROM 등)
 - 원시 자료제공 및 다양한 통계상품 안내
- 대외협력증진(Cooperation)
 - 통계작성 기관에 대한 통계기법 및 표본틀 제공
 - 외국 및 국제기관과 통계기법 등 정보교환
 - 제53차 세계통계대회(ISI) 기 개최

III. 주요 통계지표

1. 고용통계

- 최근 고용동향
 - IMF 이후 급격히 상승했던 실업률(8.6%) 및 실업자(178만명)가 1999년 2월을 정점으로 하락세
 - 금년 2월 5.0%를 기록한 이후 3%대 초반 유지

	1999	2000	2001.7	8	9	10
실업자(천명)	1,353	889	760	752	684	699
실업률(%)	6.3	4.1	3.4	3.4	3.0	3.1

• 전체 실업률에 비하여 청년층 실업률은 높은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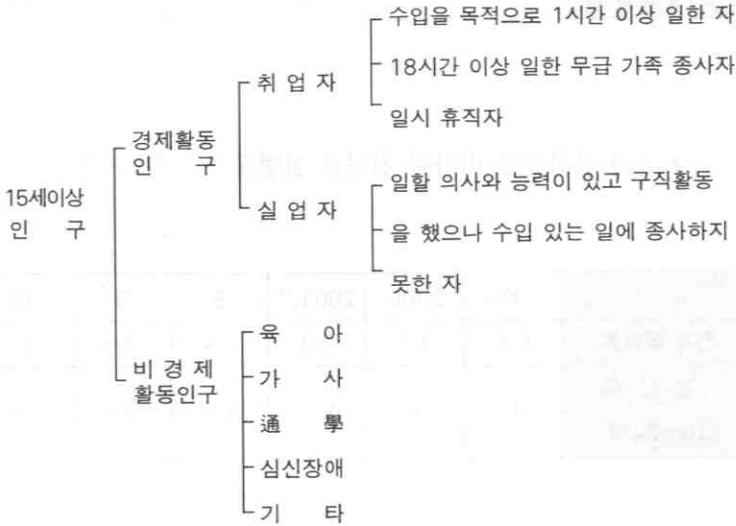
	1999	2000	2001.7	8	9	10
전체 실업률	6.3	4.1	3.4	3.4	3.0	3.1
· 청년층 (14~24세)	14.2	10.2	9.1	7.8	8.6	7.9

• 지역별로는 부산(4.2%) 등 대도시의 실업률이 높고, 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전국	7대광역시	9개도	수도권	부산	충남
3.1	3.8	2.5	3.4	4.2	1.6

□ 실업통계의 작성기준

• 노동가능 인구의 구성



• 노동가능 인구의 구성내용(2001. 10월 기준)

(천명, %)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인구	취업자	실업자			
36,585	22,563	21,863	699	14,022	3.1	61.7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 고용통계 보조지표

• OECD 기준 실업통계

-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을 1개월로 확장한 기준으로 지난 1999년 6월부터 공표
- OECD 기준은 ILO 기준 보다 실업률이 약 0.2%p, 실업자수는 약 4만명 높게 나타남

	2001. 6	7	8	9	10
ILO기준(%)	3.3	3.4	3.4	3.0	3.1
OECD기준(%)	3.5	3.6	3.6	3.2	3.3

• 불완전취업자(추가취업희망자)

- 비자발적 이유로 정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한 취업자
- 국제적인 기준은 없으나 현재 통계청에서는 취업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취업자를 의미
- 노동력 불완전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취업희망자 통계를 1998년 5월부터 공표

(만명, %)

	2001. 6	7	8	9	10
18시간미만취업자	54	61	72	54	50
추가취업희망자	13	14	12	10	10
(비 중)	24.9	23.4	16.5	17.6	19.8

- 구직단념자통계(Discouraged Worker)
 - 잠재 노동력 현황 파악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할 능력과 의사는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
람
 -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
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지난 1년 이내에 구직경험이 있는 자(구직단념자)로
1999년 11월부터 공표

〈구직단념자〉

(만명)

2001. 6	7	8	9	10
12	13	13	11	9

□ 공식실업과 체감과의 차이

• 개념 및 기준의 차이

- 공식 실업률은 일할 의사와 능력, 구직활동 여부, 수입
있는 일에 종사여부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작성
- 일반인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무직·고용상태가 불완
전한 자를 실업자로 간주하는 등 주관적·자의적 기준으
로 해석

• 전체와 개인의 차이

- 통 계 : 전체의 평균적인 개념으로 작성

- 일반인 : 개인의 상황(연령, 학력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

〈연령대별 실업률〉

(2001. 10, %)

전체	청년층 (15~24세)	30대	40대	50대	60대
3.1	7.9	2.7	2.2	2.3	1.0

□ 어떻게 자료를 읽어야 하나

- 고용동향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 실업률 이외에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할 필요
 - 공식 실업률 뿐만 아니라 구직단념자, 추가취업희망자 등 다양한 보조지표 활용 필요

2. 물가통계

□ 최근 물가동향

- 금년 소비자물가는 1~11월 중 4.4% 상승하여 하향안정 추세

(전년동월(기)비, %)

	상반기	7	9	11	1~11
소비자물가	4.7	5.0	3.2	3.4	4.4
생산자물가	2.8	2.7	1.2	-	2.3*
Core인플레이션	4.4	4.3	3.6	4.0	4.2

* 생산자물가는 10월 기준

- IMF로 인해 1998년은 물가상승률이 높았으나 최근 예년의 평균물가 상승률에 근접

(전년동월(기비, %))

	96	97	98	99	2000	2001. 1~11
소비자물가	4.9	4.5	7.5	0.8	2.3	4.4
생산자물가	3.2	3.9	12.2	-2.1	2.0	2.3*
Core인플레이션	5.1	3.4	5.9	0.3	1.8	4.2

* 생산자물가는 10월 기준

□ 물가지수 유형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

- 생산자물가(도매물가)

- 생산자의 국내시장 출하단계에서의 재화·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

- Core인플레이션율(근원물가)

-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장기물가

- Core인플레이션율 : 소비자물가 - 석유류가격 및 곡물 이외의 농산물가격변동률

- Deflator로서의 물가

-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및 수출입물가를 포괄한 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와 보조지표

- 소비자물가

-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
- 국민생활상 중요한 509개 상품의 소비자가격 및 서비스 요금을 전국 36개 도시, 115개 시장에서 조사요원이 매월 조사
- 농축수산물 월 3회, 공업제품 및 서비스 품목은 월 1회 조사

※ 품목과 가중치를 2000년 기준으로 개편중

- 도시가계자료 이용
- 외식 및 정보통신관련 품목 · 가중치 증가
- 생활물가
 - 체감물가와와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비자들의 기초생활필품의 물가변동분을 파악하기 위해 1998년 4월부터 개발 · 공표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지수성격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종합물가	소비자들의 기초생활필품에 대한 물가
대상품목	509개 품목(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품목)	154개 품목(소비자물가지수 대상품목 중 생활필품과 자주 구입하는 품목)

- 신선식품지수
 - 채소류, 과일류 등을 대상으로 작성
- 구입빈도별물가

- 구입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작성
- 근원물가(Core인플레이션율)
 - 석유류 및 농산물을 제외한 가격변동률

〈보조지표 유형별 상승률〉

(전년동월(기)비, %)

		2001. 상반기	9	11	2001. 1~11
소 비 자 물 가		4.7	3.2	3.4	4.4
생 활 물 가		5.6	2.6	2.8	4.7
신 선 식 품		0.6	-1.4	5.3	3.2
구 입 빈도별	월 1회 이상	5.6	2.9	4.1	5.1
	분기 1회 이상	5.5	1.2	0.4	4.1
	연 1회 이상	3.2	3.3	3.1	3.2
Core인플레이션율		4.4	3.6	4.0	4.2

□ 소비자물가와 체감과의 차이

- 소비자물가 :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의 평균
- 체감물가 : 개인의 소비지출에 따른 느낌

⇒ 따라서, 소득계층, 직업, 연령, 성별에 따라 소비지출 체감에 차이 발생

□ 어떻게 자료를 읽어야 하나

- 소비자물가 이외에 생활물가, 신선식품, 구입빈도별물가, 근원물가 등의 보조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석

(전년동월(기)비, %)

	2001.3	3	6	9	10	11
· 전월비	1.1	0.6	0.3	0.0	0.1	-0.5
· 동월비	4.2	4.4	5.2	3.2	3.6	3.4
· 동기비	4.2	4.2	4.7	4.6	4.5	4.4

3. 산업동향

□ 최근 실물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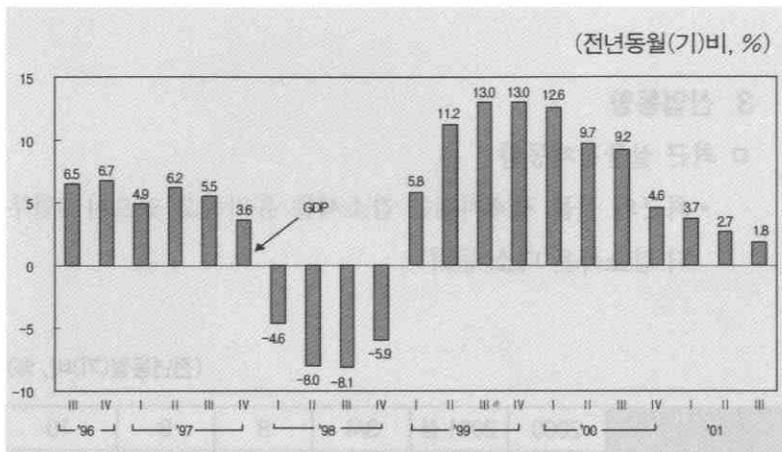
- 최근의 실물 경제지표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9월부터 감소폭은 다소 둔화

(전년동월(기)비, %)

	2000	2001.상	3/4	8	9	10
· 생 산	16.8	3.2	-1.8	-4.4	5.1	-1.3
· 출 하	16.6	1.6	-2.3	-5.6	4.6	-0.9
(수 출)	21.7	3.9	-9.3	-13.6	-3.0	-2.1
· 설비투자	30.1	-5.4	-12.2	-19.4	-6.4	-4.4
· 도소매판매	9.8	4.8	4.8	3.6	7.8	4.6

• IMF 이후 GDP 변화추이

- 98년 마이너스 성장→99년 고성장→2000년 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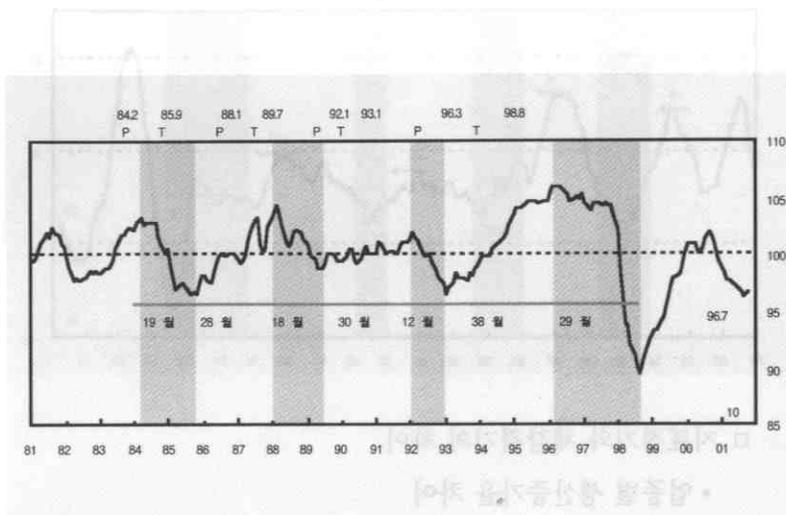


• 경기동행지수

- 하강추세였던 순환변동치는 9월 이후 소폭 상승하여 경기는 다소 반등하는 모습

	2001.3	4	5	6	7	8	9	10
순환변동치	97.8	97.6	97.4	97.0	96.6	96.2	96.4	96.7
(전월차, p)	0.0	-0.2	-0.2	-0.4	-0.4	-0.4	0.2	0.3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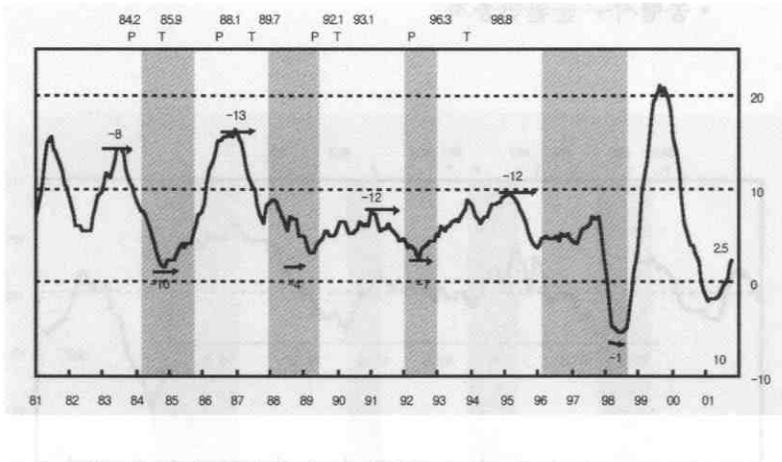


• 경기선행지수

- 전년동월비가 10월에 0.6%p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상승함으로써 경기회복국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001.3	4	5	6	7	8	9	10
전년동월비(%)	-1.8	-1.8	-1.5	-0.9	-0.4	0.2	1.9	2.5
(전월차, %p)	0.0	0.0	0.3	0.6	0.5	0.6	1.7	0.6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차이

• 업종별 생산증가율 차이

- 선박·자동차는 호조, 상대적으로 반도체·컴퓨터는 부진

(전년동월(기)비, %)

	2000	2001.상	8	9	10
· 반도체	36.3	12.0	-10.2	4.4	0.1
· 컴퓨터	61.4	-6.3	-40.8	-26.9	-4.0
· 자동차	13.7	1.0	-1.3	7.7	-4.0
· 선 박	-4.2	24.8	56.1	58.8	45.8
· 섬 유	0.4	-11.4	-11.5	-4.5	-15.4

• 수출/내수 차이

- 과거 : 수출호조로 내수업체의 체감경기 부진
- 최근 : 수출감소로 수출업체의 체감경기 부진

	2000	2001.상	8	9	10
내수출하	12.7	-0.2	1.4	11.4	0.0
수출출하	21.7	3.9	-13.6	-3.0	-2.1

• 제조업/서비스업 차이

- 과거 : 제조업이 서비스업 보다 호조
- 최근 : 제조업 체감경기 부진

(전년동월(기)비, %)

	2000	2001.상	7	8	9	10
제조업	17.1	3.1	-6.2	-4.9	4.7	-1.6
서비스업	8.8	5.2	3.3	5.6	7.2	-

□ 어떻게 지표를 읽어야 하나

- 우선 종합지표를 보고 전체의 흐름을 파악
 - 경기종합지수, GDP, 생산지수, 서비스업지수 등
 - 종합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지표 파악
 - 업종별 · 품목별 지표, 내수 · 수출지표 등
- ⇒ 지표를 분석할 때는 전체의 흐름과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

I. IMF 자금 지원 당시(1997. 11) 상황

1. 외채 규모의 증가와 구조 악화

- 외채는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따라 1992년 428억불에서 1996년말 1,047억불로 증가
- 단기 외채 비중도 43.2% → 58.3%로 증가

(억불, %)

	92말	93말	94말	95말	96말
총 외 채	428.0	139.0	568.0	784.0	1,047.0
· 장기 외 채	243.0	247.0	264.0	331.0	437.0
(비 율)	56.8	56.3	46.5	42.2	41.7
· 단기 외 채	185.0	192.0	304.0	453.0	610.0
(비 율)	43.2	43.7	53.8	57.8	58.3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특강 자료(1998. 12. 1)

2. 가용 외환 보유고의 급격한 감소

- 1996년말 294억불의 가용 외환 보유고가 1997년말 89억 불로 급격히 감소
- 1997. 12. 18 : 39.4억불로 고갈

(억불)

	96말	97. 1	3	5	7	9	10	11	12
· 가용 외환 보유고	294.2	271.5	211.4	238.9	256.6	224.2	223.0	72.6	88.7

3. 환율 급등 및 주가 하락

-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환율은 800원대(1997.7)에서 1,400원대(1997.12)로 급등(1997. 12. 24 1,965원까지 급상승)
- 주가지수는 700대(1997.7)에서 300대(1997.12)로 폭락

(평균기준)

	96말	97. 1	5	7	9	10	11	12
· 환 율	844.2	861.3	891.8	892.0	914.8	965.1	1163.8	1415.2
· 주가지수	651.2	685.8	756.8	726.1	647.1	470.8	407.9	376.3

4. 경상수지 적자지속

- 1990년 이후 계속돼온 경상수지적자가 1996년에는 230억 불을 기록한 후 1997년에도 적자 지속

(억불)

	'90	'91	'92	'93	'94	'95	'96	'97
경상수지	-20	-83	-39	10	-39	-9	-230	-81

5. 국가 신용 등급의 급락

- 1997년 외환위기 이전 투자 적격이던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6~12단계 하락하여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급락

(금액 기준, %, 개)

가 관 명	위기 이전(97.9)	위기간(97.10~12)	비 고
Moody's	A1	Bal, Negative	6단계 하락
S & P	AA-	B+, Negative	10단계 하락
Fitch IBCA	AA-	B-, Negative	12단계 하락

6.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

- 대외 신인도 하락, 대기업 부도, 부실 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이 급격히 유출

(억불)

	96말	97.1	3	5	7	8	9	10	11
증권투자자금	1.0	5.6	-2.9	13.4	8.7	-0.4	-3.8	-7.9	-7.4

7. IMF 구제금융 신청

- 1997. 11. 19 외환 보유고 고갈로 IMF에 국제금융 지원 요청기로 결정

- 1997. 11. 21 IMF에 구제금융 지원 요청 발표
- 1997. 11. 25 금융기관 부실 현황 파악 및 부실 기관 정리
방안에 대한 실무 협의 시작
- 1997. 11. 27 거시·재정·대외 거래 등 경제 전반에 대
한 협의 시작
- 1997. 12. 3 IMF의 자금 지원(550억불) 및 우리가 이행
해야 할 사항에 대한 합의 발표

II.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1. 외환 보유고 확충 및 환율 안정

- IMF, IBRD, ADB 자금을 조기 도입, 외환 시장 조기
안정
 - 공적 지원 자금 도입 : 270억불 도입(1998. 11 현재)

(억불)

	계	IMF	IBRD	ADB
· 계 획 액	350	210	100	40
· 도 입 실 적	270	180	60	30

- 단기 채무 만기 연장(Rollover)의 성공적 추진으로 은행,
증권사의 급박한 외환 유동성 부족 사태 해결
 - Rollover 비율 : 26.3%(97. 12) → 94.1%(98. 2)

(%)

	1997.12	1998.1	2	3	4	5	6	7	10	11
· Rollover	26.3	81.9	94.1	97.7	98.8	93.3	98.9	92.6	82.9	88.1

-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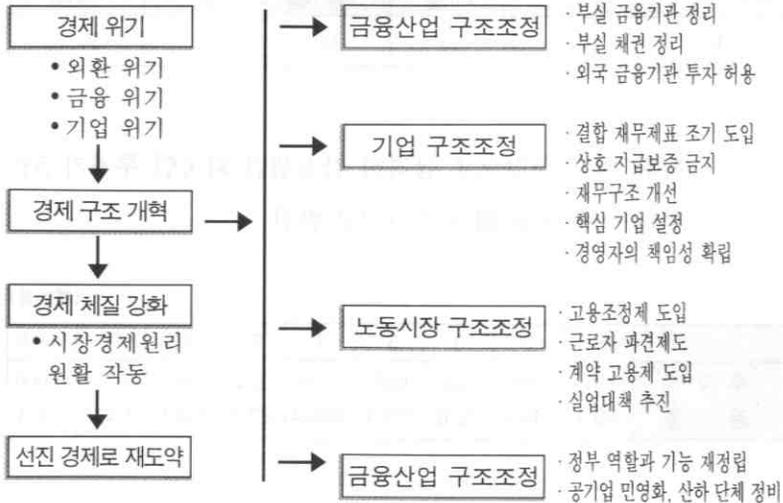
(억불)

구 분	당초 계획	실 발행액	증 감
· 외환채 발행	30	40	10

2. 구조 개혁 추진

-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는 단순히 외환 문제 해결만이 아님
 -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함
-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투명성 : 민주적, 합리적 사고를 전제
 - 개방성 : 경쟁과 효율을 요구
-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

〈경제 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3. 규제 개혁 추진

- 모든 규제를 Zero-Base에서 재검토,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

	총규제수	폐지	개선	존치
건수	11,125	5,326	2,441	3,358
(%)	100	47.9	21.9	30.2

4. 외국인투자 촉진

- 외국인투자의 국내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 확대(자유화율 97.3%)

총업종(A)	자유화(B)	제 한(C)			자유화율 (B/A)
		미개방	부분개방	31	
1,148	1,117	13	18	31	97.3%

- 외환 위기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했던 외국인 투자가 5월 부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반전

(백만불)

	98.1	2	3	5	7	9	10	11	1~10
· 투자액	130	199	243	659	1,235	534	894	1,378	6,909
· 증가율	-85.1	-45.2	-72.6	170.1	203.4	23.3	147.6	1,414	16.4

III. 최근의 경제동향

1. 금융·외환 시장

1) 외환 보유고 현황

- 외환 보유고는 금년 들어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 등에 힘입어 현저히 개선됨
 - 11월말 현재 가용 외환 보유고가 464.7억불로서 IMF와 합의한 연말 목표 410억불을 이미 초과 달성

(억불)

	1997.12말	1998.3말	5말	7말	9말	10말	11말
· 외 환 보 유 액(A)	204.1	297.5	387.6	430.2	469.8	483.3	500.2
· 해외점포예치금(B)	113.3	54.0	42.1	35.6	34.0	33.7	33.5
· 기 타(C)	2.0	2.0	2.0	2.0	2.0	2.0	2.0
· 가용 보유액(A-B-C)	88.7	241.5	343.5	392.6	433.7	452.7	464.7

2) 환 율

- 외환 위기로 한때 1,964원(1997. 12. 24)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외환 보유고 및 거주자 외화 예금의 증가 등 외환 시장의 안정 요인이 지속되고 내외 금리차 축소, 엔화 환율의 안정 지속으로 11월에는 1,200원대 진입

	6말	7말	8말	9말	10말	11말	12.11
· ₩/\$ (기준환율)	1,385	1,236	1,332	1,374	1,314	1,244	1,208
· ¥/\$	142	144	141	134	116	123	117
· 가용외환보유고(억불)	370	393	414	434	453	456	-
· 거주자외화예금(억불)	96	120	123	127	126	134 ^{h)}	-

주 : 11. 26일 기준

3) 금 리

- IMF 이후 한때 30%대로 치솟던 시장 금리는 안정세를 보여 10월 이후 한 자리 수로 하락
 - 콜금리와 CP금리는 11월말 현재 7%대로 하락
 - 회사채 금리는 11월말 현재 9.3%로 하락

	1997.11말	12말	98.6말	7말	8말	9말	10 말	11말	12.11
· 콜금리(1일, %)	12.4	26.0	14.9	11.0	8.6	7.4	7.4	7.1	6.9
· CP (91일, %)	17.0	40.8	17.0	12.8	10.6	10.7	7.9	7.9	7.7
· 회사채(3년, %)	16.0	29.0	16.0	12.3	11.7	12.7	10.0	9.3	8.0

4) 주 가

- 주가는 엔화 강세와 외국 투자기관 및 IMF 등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 개선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금리 인하에 힘입어 6개월만에 400선을 회복하였으며, 12월 7일에는 500선을 돌파

	98.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7
· 주가(평균)	439.5	327.8	312.8	317.6	358.8	429.7	514.5
· 외국인주식순매수(억원)	42,033	412	△599	1,128	6,854	6,445	-

2. 실물경제

1) 생 산

- 산업 생산은 금년 들어 계속 10%대의 감소세를 보이다가 9월에 소폭 증가세로 반전, 10월에 다시 감소
 -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감소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양상임
- 10월중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67.6%로서 9월에 이어 상반기 가동률 평균 수준(67.2%)을 상회

(전년 동기비, %)

	1997	1998.1/4	2/4	7	8	9	10
· 산업생산	6.9	-7.8	-11.6	-13.0	-11.8	0.1	-8.0
· 출 하	5.0	-7.5	-13.3	-14.0	-16.1	-3.1	-11.2
(수 출 용)	16.1	30.4	24.8	22.6	21.9	32.4	24.8
(내 수 용)	1.0	-22.1	-28.0	-28.9	-31.9	-18.3	-26.6
· 평균가동율	79.9	67.3	67.1	63.7	62.9	70.0	67.6

2) 소비 및 투자 활동

- 소비는 16~17%의 감소세가 계속되다가 8월 이후 둔화되는 추세
-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기계 수주가 7월 이후 20%대로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며, 건설 투자는 민간 주택·사무실·공장·창고의 발주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전년 동기비, %)

	97	98.1/4	2/4	7	8	9	10
· 도·소매판매	3.2	-10.4	-15.8	-17.4	-16.7	-11.9	-13.6
· 기계수주	3.3	-39.3	-44.2	-26.8	-25.7	-14.7	-25.8
· 건설수주	4.7	-24.5	-54.2	-41.0	-41.9	-50.3	-51.9

3) 수출입

- 수출은 금년 4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 이후 엔화 약세,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반전
- 11월 수출은 선진국의 금리 인하 등 대외 여건 개선과

반도체 가격 상승, 자동차 등의 호조에 힘입어 1.5% 증가하여 7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 수입은 내수 감소, 환율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세가 연초부터 지속
 - 11월에는 금년 중 30%대의 감소세에서 처음으로 20%대의 감소율로 축소
 - 용도별로는 자본재 수입의 감소율이 크게 둔화
 - 용도별 수입 증가율(% , 11. 1~20)
 - 원자재 -32.8, 자본재 -23.1, 소비재 -38.9
- 경상수지는 큰 폭의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억불 이상의 흑자 기록

(억불)

	97연간	98.1/4	2/4	7월	8월	9월	10월	11월	98.1~11
경상수지	-81.7	108.3	109.1	35.3	22.2	36.8	27.5	-	341.1
수출입차	-84.5	83.9	113.8	29.3	26.6	36.4	31.8	36.7	358.7
-수출 (통관)	1361.6 (5.0)	322.4 (8.5)	348.5 (-1.9)	100.3 (-15.1)	97.8 (-11.4)	108.9 (-3.9)	108.4 (-13.1)	120.1 (1.5)	1205.5 (-2.6)
-수입 (통관)	1446.2 (-3.8)	238.9 (-35.5)	236.5 (-36.7)	71.0 (-43.8)	71.2 (-38.1)	72.5 (-37.2)	76.6 (-39.2)	83.4 (-28.8)	846.8 (-37.0)

주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 부도율

- 어음 부도율은 10월 들어 작년 8월 이후 최저치인 0.18%로 하락
- 부도 업체 수도 1일 평균 43개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

(%)

	1997.11	12	1998.6	8	9	10
·어음 부도율(서울)	0.41	0.78	0.49	0.47	0.35	0.18
·1일 평균 부도 업체 수(전국)	57	128	106	73	42	43

- 9월 이후 7대 도시의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 법인 수의 비율은 4.2배로 상승,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1997.11	12	1998.1	3	6	9	10
·신설 법인 수 (A)	1,549	1,459	1,242	1,777	1,483	1,667	1,555
·부도 법인 수 (B)	530	1,175	1,176	849	588	397	373
·배율 (A/B)	2.9	1.2	1.1	2.1	2.5	4.2	4.2

5) 고용

- 계속 증가하던 실업률이 8, 9, 10월 3개월 연속으로 전월보다 감소
 - 10월 중 실업률은 7.1%, 실업자 수는 154만 명을 기록
 - 이렇게 실업자 및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공공근로사업 실시와 함께 수확기를 맞아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제조업에서 경공업, 임시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 만명)

	1997	1998.1	2	3	4	5	6	7	8	9	10
·실업률	2.6	4.5	5.9	6.5	6.7	6.9	7.0	7.6	7.4	7.3	7.1
·실업자수	56	93	124	138	143	149	153	165	158	157	154

IV. 향후 경제 전망

- 내년도 우리 경제의 전망을 놓고 신중론과 낙관론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신중론의 견해
 - 경기 저점 내년 말쯤에나 가능
 - 내년 성장률도 (-)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낙관론의 견해
 - 경기는 내년 2/4분기 내지 3/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
 - 내년초 경기 저점을 지난 후 U자형으로 경기가 다시 상승
→ 내년 성장률 (+) 예상

1. 신중론의 근거

- 세계 경제성장 및 교역 둔화
 - 동아시아 금융 위기가 러시아, 중남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불황 지역으로 진입하는 추세
 - 이에 따라 내년 세계 경제성장이 1998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둔화가 지속되고 교역도 금년보다 나아지지는 않을 전망
-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상존
 - 러시아 위기, 아시아 금융 위기 여파에 따른 중남미 경제 불안, 중국의 위안화 절하 가능성 등 국제 금융 시장에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음

□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지연

- 금융 구조개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신용 경색 현상 지속
-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구조조정 미진
- 노동시장도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원만한 개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 부문은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등 지연

□ 경제 활동 부진

- 중국의 경제 불안, 아시아 국가들의 침체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수출 단가 하락으로 수출의 채산성이 매우 낮음
- 금융시장 경색,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음
- 실업 증가,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매우 부진함

2. 낙관론의 근거

□ 외환 보유고 충분

-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70억불(GDP의 12%) 이상으로 예상되고, 현재 가용 외환 보유고는 IMF와 합의한 연말 목표를 이미 초과
- 올해 외채 상환 소요보다 외자 조달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도 약 80억불 정도의 외환 공급

우위 예상

⇒ 이에 따라 제2 외환 위기 가능성 희박

- 외국 기관들도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

- JP 모건(10. 23)

- 한국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으며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2.0%로 상승할 것임

- 레만 버러더스(10. 20)

- 외환 보유액이 단기 외채 규모를 넘어섰고 정부의 개혁 의지가 확고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음

- OECD 경제 전망(11. 17)

- 한국은 역대 최고 수준의 외환 보유고, 총 외채 중 단기 외채 비율 축소, 적정 환율의 유지 등으로 제2 외환 위기 도래를 방지하는 능력이 크게 강화

- 칸드쉬 총재(11. 24)

- 한국경제가 Turning point에 와 있음

- 모건 스탠리(11. 24)

- 한국 경제가 바닥에서 벗어났음

□ 국가 신인도 향상

- 지난 12월 4일(뉴욕 시간)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원화 표시 국채 등급을 외화 채권 등급(Ba1) 보다 3단계 높은 Baa1로 확정 발표

-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정성 및 낮은 국가 채

무 비율을 감안할 때 원화 국채 등급은 안정적 투자
적격에 해당한다고 설명

- 금번 무디스의 평가는 IMF 체제 직후 정크본드에 머
물고 있는 신용 등급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
- 이번 발표를 통해 국내 자산을 담보로 한 자산 담보
부 채권(ABS) 발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원화 표시 채
권 매입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 국제 금리 인하

-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단행한 세 차례의 금리 인
하(9.29, 10.15, 11.17)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함
으로써 주가 반등, 회사채 매수세 회복, M&A의 재개
등을 통하여 미국의 신용 경색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
활동을 자극
- Federal Fund Target Rate : 5.50(당초) →
4.75(11. 17)
- 지난 10월 미국 외에도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 8개 주
요 선진국들이 세계적 불황 방지를 위하여 일제히 금리
를 인하
- 리보 금리의 인하를 유도할 전망
- 12월 3일에는 EU 11개국이 유럽 단일 통화 출범을 앞
두고「유로」의 신뢰성 제고와 유럽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 단행(3.2~3.75 → 3.0)

□ 엔화 강세

- 미국의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엔화가 최근 들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종가 기준)

	1997말	1998.3	5	7	9	10	11말	12.8
·엔 / 달러	130.6	133.2	138.9	144.7	136.7	116.7	124.0	119.7

- 미국의 경기 호황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엔화가 연초보다는 다소 강세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
- 국제 금융 시장의 안정
 - 파산 위기에 처한 LTCM에 대한 채권 금융 기관의 자금 지원(35억달러), 브라질에 대한 국제적 지원 결정 등으로 국제 금융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
 -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없었다는 점도 국제 금융 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
- 최근 우리 경제 지표 호전
 - 경기의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선행지수의 전월비도 증가세가 확대
 - 현재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 연속 증가세

	1997.12	1998.1	3	5	6	7	8	9	10
선행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11 5.0	-3.8 0.4	-1.5 -3.8	0.3 -3.5	0.5 -3.5	0.1 -3.4	0.5 -2.9	1.9 -0.8	1.2 0.7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98.0 -1.3	93.8 -4.2	88.7 -2.7	86.9 -1.7	86.0 -0.9	85.0 -1.0	84.3 -0.7	85.5 1.2	86.0 0.5

- 9월 산업 생산이 증가세로 반전, 전분기 대비 산업 생산 증가율도 2분기 -1.7%에서 3분기 4.3%로 급증
- 외환 위기 이후 60%대에 머물던 제조업 평균 가동율도 9월에 70%대를 기록
- 어음 부도율도 10월에 0.18%로 하락하여 지난 해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3. 종합 의견

- 최근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흐름을 볼 때 경기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닥권에 근접한 것으로 보임
-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경기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각 기관들도 내년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으나, 낙관적인 전망이 다소 우세하며 금년보다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데에는 일치하고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관건은 성공적인 구조조정, 세계 경제의 안정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OECD 경제 전망(98. 11. 17)

- 한국은 내년에 0.5%의 성장률을 달성
- 경기회복의 시점과 강도는 다음과 같은 변수에 좌우
 - ① 다른 아시아국의 경제 상황

- ② 은행들의 대출 능력 회복
- ③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성
- ④ 실업과 명목 임금 하락에 대한 가계의 반응
- ⑤ 외국 투자가의 반응

〈국내 기관 1999년 경제 전망〉

(%, 억불)

	정부	KDI		KIEP	삼성연		LG연	대우연
		낙관	비관		낙관	비관		
GDP	2.0	2.0	-1.5	2.0	2.2	-1.8	1.1	-1.7
소비자물가	5.0	3.0	1.7	-	5.2	2.0	3.1	2.5
연평균 실업률	8.3	8.2	8.9	-	8.7	10.0	8.7	9.0
경상수지	260	294	309	-	154	151	218	254

〈외국 기관 1999년 경제 전망〉

(%, 억불)

	IMF	WEFA	DRI	JPM
GDP	-1	0.6	1.0	2.0
소비자물가	4.3	10.5	8.7	-1.0
연평균 실업률	6.0	-	8.8	-
경상수지	267	393	218	207

통계 선진국을 향하여

글 쓴 이 | 윤 영 대

발 행 처 | 통 계 청

인쇄 | 2002년 7월 20일

발행 | 2002년 7월 30일

편집 · 제작 | 모아드림

ISBN 89-5664-008-4

非賣品
